

2015-03

기본연구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진단과 대응과제

고 승 한 · 윤 소 영

Pending issue research

Policy research

Commissioned research

Policy research

Jeju Development Institute 제주발전연구원

기본연구 2015-03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진단과 대응과제

고승한 · 윤소영

발 간 사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 현상의 확산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강구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당면할 소득보장, 보건의료, 일자리 및 고용 및 주거문제 못지 않게 노인여가문화 문제도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필요조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2014년 12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3.3%를 차지하여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사회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 대책을 마련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노인여가문화 정책은 제주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주가 100세 시대의 장수사회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노인복지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정책에 대한 현단계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제주노인들이 노인여가문화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향후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한 정책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주지역 노인여가문화의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제주지역의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조그만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2015년 6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 기 춘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우리사회가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인여가문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
- 제주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여가문화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선을 통하여 노인여가문화 생활의 질적 개선이 요구됨.
- 따라서 제주노인들이 은퇴 후에 노인여가문화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모색하여 제주노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조사에 의한 선행연구 고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간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설문조사 자료 분석
- 전문가 포럼에 의한 전문가 의견 수렴

3. 연구내용

-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주요 특성과 파급효과 분석
- 정부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변화와 특성 분석
- 국내외 노인여가문화 정책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제주지역 노인들의 여가문화 생활실태조사
- 향후 제주노인의 여가문화 질적 변화위한 정책방향과 대응과제 제시

4. 연구의 기대효과

- 고령사회의 변화와 주요특성에 대한 이해 증진
- 제주도내 노인들의 여가문화 생활실태 인식과 개선 방안 마련
- 제주지역 노인여가문화 연구 분야에 대한 학술 정책연구의 기초자료 생성

- 제주지역의 노인세대 여가문화 질적 변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5.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주요 변화와 특성

- 고령사회에서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유소년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
- 생산인구의 감소, 피부양인구의 증가, 노인부양비 증가, 생산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율의 저하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부양, 보건·의료, 연금, 복지 등 분야에서 노인복지지출 재정문제와 각종 노인문제(빈곤, 방임, 학대, 자살 등)의 발생

6.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주요 특성과 변화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제정 및 공포
 -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 후 시행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문화기본법, 노후준비지원법에 의거 노후의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 명시
-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 변화
 - 노인에 대한 부담을 국가, 사회, 개인의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인식
- 일-삶의 균형과 연령통합사회의 지향
 -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전 생애에 걸쳐 일, 여가, 교육의 동등한 중요성 인식
- 국민의 여가권 보장을 통한 행복사회 추구
- 노인여가문화 정책을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제도 활용
-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여가경력 개발 강조
- 여가의 자발성과 공동체성 강조

7.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정책현황과 문제점

- 제주지역의 고령화 추세
 -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3.3%로 나타나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 노인인구 가운데 85세 이상 노인층 비율도 9.6% 차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

○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중기계획(2011~2015)에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 분야에 노인여가문화 정책 반영됨.
-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제주도 전역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대, 예방에서 재활까지 수증 운동 서비스, 건강나눔 안마서비스, 중고령자 전문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노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노인대학 활성화, 어르신 여가활동 서비스 등의 정책과제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보호·지원 조례에 의한 장수노인 지원
-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과 제3기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에는 노인여가문화 활동 활성화 정책 내용이 없지만 제3기 제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에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여가문화 기회의 조성 실천과제가 제시됨.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교실)에서 노인여가문화 활동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문제점

- 제주지역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기획·집행·평가의 전체 과정에 대한 체계적·실천적 계획의 미흡
-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미반영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에 대한 종합대책의 부재
- 노인여가문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미흡
- 노인여가문화 활동사업들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부족
- 노인여가문화 정책이 타 기관이나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미흡
- 대부분의 노인여가문화 정책사업들이 외부공간 활용 프로그램(체험, 연수, 현장답사 등)에 제한적임.
- 제주지역에 개설 및 운영되는 노인여가문화 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특정 분야에 치중되는 경향

-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들이 은퇴 후 사회재적응을 위한 평생교육과의 연계성 미흡

8.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활동 실태조사 결과

1) 조사의 설계 및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
- 조사대상 표집방법은 군락표집(cluster sample), 무작위표집(random sample), 그리고 할당표집 방법 활용
- 최종 조사 분석대상자는 406명이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음.

2)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 인구학적 특성
 -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경우 노인층 범주별(학력, 지역별, 건강상태, 경제적 수준 등)로 노인여가문화 정책 발굴과 대응과제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여가와 일상생활
 - 오후 혹은 저녁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 노인들에게 보람과 흥미를 줄 수 있는 여가활동 유형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을 통한 여가활동 참여의 확대 필요
 -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노인여가문화 활동을 위해 적절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검토 필요
 - 노인들의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여가활동비 지출은 부담으로 인식
 -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주체는 노인 수요자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적극적 태도 필요
 - 지역사회 내에서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되어 수요자 맞춤형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여가경력

- 노인들이 과거에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여가문화활동은 대체로 스포츠, 여행 및 관광, 컴퓨터 프로그램임.
- 노인들이 여가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접근성 제고
- (가칭)제주특별자치도노인자원봉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여가문화 정책

-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질적 변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산증액, 전문인력 양성, 홍보, 여가문화 활동 전문시설 확충 등 분야별 활성화 대책 강구
-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실효성을 달성하려면 정책사업의 다양화, 예산지원 확충, 정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이 중요함.

○ 인구학적 요인과 지속적 여가문화 활동

- 학력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지속적 여가문화 활동의 필요사항(저렴한 이용비,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접근성, 좋은 여가 시설, 훌륭한 강사확보)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
- 제주시 동지역·읍면지역 거주노인들이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 보다 지속적 여가문화활동의 필요사항(저렴한 이용비,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접근성, 좋은 여가시설, 훌륭한 강사확보)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

○ 인구학적 요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 서귀포시 지역(동, 읍면)이 제주시 지역(동, 읍면)보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노인여가문화 활동지원에 대해 불충분한 인식을 보임.
-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 보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노인여가문화 활동지원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보임.

○ 인구학적 요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

- 제주시 지역(동, 읍면) 거주 노인들이 서귀포시 지역(동,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지자체의 노인여가활동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 보다 지자체의 노인여가문화활동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 생활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예산증액, 전문시설 확충, 홍보 강화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임.
 -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여가전문인력야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
- 인구학적 요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효과 증대
- 제주시 지역(동, 읍면) 거주 노인들이 서귀포시 지역(동,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지자체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들 가운데 정책사업의 다양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에 적극적 인식을 보여줌.
 - 서귀포시 지역(동, 읍면) 거주 노인들은 제주시 지역(동, 읍면) 거주 노인들 보다 지자체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 가운데 사업비의 대폭 증액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함.
 -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 보다 지자체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정책사업의 다양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에 더 적극적 인식을 보임.
 - 건강상태가 좋은 젊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 보다 지자체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 가운데 정책사업의 다양화와 사업비의 대폭 증액에 상대적으로 더 강조함.

9. 제주지역 노인여가문화 정책방향과 대응과제

1) 정책방향

-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획기적 변화와 질적 개선
- 중앙정부 여가활성화 정책의 내실화
- 노인의 소득보장 및 노인고용정책의 활성화
- 노인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 강화

- 지역사회 기반에 의한 노인여가문화 환경 조성
-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복지사각 지대의 노인층에 대한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체계 구축
- 노인여가문화의 선진화 환경 조성

2) 추진전략

- 노인여가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로드맵 수립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전략
- 노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화 전략 모색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전략
- 노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화 전략 모색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전략과 연계
-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
- 노인복지정책 사업이나 프로그램과의 통합적 접근과 연계 전략
- 지역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략
- 여가문화 활동 지원의 사각지대 노인들에게 배려와 지원체제 구축 전략
-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전략
- 고령친화도시 조성과의 연계 전략

3) 향후 정책과제

가) 중앙정부 수준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대응과제

- 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적극적 활용
 -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기획 집행 및 평가제도 마련에 적극 활용

② 문화복지 체계 속에서 노인여가문화 정책 구현

-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상호 노인문화복지 정책 사업의 공동 발굴 및 대처
- 노인여가복지와 문화복지의 융합적 정책 모델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의 발급·지원의 확대

③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 노후생활 안정화 위한 자영업의 지속성 및 창업지원 강화
 - 자영업 안정성 유지, 성공적 창업 지원, 지속적 컨설팅 시행
 - 기존의 자영업자 직업전환에 대한 취업알선
 - 창업 예비노인(베이비부머)의 경영 위기관리 지원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는 상호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경제 조직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지원 강화
- 「노인준비지원법」(2015. 5. 28. 국회 통과)의 실천
- 정년연장 유예기간에서 점진적인 퇴직제도 확대

④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내실화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통합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까지도 일자리 기회 제공
 - 노인친화형 직종 개발, 인력배치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의 임금수준의 현실화
 - 노인고용의무 할당제 시행

⑤ 복지사각 지대의 노인층에 대한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강화

-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노인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발급의 확대

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대응과제

- ① 노인여가문화 활동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마련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후속조치 이행
 -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가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시 노인여가문화 활동 관련 내용 반영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에 근거하여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 ② 노인여가문화 활동 활성화 관련 연구·조사의 정례화
 - 제주노인의 여가문화생활 실태와 선호도 조사의 정례화
- ③ 노인여가문화 활동 통한 새로운 노인상 정립과 인식 고취
 - 노인여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캠페인 확산
 - 언론 및 방송 홍보, 노인여가복지시설 홍보, 프로그램 정보 제공
 - 제주노인 재능나눔단 발족과 적극적 활동 지원
 - (가칭)제주특별자치도노인자원봉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기관(단체) 내 어르신 보조교사 참여제 실시
- ④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지속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개선
 - 도내 활동 중인 동호회나 클럽의 경연대회 개최
 - 제주도내 어르신 여가문화 달인 발굴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여가문화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
 -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설계 및 실시
 - 도내 대학에서 노인여가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전문인력 충원

⑤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제주노인의 탈빈곤 종합대책 수립
- 제주지역의 빈곤노인 실태 DB 구축
- 노인빈곤대책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 「노후준비지원법」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조례 제정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장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보호 지원 조례」 개정
- 민간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⑥ 복지사각 지대의 빈곤노인에 대한 여가문화 활동 참여기회 제공

- 빈곤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여가 활동 프로그램 제공
 - ‘찾아가는 노인여가 프로그램’ 시행

⑦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

- 제주노인을 위한 ‘어르신 하나로 카드’ 발급
 - 문화, 여가, 여행, 의료, 교통, 교육 및 은행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고령자 카드 발급
- 지역사회 활력과 재생에 기여
 - 노인여가문화 활동이 지역사회의 재생, 활력화, 젊은세대와 통합 증진에 영향 주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⑧ 노인개인의 여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강화

- 은퇴 전 노후준비 시 여가문화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
- 노후설계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대한 적극 관심 및 방문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노인여가복지 및 여가문화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방법	3
3. 연구의 주요내용	4
4. 연구의 기대효과	4
5. 연구의 한계점	4
II.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주요 변화와 특성	6
1. 고령화 추이	6
2. 고령화로 인한 주요 변화와 파급효과	9
III.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주요 특성과 변화	15
1. 정부의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특성	15
2. 국내외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사례 분석	31
IV.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현황과 문제점	51
1. 제주지역의 고령화 추세	51
2.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현황	56
3.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문제점	76
V.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활동 실태조사 결과	80
1. 조사의 설계	80
2. 노인여가문화 활동 실태조사 분석 및 해석	8
3. 빈도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주요 시사점	118
4. 교차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주요 시사점	126

Ⅵ. 제주지역 노인여가문화의 정책 방향과 대응과제	130
1. 정책방향	131
2. 추진전략	132
3. 향후 정책 대응과제	135
 □ 참고문헌	151
 □ 부록 1	154
 □ 부록 2	164
 ABSTRACT	169

표 목차

<표 II-1> 생산가능인구 추이	8
<표 II-2> 노인 부양비 추이	8
<표 III-1> 노인여가문화정책 관련 법 제도 유형별 내용	19
<표 III-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현황	25
<표 III-3> 정부의 노인여가문화정책 사업의 주요 내용	29
<표 III-4> 노원구의 노인교실 운영현황	32
<표 III-5>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의 기금사업 운영현황	34
<표 III-6> 중계사회복지관의 신나는어르신학교 운영현황	35
<표 III-7> 중계사회복지관의 웰빙-월다잉사업 운영현황	35
<표 III-8> 중계사회복지관의 활동역량강화사업 운영현황	36
<표 III-9> 중계사회복지관의 문화지원사업 운영현황	37
<표 III-10> 전주 시민놀이터의 공간구조 및 활용	40
<표 IV-1>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구조	52
<표 IV-2> 베이비붐 세대 인구 분포	53
<표 IV-3> 제주지역 노인인구의 변화 현황	54
<표 IV-4> 노인여가문화정책 관련 법 제도 유형별 내용	58
<표 IV-5> 제주지역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66
<표 IV-6>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의 주요 사업	68
<표 IV-7> 제주지역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	69
<표 IV-8> 제주지역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현황 (2014년 기준)	70
<표 IV-9> 제주지역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기관 현황 (2014년 기준)	71
<표 IV-10> 노인대학원 프로그램 현황 (2015년 기준)	72
<표 IV-11> 제주시 노인대학(원) 운영 프로그램 현황 (2015년 기준)	73
<표 IV-12> 서귀포시 노인대학(원) 운영 프로그램 현황 (2015년 기준)	74
<표 V-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82
<표 V-2>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	86
<표 V-3> 가장 많은 관심 분야 활동	87
<표 V-4> 여가 활동에 대한 인식	88

<표 V-5> 구체적 여가 활동 유형(복수응답)	88
<표 V-6> 여가문화 활동 참여 경험의 시설 분포	89
<표 V-7> 여가문화 활동 참여 지속적 이용 의향 시설 분포 (복수응답)	90
<표 V-8>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유형	90
<표 V-9> 향후 참여의향 새로운 프로그램 유형	91
<표 V-10> 프로그램 참여의 비용 지불 여부	92
<표 V-11> 매달 프로그램 참여 비용 지불 규모	92
<표 V-12>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선 사항	93
<표 V-13> 현재 동호회(친목회 등) 클럽활동 여부	94
<표 V-14> 동호회·클럽 활동의 참여 유형	94
<표 V-15> 매달 동호회·클럽 활동 참여 횟수	95
<표 V-16> 동호회·클럽 활동의 불참여 이유 (복수응답)	96
<표 V-17> 향후 참여 희망 동호회·클럽 활동유형	97
<표 V-18> 과거에 못했던 여가문화 활동 유형 (복수응답)	98
<표 V-19> 향후 여가활동 참여 희망 동반자	99
<표 V-20> 향후 꼭 참여 희망 프로그램 유형 (복수응답)	100
<표 V-21> 현재 참여 희망 여가문화 활동의 불참 이유 (복수응답)	101
<표 V-22> 향후 참여 희망 사회봉사 활동 유형	102
<표 V-23> 향후 여가문화 활동의 지속화 위한 필요사항	103
<표 V-2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정도	103
<표 V-25>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활성화 방안	104
<표 V-26>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	105
<표 V-27> 인구학적 변인과 향후 지속적 여가문화활동 필요사항	107
<표 V-28> 인구학적 변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정도	109
<표 V-29> 인구학적 변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112
<표 V-30> 인구학적 변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정책실효성 증대 방안	116
<표 VI-1> 노인여가문화 정책 활성화 대응과제 실천 주체별시기별 추진일정(안)	149

그 립 목 차

〈그림 II-1〉 우리나라 노인인구 및 고령화율 추이	6
〈그림 II-2〉 65세 이상 연령대별 노인인구 변화	7
〈그림 II-3〉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 경로	10
〈그림 IV-1〉 연도별 제주지역 85세 이상 장수노인인구 변화	55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사회복지정책 분야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서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나 예상과는 달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복지를 연구하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 행정가들은 주로 노인 노후소득보장과 보건의료 분야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음. 반면에 퇴직 이후 혹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여가문화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 연구분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의료체계 확충 등에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노인여가문화 분야에는 특별한 정책이나 제도 시행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들이 2010년부터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10년 안에 모두 퇴직하여 노인세대로 편입될 예정임. 퇴직 후 거의 30여년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함.
- 고령사회에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인여가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왜냐하면 노인들이 은퇴 후 남은 시간을 얼마나 가치있게 보내느냐는 문제는 100세 시대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은퇴 후 자아실현을 위한 일과도 밀접

한 관계가 있기 때문임.

- 더구나 고령사회의 노인들은 과거 노인들과는 달리 생활의식, 삶의 태도, 독립성, 노후설계, 가치관, 레저 및 취미생활, 유행감각 등에서 다른 특성들을 보일 것임(고승한, 2012). 그래서 고령사회의 노인들은 새로운 노인 혹은 뉴시니어(new senior)로 불리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인여가문화의 정책은 새로운 방향과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제주지역은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14년 12월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3.3%를 차지하여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생활의 안정화 대책(특히 소득보장)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여 다만 중앙정부의 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공적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의존하여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경향이 큼(고승한, 2014).
-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중기계획(2011~2015),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조례,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의 정책 방안 혹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로 노인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구체적 정책지원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다만 제주지역의 마을단위 혹은 동 단위별로 있는 경로당(혹은 노인회관), 혹은 노인복지관 그리고 노인대학(혹은 노인대학원)은 대체로 소수 노인여가 프로그램(건강증진, 취미생활, 운동, 노래교실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래서 고령사회에서 제주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새로운 질적 변화가 필요함.
- 더구나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의한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그리고 노인 안전단말기 지원사업과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확대를 통한 노후 건강과 생활안전 제고가 포함되었음. 노후생활의 여가문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제주노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실천할 정책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함.

2.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문화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의 주요 특성과 파급효과들을 설명하고자 함.
 - 둘째, 정부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관련 주요 법·제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외 노인여가문화 정책과 사례들을 분석하여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질적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셋째,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가 시행하는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현황과 진단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넷째,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문화 생활실태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통해서 제주노인이 직면한 노인여가문화 생활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다섯째, 현단계 노인여가문화의 정책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응해 나갈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조사에 의한 선행연구 고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간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설문조사
- 전문가의 의견 수렴

3. 연구의 주요내용

-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주요 특성과 파급효과 분석
- 정부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변화와 특성 및 문제점 분석
- 국내외 노인여가문화 정책과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진단과 문제점 분석
- 제주지역 노인들의 여가문화 생활실태 조사(구조화된 면접조사)
- 향후 제주노인의 여가문화의 질적 변화 위한 정책 방향과 대응과제 제시

4. 연구의 기대효과

- 고령사회의 변화와 주요특성에 대한 이해 증진
- 제주도내 노인들이 노후여가문화 생활실태 인식과 개선 방안 마련
- 제주지역 노인여가문화 연구분야에 대한 학술·정책연구의 기초자료 생성
- 제주지역의 노인세대 여가문화 질적 변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5. 연구의 한계점

-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표집된 사례 분석을 가지고 일반화하는데 한계성이 있음.
- 제주지역의 6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조사연구가 설문조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참여관찰에 의한 노인들의 일상적 여가문화생활 과정과 결과

(특히 가족 내 여가문화생활 유지 과정과 문제점, 여가활동 유형과 과정, 가족 외 공간에서 여가생활 참여과정, 여가문화생활의 위기와 대안 등) 깊이 있게 관찰·분석하지 못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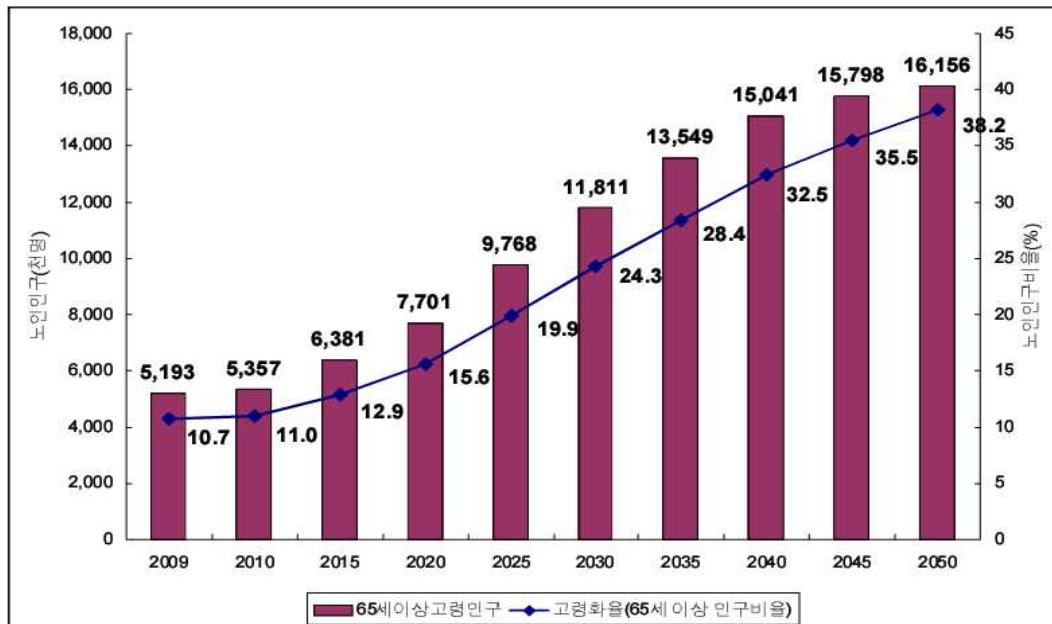
-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 거주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면접표를 가지고 수행된 설문조사가 단일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역동적·차별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종단적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제주지역 거주 60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문화생활 유지 및 향상과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여가문화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후여가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앞으로,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문화생활 및 정책에 대한 대응과제들이 실제로 제주노인의 삶의 질적 변화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한 종단적 패널 연구가 필요함.

II.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주요 변화와 특성¹⁾

1. 고령화 추이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현재 전체 인구의 12.9%, 2020년에는 15.6%, 2040년에는 32.5%, 2050년에는 3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14).²⁾
-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14.0%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0%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림 II-1〉 우리나라 노인인구 및 고령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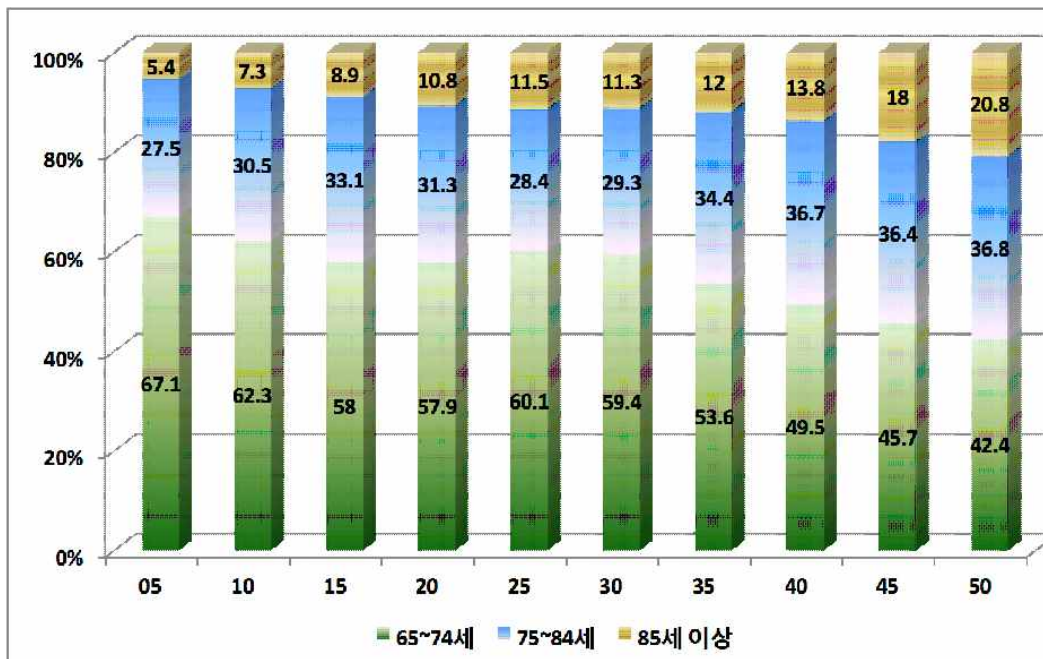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국가통계포털

- 1) 고령화 추이, 고령사회의 주요 변화와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은 고승한(2014:7-16)의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 부분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음.
- 2) 2015년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추계인구는 6,460,677명임(통계청, 2014).

- <그림 II-2>에 의하면, 65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75세~84세 노인층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85세 이상 장수노인들도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64세~74세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더구나 노인인구는 베이비붐 세대 인구(1955~1963년 출생)가 노인층 인구로 유입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2> 65세 이상 연령대별 노인인구 변화



출처 : 통계청 KOSIS, 「연령대별 장래인구추계」 국가통계포털

- <표 II-1>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 고령화로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에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 추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3,684만 명으로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2,187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결국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데 그 가운데 노인부양의 재정적 부담이 크

게 대두되게 됨. 다시 말해서 고령화의 확산에 따른 노인부양비의 증가는 사회복지 재정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표 II-1〉 생산가능인구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합계	15-24세		25-49세		50-64세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14	36,839	6,755	13.4	19,578	38.8	10,507	20.8
2020	36,563	5,679	15.5	18,650	51.0	12,234	33.5
2030	32,893	4,494	13.7	16,243	49.4	12,156	37.0
2040	28,873	4,396	15.2	13,759	47.7	10,718	37.1
2050	25,347	3,971	15.7	11,454	45.2	9,923	39.1
2060	21,865	3,201	14.6	10,698	48.9	7,966	36.4

출처 :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Database에서 재구성

-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020년 22.1명, 2060년에는 80.6명까지 증가하여 206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0.8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됨(표 II-2. 참고).

〈표 II-2〉 노인 부양비 추이

(단위: 명, %)

구분	0-14세 인구수	15-64세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수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2013	7,370,118	36,711,849	6,137,702	36.8	20.1	16.7
2020	6,788,432	36,562,967	8,084,096	40.7	18.6	22.1
2030	6,575,330	32,893,289	12,691,446	58.6	20.0	38.6
2040	5,717,528	28,872,500	16,501,324	77.0	19.8	57.2
2050	4,783,197	25,347,026	17,991,052	89.8	18.9	71.0
2060	4,472,656	21,865,175	17,621,544	101.0	20.5	80.6

출처 :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1.12) 국가통계포털

- 이처럼 노년부양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문제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현안으로 쟁점화 될 것임.
 - 2010년 노인 1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수는 6.7명이고, 2020년에는 4.6명, 그리고 2050년에는 1.4명으로 예상됨.
 - 결국 일할 사람은 적는데 부양해야 할 피부양 인구수는 늘어나 노동시장에서 인력수급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 한국의 미래 경제성장과 세대 간 갈등(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히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실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고승한·이소정, 2014).
-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구 구성형태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독거노인의 증가 현상임(정경희 외, 2015).
 - 독거노인 비율은 1994년에 13.6%였으나 2004년 20.6%, 그리고 2014년 23.0% 증가하여 지난 20년 동안 거의 20.0%p 증가하였음.
 - 반면에 자녀동거 비율은 1994년에 54.7%, 2004년 38.6%, 그리고 2014년 28.4%로 감소하여 지난 20년 동안 거의 절반으로 줄어듦.

2. 고령화로 인한 주요 변화와 파급효과

- 세계의 선진국(예,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들이 이미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국가들 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20년도 되지 않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파급효과를 예상하여 보다 체계적·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가. 경제적 파급효과

- 고령화는 특정 국가 혹은 사회가 점차 ‘늙어가는’ 현상으로 그 파급 효과는 대개 부정적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음(박동석 외. 2003).
- 고령화는 주로 생산성보다는 소비성과 비용에 더욱 치중하게 되고, 핵심 생산 노동력의 감소, 생산성 및 자본수익률 저하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을 감소시키게 되어 국가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임.
- 그래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저축과 구매력의 감소로 소비위축이 발생하게 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임.
- 고령화 현상은 노령연금 급증을 초래하여 재정악화와 투자위축이 발생하고 경쟁력과 성장 둔화로 이어져 결국 국가의 잠재성장 저하에 영향을 준다는 것임.
- 고령사회에서 피부양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부양비, 보건의료비 등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사회복지비 지출을 가중시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게 됨.

〈그림 II -3〉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 경로



출처 : 박동석 외. 「고령화 쇼크」 2003:39. 국민포메이션.

- 저출산의 확산과 고령층의 증가로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등이 발생하면서 노동시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이찬영 외. 2011).
 -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는 기대만큼 크게 창출되지 못하고, 더구나 젊은 청년층 신규 인력들은 노동시장으로 들어 올 때 일자리 부족 및 실업 증가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진입하는 2015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연금 사각지대의 보완 요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들은 2010년부터 은퇴를 시작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 나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변화에 놓여 있음. 앞으로 10년 이내 이내에 베이비붐세대 노동인력 (약 713만명, 201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4.6%)이 은퇴하면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 부족,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능인력 부족, 성장 동력의 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고승한 외. 2012).
- 다른 한편으로, 2003~2007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문외솔, 2011), 은퇴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취업을 할 경우, 연령에 따라 퇴직 확률이 증가하더라도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다시 말해서 베이비붐 세대들은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지도 않았고, 자녀교육 및 퇴직 후 노후준비를 위해 재취업 혹은 계속 고용을 희망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노동력 부족 사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임.
- 인구의 고령화는 부정적 효과만을 창출하지 않고 오히려 고령사회 사회가 고령친화산업(Aging Friendly Industry)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제공하여 2020년이 되면 매출규모가 14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이건직, 2012).

-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006. 12. 제정」에 의해서 지원 육성되고 있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³⁾
-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은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주에는 여가 관광산업, 향장품 및 식품산업 등이 고령친화산업의 적절한 분야로 간주하고 있음(이서연·고승한 외. 2013).

나. 사회적 파급효과

- 고령사회에서 국가 사회적으로 해소해야할 주요 과제가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느냐는 문제임. 노인 의료비, 주거비, 연금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가 2015년 7,000억원, 2020년 6조원, 2060년 13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였음.
 - 더구나 2055년에 이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수(10,928천명)가 노령연금 수급자수(11,049명)보다 적어지기 시작하는 등으로 인해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008년 10.3%에서 2055년 101.1%, 2065년 119.7%(최고점)로 증가한 후 2078년 115.4%로 감소할 전망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저출산·고령화로 전체 보험료 수입에 비해 보험급여 지출이 더 커져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처럼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 지출은 증가하나 생산가능인구의 감

3) 고령친화산업군에는 요양산업, 용품 및 기기산업, 정보산업, 여가산업, 금융산업, 주택산업, 한방산업, 농업산업, 교통산업, 식품산업, 의약품산업, 장묘산업, 의류산업, 교육산업이 있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서연·고승한 외.(2013)를 참고할 것.

- 소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어 재정 수입의 한계와 다른 분야의 지출 감소 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는 국가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임.
- 2020년 보건, 의료, 교육 등 사회보장 지출 확대로 총지출은 37% 증가하는 반면 총 세입은 15%만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35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성명기, 2009).
 - 결과적으로 사회보장 지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조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ecurity)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면 노인빈곤 상황은 더 심각해 질 수 있음. 2014년 현재에도 노인빈곤율이 49.6%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례이고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이 더욱 확산되면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 쉽고, 고독, 외로움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됨.
 -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성에게서, 독거노인에게서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이 높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사실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12년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1.9명으로 나타남. 미국(14.5명)의 5.6배, 일본(17.9명)의 4.7배에 달하고 있음(동아닷컴. 5월 22일).
 - 특히 우리나라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는 농업인력의 고령화, 농업경영의 고령화 등은 농업의 유지 발전, 가족농의 세대 간 계승, 농촌지역의 활력, 그리고 농촌공동체의 지속성 등에 직결될 수 있음.
 - 신규 영농인력의 유입이 적을 경우 농업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나타남. 농촌인력 확보는 단순히 농촌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

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 과제임.

-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지역공동체의 생존과 지속성의 문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 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각종 노인문제(예, 빈곤, 주거, 건강, 여가, 방임, 학대, 자살 등)에 노출된 노인들이 은퇴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당당히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음.
- 그렇지만 고령사회(혹은 초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장수사회(Longevity Society)’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박상철, 2007:264-273).
- 장수사회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연령에 따라 계층화되지 않고 함께 적극 참여하는 조화로운 지역공동체임.
- 노인들 스스로 당당하게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임.
- 장수사회는 노인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사회건설과 보존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주체화(subjective) 해주는 사회여야 함.
- 장수사회는 고령화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보다 전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함께 적극 해결해 나가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줌.
- 따라서 고령사회를 장수사회로 전환시키는 일은 전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장수문화의 도입과 확산, 행정적 준비 및 지원, 그리고 노인 스스로의 의식 개혁과 변화 그리고 적극적 사회참여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함.

III.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주요 특성과 변화

1. 정부의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특성

가. 노인여가문화 정책 관련 법·제도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양한 여가활성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
- 제정 이후 6개월 뒤 법의 시행이 이루어짐.
-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삶의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제4조),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하며(제 10조), 여가활성화를 위해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여야 하며(제 12조),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하고(제13조),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5조).” 로 구성됨.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하여함(제7조).
- 「노인복지법」 제4장 제36조와 제37조에서 노인여가시설과 노인여가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①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으로 명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14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에 의하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문화기본법」의 제4조 국민의 권리에서, 모든 국민의 문화권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권리도 인정하고 있음.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됨.

< UN의 노인의 기본적인 여가권리 보장 >

- 1991년 UN의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중 자아실현의 원칙에 기반하여, 노인들의 기본적인 여가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노인들이 가진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의 교육·문화·종교·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새로마지플랜 2010)」에는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가 추진됨.

-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을 위해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에 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여건 조성, 문화예술활동의 소비자에서 소비자(prosumer)로서의 노인역할 제고, 노인여가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의 추진계획 설정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새로마지플랜 2015)」에서는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회참여’와 ‘여가문화 기회 제공’을 과제로 제시함.

- 고령자의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전문화, 자원봉사활동 기반마련, 자원봉사 정보망 연계 구축 등의 추진계획 설정
-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를 위해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문화바우처 지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추진계획 설정

○ 「노후준비지원법」이 2015년 6월 22일 제정되면서 노인들이 실제적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됨.

- 제정 이후 6개월 뒤 법의 시행이 이루어짐.
- 이 법의 제1조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제 노후준비가 개별 노인이나 가족들의 사항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제3조).
 -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5조), 정책의 기본방향과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
- 지금까지 노인여가문화정책 관련 법·제도를 설명하였는데 이를 요약 정리하면 <표 III-1>과 같음.

<표 III-1> 노인여가문화정책 관련 법·제도 유형별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노인복지법 (1997. 8. 22. 제정)	• 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 -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활성화 지원 •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6조) - 노인복지관(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 경로당(지역노인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 장소 제공 - 노인교실(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욕구 충족위해 건전한 취미 생활 노인건강유지 및 소득보장 등의 학습프로그램 제공)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 가능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006. 5. 18. 제정)	• 여가 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제14조) -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 조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문화기본법 (2013. 12. 30. 제정)	• 자유로운 문화창조 및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 명시(제4조)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 차별받지 않음
국민여가활성 화기본법 (2015. 4. 30. 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제4조) •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및 보급 (제10조) • 여가활성화 위해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 (제12조) •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제13조) •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제1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증진에 필요한 시책 강구
노후준비지원법 (2015. 6. 22. 제정)	• 노후준비서비스 정의 (제2조) -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에 제공하 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 관리 • 노후준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노후준비 지원사업 실시 (제5조, 제6조) -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기반조성 -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 프로그램 개 발 및 보급 •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제10조)

자료 : 정부부처 홈페이지 www.law.go.kr. 참고 정리

나. 정부의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방향과 특성

- 정부의 노인여가문화 정책은 그 동안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다만 복지, 문화, 관광, 체육, 교육, 여성·가족정책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노인 관련 활동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음.
- 또한 노인여가문화 정책은 노인복지의 다양한 영역(소득보장, 보건의료, 주거 등)에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노인여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자원봉사 등)에서 운영되는 하나의 활동 프로그램 영역으로 인식되곤 함.
 -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방향은 주로 저소득, 보호대상 노인층 중심이며 일반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정책은 미흡하였음(김태현 외, 2007: 244).
- 실제로 정부의 여가문화 정책의 주요 정책목표와 정책내용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고,⁴⁾ 반면에 노인복지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노인여가문화 정책을 노인들의 문화향유 권리 차원보다는 노인여가시설에서 운영되는 노인여가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접근되어 왔음.
- 참여정부 이전의 정부는 노인여가문화 정책을 주로 노인복지법에서 기초한 노인여가시설 이용 활성화에 주로 초점을 맞춘 반면에, 참여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 5. 18)을 노인의 여가와 문화 활동 참여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관심을 두었음.
-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2016~2018년 즈음에 고령사회로의 진입 예상, 노인문제의 확산(빈곤, 방치, 학대, 자살 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그리고 100세인 노년인구의 증가 등에 당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4) 국민의 여가문화 향유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참여정부 때 본격적으로 ‘주40시간 근무제대비 여가문화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에 이룸. 그래서 2004년 7월 문화관광부를 포함한 13개 부처가 ‘여가문화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아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가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되었음(윤소영·윤주, 2008). 2006년에는 최초로 문화관광부에서 여가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의 여가를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음.

-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문화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노후준비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음.
- 여기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된 노인여가문화 정책 방향과 특징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여가정책 주요 방향과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윤소영, 2011).

1)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100세 시대 패러다임⁵⁾

- 100세 시대 대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차별화된 정책과제 도출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함.
- 2011년 대통령 신년사에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안정을 100세 시대 구성요소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지시함.
- 80세 시대의 정책대상은 노인(취약노인)이었다면 100세 시대는 전 국민을 목표대상으로 함.
- 100세 시대 노년층도 더 이상 국가의 일방적 시혜대상이 아닌 사회적 자원으로 간주됨. 노인에 대한 부담 역시 정부만이 아니라, 국가, 개인, 사회의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됨.

○ 일-삶의 균형과 연령통합사회 지향

5) ‘100세 시대’는 평균수명이 꼭 100세가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최빈사망연령(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대)이 80대에서 90대로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점차 100세 이상의 생존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칭되고 있음(고승한 외, 2012). 한국인의 100세인 인구추이 및 전망(통계청 KOSIS, 2011)을 보면, 100세인 인구가 2010년에 1,982명, 2020년 8,212명, 2030년 26,559명, 2040년 59,217명, 그리고 2050년에 94,33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일 중심적이었던 80세 시대의 패러다임을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는'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WLB)에 대한 중심가치 도입
- 특히,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전 생애에 걸쳐 일, 여가, 교육이 동등하게 중요시되는 사회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연령차별사회에서 연령통합 사회로의 변화를 꾀함.
- 연령통합적 사회는 일, 여가, 교육을 개인들이 선택하여 생애 동안 조정·배분할 수 있다는 의미와 상이한 생애단계의 다양한 연령계층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짐(윤소영, 2011).

2) 정부 여가정책의 방향과 특징

○ 국민의 여가권 보장을 통한 행복사회 추구 강조

- 여가정책의 기본 방향은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인 여가문화 활동을 통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개인의 행복한 삶에 기반한 사회 전체의 행복에 대한 논의에서, 여가를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중요한 도구로 규정하기 시작함.

○ 사회문제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제로 활용

- 과도한 노동시간, 초고령사회,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유연사회에 대한 예측, 사회양극화와 갈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저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되고 있음.
- 특히 고령화로 인한 과중한 사회적 부담과 사회문제(노인 자살율 급증, 고독사 증가, 세대 간 갈등, 사회적 고립감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여가문화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노후설계와 사회적 관계 확대 기대

- 예를 들어 고령층의 활발한 여가활동이나 재능 나눔을 통한 사회적 참여나 사회적 역할 갖기가 가능하고, 고령층 스스로 제3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과 프로그램 증가

○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여가경력 개발 강조

- 여가활동의 특성상 생애주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여가사회화(leisure socialization)나 여가경력(leisure career) 개발의 중요성 강조
- 특히, 여가활동의 정기적인 참여를 통해 여가활동의 진지화와 전문성을 획득하게 되면(여가경력 개발), 이러한 여가경력이 개인의 여가몰입을 통한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확대된다(윤소영, 2011)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의의를 부각함.
- 이런 측면에서 여가활동을 통한 동호회 활동 참여나 사회성 여가활동 및 재능 나눔(문화봉사활동)을 정책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

○ 여가의 자발성과 공동체성 강조

- 기존의 여가정책의 주요 사업은 시설확충, 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인력 양성, 제도개선 등 5개 사업 분야로 정리됨(문화체육관광부, 2013).
- 특히 공공여가시설에서 제공하는 여가문화프로그램은 주로 교육이나 체험 활동이 대부분임.
-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나 동호회 활동에 기반 한 새로운 창조적인 공간이나 복합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공간 리모델링 사업(문화체육관광부)이나 동호회 지원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다. 정부의 노인여가문화정책 관련 주요 사업

1)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르신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사업

○ 지방문화원 문화 프로그램

- 어르신 대상 문화학교, 문화나눔봉사단, 문화동아리 등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문화를 매개로 교육, 봉사, 사회참여가 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2012년 약 35억원, 309개 프로그램, 약 10,000명 수혜 → 2013년 40억원 365개 프로그램, 약 12,000명 수혜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노인복지시설에 무용·음악·연극·미술·사진 5개 분야 전문 예술 강사 파견 문화예술교육 지원
- 2012년 14억원, 206개 프로그램, 4000여명 수혜 → 2013년 17억원 270개 프로그램, 5,600명 수혜

○ 전국 실버합창단 경연대회

- 노인층의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적극적인 예술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전국단위 합창 경연대회 개최
- 2012년 제1회 경연대회 개최, 100여개 실버합창단 중 57개 참가

○ 저소득 노인층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부터 노인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복지 사업을 추진 중
- 문화바우처 사업이나 문화순회사업(기획바우처)에서 저소득 노인층을 일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예를 들어 2010년 기준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자 1,299,176명 가운데

2.88%인 70,193명이 노인으로 혜택을 받음.

2) 보건복지부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활성화 사업

- 전국의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은 2008년 이후 계속 확충되어 왔음(표 III-2. 참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음(보건복지부, 2015).⁶⁾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08년 59,418개소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14년 65,665개소로 7년 동안 10.5% 증가하였음.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노인교실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표 III-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현황

(단위: 개소)

종류	시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2014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노인복지관	228	237	259	281	300	319	344
	경로당	57,930	59,543	60,737	61,537	62,442	63,251	63,960
	노인교실	1,260	1,280	1,464	1,557	1,335	1,413	1,361
	소계	59,418	61,060	62,460	63,375	64,077	64,983	65,665

주 : 각 년도 12월 31일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2015) 「2015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복지관

- 2015년 현재 전국 321개 노인복지관이 있으며, 이중 242개 노인복지관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함.

6) 보건복지부(2015:4)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임.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함.

-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하드웨어가 갖추어져 있고 운영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참여노인도 다양함.
-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취미여가 지원사업으로는 음악(노래교실, 민요·풍물교실, 댄스교실 등), 미술(서예, 수공예, 풍선아트), 원예, 다도교실, 연극, 레크리에이션, 운동, 바둑·장기, 당구·탁구 등임(보건복지부, 201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경로당

-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경로당은 64,000여개로 이용 노인수는 약 320여만명
- 노인들이 경로당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마땅한 여가활동 장소가 없고 경제적이며 많은 동년배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세상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임.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공동작업장 운영, 노후생활교육, 건강운동 활성화,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등이 있음.

○ 노인교실

- 노인교실은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교양과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
- 대부분 대한노인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종교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

3) 보건복지부의 여가관련 정보제공 사업

○ 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

-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종합정보포털 개설 및 운영(www.activebb.kr)
- 일자리, 재무, 건강, 교육, 여가, 자원봉사, 노후 준비 등에 대한 이슈별 정보와 생활지원정보를 제공하며, 노후준비 종합진단을 통해 국민

들의 노후준비 수준을 측정하고 가이드라인 제공

4) 각 부처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 각 부처별로 고령자 대상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중임(지은정 외, 2014.)
- 보건복지부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
 - 노인들의 공익활동이나 재능나눔활동의 활동비와 상해보험 지원
- 행정자치부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
 - 신소외계층 자녀학습지도, 소년원 학교 학습지도, 상록어린이 보행안전지킴이, 상록봉사단, World Friends Korea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공무원 지원사업 추진
 - 아동안전지킴이나 G-시니어 기자단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활동비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의 봉사단 지원사업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어르신 IT봉사단, 세대간 지혜나눔사업,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기술혁신 역량확충사업 등
- 고용노동부의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 사회공헌일자리지원사업, 취업지원관, 건설현장안전지킴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등
-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르신 재능나눔사업
 - 이야기 할머니 사업, 문화관광해설사, 궁능관람안내지도위원, 실버문화자원봉사단, 책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등

< 이야기할머니 사업 >

- 조손 세대 간 전통 무릎교육을 모델로 한 사업
- 어르신에게 사회봉사와 자아실현을 위한 문화여가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 한국적 정서를 담은 선현들의 미담을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보급하여 민족문화 전승을 통한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 2012년 20억원, 386명 이야기할머니 활동 → 2013년 42억원, 970명 이야기할머니 활동

- 농림축산식품부의 바다해설사와 환경부의 자연환경해설사 등 노인 전문인력 지원사업
- 지금까지 정부의 여러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들이 노인여가문화 관련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III-3.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가 노인들을 위해 가장 많은 여가문화 정책사업 혹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다음으로 보건복지부가 노인여가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노인사회활동 지원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노인 봉사단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표 III-3> 정부의 노인여가문화정책 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문화원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 어르신 대상 문화학교, 문화나눔봉사단, 문화동아리 등 프로그램 제공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노인복지시설에 무용·음악·연극·예술·사진 등 5개 분야 전문예술강사 파견 문화예술교육 지원 • 전국 실버합창단 경연대회 - 노인층의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적극적 예술활동 참여 촉진 • 저소득 노인층 지원 - 2006년부터 노인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복지 사업 추진 및 지원 • 어르신 재능나눔사업 - 이야기 할머니 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실버문화자원봉사 등
보건복지부	•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활성화 사업 - 노인복지관 사업 : 취미여가 지원사업 (음악, 미술, 원예, 운동 등) - 경로당 사업 : 건강운동 활성화, 공동작업장 운영, 노후생활교육 등 - 노인교실 사업 :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교양 관련 프로그램 제공 • 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 제공 - 일자리, 재무, 건강, 교육, 여가, 노후준비 등 이슈별 정보와 생활지원 정보 제공 • 노인사회활동 지원 - 노인들의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지원
행정자치부	• 노인사회활동 지원 - 신소외계층 자녀학습지도, 소년원 학교 학습지도, 보행안전지킴이 등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 봉사단 지원사업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어르신 IT봉사단, 세대간 지혜나눔사업 등 지원

다. 노인여가문화정책 사업의 한계

○ 부처 간 여가자원의 연계와 협력 사업 발굴 요구

- 여가프로그램, 여가시설, 관련 기관 및 인력 정보 등 여가자원을 DB화하여 부처간에 연계·활용함으로써 효과성 제고
- 지역단위로 역문화 활성화 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콘텐츠(프로그램), 시설, 인력, 전달체계 등의 여가자원을 공동 투입할 필요 있음.

○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제한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함.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이 주로 노인의 친목도모나 취미활동 등에 초점을 두어 ‘소극적 노인상’을 전제로 하는 복지대상으로의 인식이 강함.
- 대표적인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특정계층이나 소외계층으로 한정되어 낙인효과를 나타냄.
- 경로당에는 고학력·고소득·전문직 출신 노인들의 회원가입율은 매우 낮고 평균연령이 높아져 이용 노인간 소통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 노인복지관은 경로당보다 참여대상이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이용자의 상당수 노인들이 저소득층이고 당사자 스스로 복지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있는 경향임.

○ 고령자 대상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총괄적 운영관리체계 구축 필요

- 정부 각 부처에서 고령자 대상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하는 총괄관리부서가 없으며 이에 대한 통계자료도 부재한 현실임.
- 다만 자원봉사활동은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노인자원봉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 기본계획과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도 일치하지 않는 실정임.
- 최근 무급 성의 자원봉사 기본가치의 훼손문제나 유급자원봉사활동의 남

발문제, 그리고 자원봉사활동과는 차별화된 질적인 시민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자원봉사와 구분하여 시민서비스 활동(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어지는 활동)으로 개념을 구분하기도 함.

2. 국내외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사례 분석

가. 국내 사례⁷⁾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노인교실과 노인복지관 사례

○ 노인교실 운영

-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 강좌, 요가, 노래, 생활체조,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노인여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 노원구의 노인교실 운영현황이 <표 III-4>에 나타나 있듯이, 노인교실 명칭은 대개 아카데미 혹은 대학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대부분 천주교 성당임. 물론 일부 기독교 교회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 이처럼 종교단체에서 노인교실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유희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고, 아울러 평소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 참여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노인교실 운영횟수는 대체로 주 1회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음.

7) 국내사례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심으로 3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분석함. 서울시 노원구는 기존의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과 노인복지관의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확대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사례를 제시함. 그리고 전주시 사례는 동호회 활동과 주민공동체 활동으로 확대한 시민 놀이터를 비롯한 삶의 질 정책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함.

- 2014년 기준으로 노인교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인원은 1,674명으로 나타남.

〈표 III-4〉 노원구의 노인교실 운영현황

명칭	운영주체	운영횟수	이용인원
(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부설 노인교실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주1회(수)	120
상계동 루카시니어 아카데미	상계동 천주교회	주1회(수)	120
상지요셉 노인대학	하계동 천주교회	주1회(목)	55
양업시니어 아카데미	중계본동 천주교회	주1회(수)	104
노원시니어 아카데미	천주교 노원성당	주1회(목)	100
상계행복대학	기독교대한감리회상계교회	주1회(토)	200
수정경로대학	수정교회	주1회(수)	60
삼일경로대학	삼일교회	주1회(수)	300
태릉성당 지혜대학	태릉성당	주1회(금)	54
대건기로대학	수락산성당	주1회(목)	58
공능행복대학	공능교회	주1회(수)	200
프란치스코대학	천주교 상계2동 성당	주1회(수)	53
바오로노인대학	월계동성당	주1회(화,목) 격주	250
			1,674

출처 : 노원구청 홈페이지, <http://www.nowon.kr>

○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특화사업

- 노원은빛청춘대학

- 어르신들께서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취미여가, 교양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현황

- 대상: 서울시 거주, 만 60세 이상

- 건강증진 프로그램 : 댄스체조, 생활체조, 건강댄스, 난타 등
- 교양교육 프로그램 : 한글, 영어, 서예, 수묵화 등
-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 컴퓨터 입문, 워드, 인터넷, 스위시 등
-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 건강댄스, 탁구, 난타
- 특별행사 : 야외체험활동,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 관련 이미지



출처 :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nowon.or.kr/>

- 꽃보다청춘

- 외부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전통문화공연 실버봉사단을 조직화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노원구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실버문화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자존감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

- 심신사랑- “心(마음건강)身(몸건강)社(사회참여)娘(여성노인)”

- 환경이라는 매개 접근 방법을 통하여 여성 노인의 건강한 노화, 적응적 노화, 생산적 노화 등 성공적 노화를 돕고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나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증진

- 희망키움

-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지역의 공적서비스 제도권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성원의

관계형성 강화와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지역자원연계를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향상

<표 III -5>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의 기금사업 운영현황

구분	대상	내용
꽃보다청춘	• 난타, 한국무용, 풍물반 회원 중 봉사단 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	• 봉사단 외부 공연 활동 • 자원봉사 소양교육 • 인식개선 교육 • 월례회의 및 평가회 • 자조모임
심신사랑	• 주참여자 : 60세 이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희망하는 어르신 12명 • 나눔대상 : 영구임대단지 독거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 계층	• 신체활동 : 신체늘리기 건강활동, 건강기능 측정 • 녹색식물 나눔활동 프로그램 : 가정녹색텃밭, 옥상 텃밭 재배 및 작물나눔, 희망화분가꾸/나눔 • 친환경EM 나눔활동 프로그램 : EM환경교육, EM친환경제품만들기, 나눔활동 • 미싱 나눔활동 프로그램 : 미싱역량강화, 미싱활동 및 나눔
희망키움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탈락으로 어려움 호소노인 및 저소득계층 어르신	• 심리지원프로그램 : 집단활동, 자조모임활동 • 정서지원체계프로그램 : 문화체험 및 계절행사체험 • 사례관리 프로그램 • 생활지원 및 자원연계프로그램 : 시원한 여름나기, 상쾌한 가을나기, 따뜻한 겨울나기

출처 : 노원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nowon.or.kr/>

○ 중계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특화사업

- 신나는어르신학교

- 학습교육 및 취미여가, 건강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취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

〈표 III-6〉 중계사회복지관의 신나는어르신학교 운영현황

프로그램		내용
학습교육	한글교실	• 지역사회 내 문맹자들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를 위한 기초, 초급, 중급반으로 수준별 한글교육 실시, 교육행사 및 문화 체험을 통해 학습의욕 증진
	외국어교실	• 영어, 일어 등의 외국어 교육 제공을 통해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의사소통 다원화
	정보미디어	• 정보화 교육을 통한 컴퓨터 활용능력향상 및 다양한 정보 습득, 온라인상의 정보교류를 통한 또래 친구관계 형성
취미교육	취미, 여가교실	• 한글서예, 한문서예, 사군자, 노래교실 등
건강증진교육	건강체조, 건강운동교실	• 탁구, 실버스트레칭, 요가, 땃돌체조 등
공연예술교육	공연예술교실	•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지루박, 하모니카, 통기타 등

출처 : 중계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junggye.or.kr/>

- 웰빙-웰다잉사업

- 다양한 웰빙-웰다잉 관련 강좌를 실시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 및 무료진료와 문화컨텐츠 등의 토탈서비스를 제공

〈표 III-7〉 중계사회복지관의 웰빙-웰다잉사업 운영현황

프로그램	내용
교양강좌	• 웰빙-웰다잉 관련 강좌를 통해 노년기 상태를 이해하고 스스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
심리검사 및 치료	• 우울지수 검사 및 치매검사 등의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정서 상태를 유지
건강검진	• 연 2회에 걸친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예방 및 조기치료를 유지
문화체험	• 영화관람 및 공연관람 등의 문화행사참여를 통해 여유로운 노후생활영위
현장체험학습	• 연2회 체험학습을 통해 자연속에서 충전하는 기회를 갖고,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제공
건강증진실 운영	• 운동기구 활용을 통해 건강증진을 꾀하여 노후생활의 활력을 되찾는 기회제공

출처 : 중계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junggye.or.kr/>

- 활동역량강화사업

- 회원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치임원단을 조직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또한, 동아리조직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동료 관계형성을 통하여 심리, 정서적으로 지지와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표 III-8〉 중계사회복지관의 활동역량강화사업 운영현황

프로그램	내용
동아리지원	• 관심사가 같은 회원과의 동아리조직 지원하고, 회의를 통한 동아리활동 발전 방향 모색으로자조역량을 강화
자치회운영	• 임원단을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그룹의 리더로써 역할수행
개강식, 수료식	• 사업에 대한 시작을 알리고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을 안내 어르신특화사업에 대한 정리 도모 및 수료를 통한 성취감증대
모범회원시상	• 각 반별 모범회원을 시상하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및 소속감증대
지역사회 연계연합	• 지역사회의 어르신사업관련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 교류 및 연합사업진행을 통한 어르신사업의 활성화
행복공감봉사단	• 신나는 어르신학교 회원 중에서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부분에 있어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증대시킴

출처 : 중계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junggye.or.kr/>

- 문화지원사업

-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심리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특별행사 진행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문화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어르신 스스로의 능력배양 및 소속감과 성취감을 증대시키고자 함

〈표 III -9〉 중계사회복지관의 문화지원사업 운영현황

프로그램	내용
문화체험	• 영화관람 및 다양한 체험활동 참여를 통해 여유로운 노후생활 영위
특별행사	• 어르신특화연합행사 및 발표회 실시를 통해 자신감, 성취감 및 소속감 증대

출처 : 중계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junggye.or.kr/>

○ 시사점

- 성공적 노후실현이라는 미션을 가진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이나 여가활동 프로그램, 교양강좌의 기회제공을 통해 배움을 통한, 나눔을 통한, 건강을 통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강좌나 교육활동 차원을 넘어서 자원봉사나 재능나눔 등의 사회공헌형 여가활동을 유도하거나 동아리 조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사회관계망을 재정립하고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향을 나타냄.
- 그러나, 노인교실에서는 아직도 교양강좌나 활동프로그램 위주에 치우치고 있으며, 대개 종교단체나 대한노인회를 통해 주1회 프로그램 제공을 받는 것이 전부임.
- 이와 같은 노인교실은 노인교육지도자 부족과 전문성 결여, 교육교재나 프로그램 개발 미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좀 더 체계적인 사업구조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

2) 광주광역시의 노인건강타운 사례

○ 빛고을노인건강타운(www.bitown.or.kr)

- 광주광역시가 전액 출연하여 광주광역시내 노인의 건강·문화·교육·

후생복지를 망라한 종합여가문화복지시설을 개관함.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한 목적임.

- 2009년 6월 10일 개관하였으며, 재단법인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을 통해 운영을 함. 건강타운 조성 3단계 중 1단계는 여가문화체육시설(복지관, 문화관, 다목적체육관, 생활체육공원), 2단계는 골프시설, 3단계는 복지시설(퇴행성질환 전문병원, 치매병원, 고령친화제품체험관) 완공으로 진행됨.
-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각 시설에는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고 점자블록을 만들어 놓았으며,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이동시 쉬어갈 수 있도록 곳곳에 의자를 비치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음.
- 2단계에서 조성될 골프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모델로,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며 조례에 따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는 매년 20억의 운영자금을 여기서 확보함.
- 복지관, 체육관, 문화관, 후생관, 야외 생활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노인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 건강, 복지, 여가, 스포츠 등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one-stop)복합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음.
- 만 60세 이상⁸⁾의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등록 및 이용이 가능함.
-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는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건강활력프로그램, 취미·여가, 교양·교육, 정보화교육, 자율프로그램), 기능회복사업(물리치료, 건강증진, 운동측정), 복리후생사업(식당, 목욕탕, 이·미용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자원봉사육성사업, 특화사업(빛고을구연동화봉사단, 빛고을예술봉사단, 빛고을미디어봉사단, 빛고을시니어대학 등) 등을 실시하고 있음.

8) 일반적으로 노인을 만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으나, 복지관 이용자 관련 시행령에 따라 만 60세 이상이면 건강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사점

-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노인을 기존의 복지시혜 대상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이 자유롭게 여가생활을 즐기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임.
-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에 집중되었던 노인복지의 수혜자를 확대하고, 기존의 노인 대상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노인건강타운 조성 당시에 광주시의 경우 만 60세 이상 노인이 17만 명인데 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은 6개, 전체 정원 2,500명으로 노인 대상 시설 및 프로그램 조성 상태가 열악하였음. 이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건강한 은퇴자 및 건강보험의 4,5,6등급 노인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음.

3) 전라북도 삶의 질 정책과 시민놀이터 사례

○ 전라북도는 삶의 질의 핵심전략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정책방향으로 생활밀착형, 소규모, 주민주도형을 설정하고, ‘5대 작은 공간’ (작은영화관, 작은목욕탕, 작은도서관, 작은박물관·미술관, 작은 시민예술촌) 조성을 추진함.

- 「작은영화관」 사업은 2011년 10월 신규시책으로 제안되어 2012년 1월 문화복지 핵심사업으로 선정(2개 지역 조성예산 확보), 2013년 1월 6개 지역 조성예산 확보, 2013년 4월 국가사업화 전국 109개 지자체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으로 확대됨.
- 「작은목욕탕」 사업은 전라북도 243개 읍면동 중 145개 면 중에서 목욕탕 (찜질방 포함) 없는 면이 100개나 되고, 농촌노인들에게 목욕이 의료복지라는 인식으로 시작됨. 2012년 4월 ‘면(面)지역 1,000원 목욕탕 조성’ 제안 후 목욕탕운영 관련 조례 제정, 50개 면 지역 목욕탕 조성계획 수립 등을 통해 2013년 4월 신규 개장됨.

- 「작은 시민예술촌」 사업은 2011년 10월 일본 시민예술촌 사례를 참조하여 제안됨. 문화동호회의 모임·창작·연습·발표공간으로서 작은시민예술촌을 추진하여 2013년 3월 전주 작은시민예술촌(시민놀이터)이 개관됨.
- 전주 사례: 구도심 내 건물(지하1층, 지상3층) 임대(구 양영학원) 리모델링(건평 72평), 소요예산: 441.1백만원(임대 및 월세: 127백만원, 시설비: 314.1백만원), 시민자율적 운영 위해 회원제 도입(월1만원), 소정의 공간이용료 징수

〈표 III-10〉 전주 시민놀이터의 공간구조 및 활용

구 분	기 능	개 요	비 고
지하	다목적 연습,발표공간	다목적 공연장	간이무대 및 소품실 등
		음악, 댄스 등 다목적 연습장	방음이 중요한 동아리 공간
1층	운영 사무실	다목적 사무공간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장애인 우선 사용 공간 마련
	다목적 갤러리	회의 등 다용도 공간	
	동아리 연습장	장애인 우선 시설	
2층	동아리연습장	동아리 연습공간 위주	-
3층	동아리연습장, 녹음실	동아리 및 녹음실	녹음장비 구비
	개인 연습장	다목적 개인 연습장	-
옥상	옥상공원	휴게 및 이벤트 공간	-

○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 면 지역 내 다방 등이 사라지면서 사랑방 역할 하는 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조성돼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져 리모델링 통한 새로운 공간 구성 필요하여 적정 공간으로서 3세대(老幼) 이음공간으로서 ‘주민자치센터 북카페’를 조성함.

- 광주 광산노인복지회관 사례: 유휴공간을 지역주민, 이용노인 등의 1천 원~1만원 현물 기부와 재능기부로 조성, 1~3세대 이음공간으로 활용
- 낮에는 노인과 어린이, 밤에는 가족단위 이용, 공간이 필요한 문화 동호회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을 전담함.

○ 읍면동 대표 주민예술단

- 전문예술인의 시립합창단이 아닌, ‘동네아저씨아줌마’로 구성된 읍면동 주민예술단 육성함.
- 주민농악단 사례: 전라북도 5개 시군지역 모든 읍면에 주민대표농악단을 운영함.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 지역주민 주도의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중심으로써 생활체육협의회/자원봉사센터 형식의 독자적인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구성
- 2012년 1월 문화복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여 2012년 6월 정식 출범(문화코디네이터 시군별 1명 배치)

○ 시사점

- 전라북도의 삶의 질 정책을 통해 추진된 작은공간 시리즈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및 여가공간을 개방하여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 있음.
- 특히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고령자이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의도로 공간을 재배치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음.
-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읍면동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적 욕구 조사와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시책으로 제안하여, 이를 예산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정책으로 실현함.

나. 국외 사례⁹⁾

- 노인여가문화 정책에 대한 국외 사례는 학습 혹은 벤치마킹 할 만한 노인여가문화 관련 정책사업 혹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음.
-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가 추진하는 노인여가문화 정책사업 혹은 프로그램들이 사례로 소개되었음.
- 이들 국가들의 노인여가정책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독특한 노인정책이나 노인문화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선진 사례 모두를 도입하기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선진 사례들을 선택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1) 미국

- Life@50+ 사업
 - 이 사업은 미국 은퇴자 협회(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가 매년 개최하는 미국 내 엑스포 겸 이벤트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오락 제공
- 창의적 노화를 위한 국립센터(NCCA: The National Center of Creative Aging)
 - 건강한 노화와 창의적 표현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 예술과 노화 프로그램의 운영 효과 향상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며, 모의 프로그램 내 강의를 취합하여 훈련 프로그램과 기술적 보조 자료 제작
 -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모델의 경우, 시행 및 시행 예정프로그램 시스템 혹은 미 전역 내 제후를 통해 보급을 지원함.
 - 2009년 16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NCCA의 홈페이지에서 프로

9) 국외사례는 주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이나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함.

그랜트 명, 운영 지역,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내용 등을 지원함.

- 예) 노인과 예술(Seniors and The Arts): 62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 감상 프로그램. 댄스지도, 사진슬라이드쇼, 포크 음악 콘서트 등으로 구성함.

○ Elderhostel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 Elderhostel은 55세 이상 노인에게 학습과 여행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임.
- 점차 손자, 손녀, 친척으로 참여자를 확대하여 세대통합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 예술가와 노인 협업 및 연계 프로그램

- 뉴욕시의 문화국(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은 뉴욕시 5개의 자치구(borough)의 노인센터(senior centers)에서 예술가와 함께 하는 노인 협업(SPARC: Seniors Partnering with Artists Citywide)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행하고자 하여 예술가들의 참여 신청을 진행함.
- 예술 활동을 통해 노인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함.
- 모든 분야의 예술가가 개별적으로 지원 가능하며, 선정된 작가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활동. 활동기간 중 최소한 40-60시간 가량 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초상화 시리즈, 조각 수업 등)을 계획해야 하고, \$1,500 급여와 작업공간과 재료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2) 영국

○ 노인의 문화활동 및 레저시설 이용 지원

- 'Passport to Leisure Card' 사업을 통해 6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16세 이상 풀타임 학생, 정부기관 연수자, 장애인, 장애인 가정의 16세 이

하 자녀, 장애인 보조자, 정부보조금을 받는 구직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 1년에 4파운드로 버밍엄(Birmingham)시에 있는 60군데의 레저 시설을 할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75세 이상 노인을 위해 TV를 무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운동 활성화 시범 프로젝트(LEAPS: Local Exercise Action Pilots), 국민 네트워크 프로젝트,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의 문화활동을 지원함.

○ 교통지원 서비스

- 교통이 불편하여 예술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해 ‘예술을 위한 초고속 네트워킹 프로젝트’라는 무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
- ‘그곳에 가기, 예술택시’ (Project: Getting There Art Taxi Scheme) 프로젝트는 게이트헤드(Gateshead)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게이트헤드 또는 뉴캐슬 지역의 예술극장, 박물관, 미술관에 갈 때보다 저렴한 가격(2/3할인가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무료 수영시설 이용 프로그램(Free Swimming)

- 60세 이상 대상자는 무료로 수영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354개 지자체 중, 300개 지자체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총 1억 4천만 파운드를 지원함.

○ 잉글랜드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새로운 관객개발 프로그램’ (New audiences programme)

- 고령층 인구에 대한 전략으로 새로운 관객개발정책의 일환
- 문화적 소외계층(고령자,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문화적 경험 확대함으로써 총 2천만 파운드의 사업비를 사용함.
- 그 중에서 고령층을 위한 기금은 총 20개 사업에 32만 파운드를 집

행하고, 이를 통해 약 12,368명의 새로운 관객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유입됨.

○ 헤이데이즈(Heydays)

- 1990년 리즈(Leeds)에 설립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 매주 수요일에 55세 이상의 대상자 300명~400명 정도가 다양한 종류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약 1,000 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음
- 2009년 댄스, 대화모임, 글쓰기, 공예, 연극, 토론그룹 등의 프로그램 구성

○ 클럽 후원 사업

- 다인사이드 극장(Tyneside Cinema), 에이지 컨선, UTA(University of the Third Age), PGRSA(Proctor and Gamble's Retired Staff Association)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을 위한 영화클럽
- 1,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타인지역의 50개 장소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교육을 실시함.

○ 자발적 예술에 대한 지원

- 영국 국민들의 70% 이상은 아마추어 예술모임인 자발적 예술(Voluntary Arts)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레저센터(Leisure Center)

- 1973년 콤팩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의 여가시설을 여가센터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기된 후, 각 관할지역마다 세대 및 프로그램의 복합여가공간인 레저센터를 통해 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

- 영국 런던의 Magic Me 프로그램은 1989년부터 런던에서 예술을 통한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는 곳임.
- Magic Me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학교와 노인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참

여자를 모집하고 이들은 Magic Me가 고용한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세대간 통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학교의 아이들과 노인복지센터의 노인들이 함께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학교와 노인센터의 외벽을 장식하는 '모자이크 프로젝트'와 노인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학생들은 나중에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거나, 혹은 자신이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을 이야기 한 후 이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그 장면을 연출해 사진을 찍고 이 사진으로 달력을 만드는 'Age Calendar 프로젝트'가 있음.

3) 호주

○ 고령자 카드지원 사업

- 호주정부가 발행하는 컨세션 카드(Concession Card)는 문화, 여가, 여행은 물론 의료, 교육, 우체국 및 은행 서비스에 이르는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 고령자 카드(seniors card)는 대부분 카드 소지자 본인에 한해 문화공연 관람 시와 건강체육시설 이용 시 할인, 교통수단 무료이용 또는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령자 영리업체 할인카드(seniors business discount card)는 60세 이상 퇴직자이면 발급받을 수 있고, 문화기관과 영리업체 이용 시의 할인 혜택이 가능함.

4) 독일

○ 프로젝트 AAMEE(Active Aging of Migrant Elders across Europe) 중 Intercultural Creativity of Seniors(InCreaSe): A European Travelling Training Academy

- 여행에 관심이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문화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함.
-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A European Travelling Training Academy 프로젝트 진행
- 매 2년마다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화교육 분야의 성과와 정보 교류

5) 일본

○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클럽활동 지원

- 시즈오카현청에서는 (재)시즈오카현 클럽연합회, 시정촌(市町村) 노인클럽연합회, 민간 노인클럽이 행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함.
- 노인의 사회참가, 건강만들기 등 높은 성과 기대

○ 고령자 올림픽 개최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60세 이상 노인대상의 스포츠, 문화, 건강,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축제인 고령자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음. 고령자 올림픽은 1988년 일본 후생성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시작되었으며, 매년 도도부현을 돌면서 개최되고 있음.
- 전국의 선수, 임원, 관광객등 약 54만 명이 참가하며, 이를 통해 고령층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있음.

6) 프랑스

○ 휴가 중인 퇴직자들(Seniors en Vacances)

- 노인들의 여행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 관광부 장관 후원으로 진행

- 시간적 여유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나 퇴직자들이 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함.
- 휴가철 성수기인 7~8월을 제외한 시기에 프랑스 전역에 위치한 45여 곳 관광지에 위치한 추천 숙소에 예약을 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함.
- 숙소 할인과 더불어 관광가이드, 지역특산물 시식,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부가 프로그램도 진행함.
- 60세 이상의 프랑스에 거주하는 퇴직자, 전문적인 일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지역단위 차원의 노인 클럽 운영 및 지원

- 1975년 제 7차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노인클럽이 탄생하였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수많은 노인클럽이 운영되고 있음
- 단순한 친교에서부터 레크리에이션, 전문기술 습득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2004년 기준 프랑스 노인의 80%가 일상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정부는 지역단위로 자원봉사나 여가활동 클럽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여기에 등록된 클럽이나 단체는 약간의 지원금을 받음.

○ 시니어 플러스 카드

- 사회복지관이나 문예회관 등에서 노인들이 등록하고 쿠폰안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이 하고 싶은 여가 프로그램을 어떤 것이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임.
- 고등학교 교사들이 교사로 가르치는 등 수준이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대학이 주관하는 은퇴자를 위한 노인대학(U3A) 운영

- 대학이 주축이 되어 노인들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전문성 있는 노인단체들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와 노인 교육 발전을 선도함.

7) 이탈리아

- 로마시의 '로마의 어르신들을 박물관으로 초대합니다.'라는 프로그램 운영함.
 - 65세 이상 로마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박물관 현장 체험 프로그램
 -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거주하는 로마시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게 마련한 프로그램
 - 고고학, 예술사, 서양미술 전문가들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시립박물관 참가
- 살레르노시의 '춤추는 목요일' 프로그램 운영
 - 시 후원 하에 매 주 1회 60세 이상 노인 대상의 음악과 사교댄스 행사

8) 시사점

- 평생교육차원의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노인여가시설에서 운영되는 여가프로그램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참여적 여가·문화·교육'의 종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참여적 교육프로그램은 노인의 사회공헌형 여가활동이나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되는 경향을 보임.
- 세대통합 프로그램 지향
 - 노인세대만의 분리된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다른 세대(특히 손자녀나

청소년 등)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제시됨.

- 특히 노인들이 다른 세대의 멘토로서 역할을 하여, 새로운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프로그램이 강조됨.

○ 노인들의 클럽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 노인 스스로 문화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클럽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음.
- 활동지원에서 나아가 경연대회나 등록시스템 구축,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

○ 노인들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 노인들의 문화권과 여가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교통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소외계층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됨.
- 경제적 지원이나 할인제도 이외에 교통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등 간접지원의 방법이 세분화되어 있음.

○ 잠재적 여가욕구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영국의 경우 새로운 관객개발 프로그램은 문화적 경험확대 차원에서 새로이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을 시작하는 초기 진입자를 발굴하고 그들의 잠재적인 욕구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특징적임.

○ 여가시설의 복합화 및 주민 자율화 지향

- 국외의 대부분의 여가시설은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전세대가 아우르며 지역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 동호회나 클럽 활동과도 연계되어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는 경향을 보임.

IV.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현황과 문제점

1. 제주지역의 고령화 추세

-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정책이나 다른 경제, 노동, 복지, 교육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인구변화임. 그런 인구변화 가운데 노인층 인구의 변화 속도는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제주지역의 노인인구는 201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13.3%를 차지하여 곧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한국은행 제주본부, 2005).
-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증가이나 노인여가문화 활동 확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더구나 노인층 인구의 다양한 분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는 기존의 노인층 보다는 다른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고승한·이기홍, 2013).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노인여가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제주지역의 베이비붐세대 인구구조, 65세 이상 노인인구, 그리고 85세 이상의 장수노인 인구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가.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구조

-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혹은 그 이후 극심한 경기 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함. 그래서 한국에서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을 가리킴.
- 통계청(2010)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47

세~55세)는 695만명으로 전체인구(4,799만명)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는 495만명(51.9%), 여자는 459만명(48.1%)임(표 IV-1. 참고).

- 베이비부머 세대 중 1960년생이 87만명(12.5%)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962년생이 12.3%, 1961년생이 12.2% 순으로 나타남. 성비는 1963년생이 101.6으로 가장 높고, 1962년생이 101.4, 1957년생이 99.6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구조

(단위 : 천명, %)

출생연도		1963	1962	1961	1960	1959	1958	1957	1956	1955
계	6,950 (100.0)	785 (11.3)	854 (12.3)	851 (12.2)	869 (12.5)	789 (11.4)	751 (10.8)	731 (10.5)	658 (9.5)	663 (9.5)
남 자	3,462 (100.0)	395 (11.4)	430 (12.4)	424 (12.3)	430 (12.4)	393 (11.3)	374 (10.8)	365 (10.5)	326 (9.4)	325 (9.4)
여 자	3,488 (100.0)	389 (11.2)	424 (12.2)	427 (12.3)	438 (12.6)	396 (11.4)	376 (10.8)	366 (10.5)	333 (9.5)	338 (9.7)
성 비	99.3	101.6	101.4	99.4	98.1	99.0	99.5	99.6	98.0	96.1

자료: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원 자료

- 베이비부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157만명(22.6%)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 140만명(20.1%), 부산 56만명(8.0%), 경남 46만명(6.6%), 인천 40만명(5.8%), 대구 37만명(5.3%) 등 순으로 나타남(표 IV-2. 참고).
- 강연실 외. (2012: 4-8)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베이비붐 세대는 7.1만명으로 총인구 52.8만명의 13.5%임. 이는 전국 수준에 밀돌고 있으며, 연령 구성비는 7.1만명 중에 48세가 12.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세 12.3%, 49세 12.% 순으로 나타남.¹⁰⁾
 - 제주 베이비붐 세대 성비별로는 남성이 3.6만명(50.5%), 여성이 3.5만명(49.5%)임.

10) 통계청의 「2010 인구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베이비부머세대의 현황과 특성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베이비붐 세대의 5.2만명(73.8%)가 제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1.9만명(19.2)가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은 점차 고학력화 되고 있어 전국적인 추세와 동일함. 고졸이 4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졸(18.%), 대졸(4년제 이상)이 12.8%, 대학원 이상이 4.0% 순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3/4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음. 이들 베이비붐 세대 연령대들이 주로 취업하는 산업부문이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등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베이비붐 세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점유형태는 자가 55%를 상회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글세, 보증금 있는 월세 순으로 나타남.

〈표 IV-2〉 베이비붐 세대 인구 분포

(단위 : 천명, %)

구분	인구				구성비	
	전체(내국인)		베이비부머		전체(내국인)	베이비부머
전국	47,991	(100.0)	6,950	(14.5)	100.0	100.0
서울	9,631	(100.0)	1,399	(14.5)	20.1	20.1
부산	3,393	(100.0)	557	(16.4)	7.1	8.0
대구	2,432	(100.0)	370	(15.2)	5.1	5.3
인천	2,632	(100.0)	404	(15.4)	5.5	5.8
광주	1,466	(100.0)	194	(13.3)	3.1	2.8
대전	1,490	(100.0)	211	(14.2)	3.1	3.0
울산	1,072	(100.0)	170	(15.9)	2.2	2.4
경기	11,196	(100.0)	1,569	(14.0)	23.3	22.6
강원	1,464	(100.0)	222	(15.2)	3.0	3.2
충북	1,496	(100.0)	213	(14.2)	3.1	3.1
충남	2,000	(100.0)	263	(13.1)	4.2	3.8
전북	1,766	(100.0)	243	(13.7)	3.7	3.5
전남	1,729	(100.0)	239	(13.8)	3.6	3.4
경북	2,575	(100.0)	369	(14.3)	5.4	5.3
경남	3,120	(100.0)	456	(14.6)	6.5	6.6
제주	528	(100.0)	71	(13.5)	1.1	1.0

자료: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원 자료

- 제주지역의 베이비부머들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10년 안에 거의 은퇴하여 예비노인이 될 경우 노인여가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오게 됨.
-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재취업을 원하는지, 새로운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노후생활은 잘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사회정책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그런 점에 주목하여 60세~64세 사이의 예비노인들이 가지는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여가문화에 대한 대응과제도 제시할 것임.

나. 제주지역의 노인인구 변화

- 제주지역의 전체 인구는 2013년을 기점으로 60만명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순유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다음으로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¹¹⁾

〈표 IV -3〉 제주지역 노인인구의 변화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인구(A)	542,368	557,569	567,913	571,255	576,156	592,449	604,670	621,550
65세 이상 인구(B)	43,334	55,795	66,702	69,641	72,580	76,060	79,455	82,597
80세 이상 인구(C)	8,313	10,437	12,589	13,700	14,536	15,762	17,405	19,095
85세 이상 인구(D)	3,849	4,538	6,261	6,549	6,617	6,942	7,267	7,962
B/A(%)	8.0	10.0	11.7	12.2	12.6	12.8	13.1	13.3
C/B(%)	19.2	18.7	18.8	19.7	20.0	20.7	21.9	23.1
D/B(%)	8.9	8.1	10.6	9.4	9.1	9.1	9.2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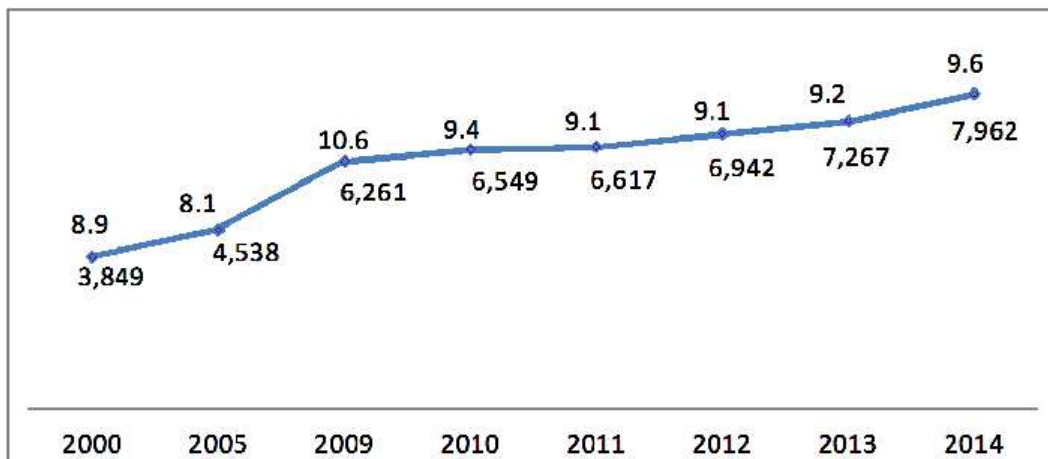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각 년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11) 제주가 전국에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월평균 1,000여명의 순유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5년에도 4월까지 4,300명 순유입 (월평균 1,075명) 인구 증가가 발생하여 전년동기 대비하여 26.6% 증가하였음(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과 내부자료, 2015).

- 더구나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80세와 85세 이상 장수노인 인구비율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4년에 65세 대비 8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1%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장수노인으로 분류되는 제주지역의 8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3,849명에서 2014년 7,962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15년 동안에 두 배 이상(106.9%) 증가하였음(그림 4-1. 참고).

<그림 4-1> 연도별 제주지역 85세 이상 장수노인인구 변화

(단위 : 명,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각 연도.

- 지난 40여 년 동안 전국에서 장수도(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8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가 항상 1위를 차지해 오고 있음(박삼욱 외, 2007). 2014년 기준으로 제주의 장수도는 9.6%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KOSIS, 2014).
- 제주지역 장수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현상은 노인여가문화의 특성과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노인여가문화의 대응과제들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임.

2.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현황

가. 고령사회 및 노인복지 관련 계획상의 노인여가문화 정책과제 현황

- 중앙정부가 2010년에 수립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1~2015)」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9월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2011~2015」를 수립하였음.
- 2015년에 중앙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를 수립 중에 있으며, 계획이 수립된 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는 각각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을 수립하였음.
-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100세인 장수노인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를 2011년 10월 12일에 제정·시행해 오고 있음.

1) 고령사회 대응 중기계획(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2011~2015)

-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2011~2015」¹²⁾에 제시된 노인여가문화 정책과 관련된 정책 과제는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정책 기본방향 내용 중에 하나의 추진 전략으로 제시되었음.
- 노인들이 노후에 안정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노인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소득보장 방안,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맞

1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2011~2015」 계획에는 고령사회 대응의 정책 방향을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으로 두고, 그리고 정책 추진방향을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대응,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 14개의 중점과제와 35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춤형 의료서비스 지원, 그리고 다양한 사회참여 지원 및 여가문화 제공이 제시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2011~2015」에 제시된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지원 및 여가문화”의 구체적 내용(사업목적, 사업내용, 투자계획, 사업목표)을 보면 다음과 같음(표 IV-4. 참고).

〈표 IV-4〉 노인여가문화정책 관련 법 제도 유형별 내용

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투자계획 (2011-2015)	사업목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 노인여가시설의 활성화 - 건강한 노인 문화 향유 -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기능 강화	- 노인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컴퓨터 교육 -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프로그램 개발 등	1,900백만원 (지방비) - 컴퓨터 교육	경로당 프로그램 2015년까지 380개 소로 증가
전천후 게이트 볼장 확대	- 여가활동 참여율 제고 - 노인운동의 수요 증가 충족 - 전천후 시설 마련	16개소(신축 및 보수) - 연도별 4개소	6,000백만원 (지방비)	전천후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수중운동 서비스 제공	질병예방 및 심신의 건강 도모	수중에어로빅, 수중요가, 수중 레크레이션 제공	414백만원 (국비 289백만원 지방비 125백만원)	예방에서 재활까지 서비스 제공
건강나눔 안마 서비스 제공	활기찬 노후 생활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안마, 지압, 마사지 및 기타 자극 요법 서비스 제공	2,448백만원 (국비 1,713백만원 지방비 735백만원)	수혜인원 800명에게 서비스 제공
중고령자 전문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문기술 및 기술 활용 - 전문기능 봉사단 대상 분야 확대	600백만원 (국비 300백만원 지방비 300백만원)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사회참여 확대
노인대학 활성화	평생교육 참여 기회 및 역할 부여를 통한 자기계발 실현	노인대학 학생 대상 지원	1,095백만원 (지방비)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어르신 여가활동 서비스	삶의 질 향상	-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문화바우처 대상자 지원	2,016백만원 (국비 1,411백만원 지방비 605백만원)	300명 수혜 대상자에게 만족한 서비스 제공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1. 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2011~2015」 pp. 173-179 재정리

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 사업목적

-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여가시설의 활성화 도모
- 건전한 노년문화 향유의 장 마련
- 지역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 기능 강화

○ 사업내용

-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소를 2015년까지 380개소로 확충
- 노인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컴퓨터 교육 추진
-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투자계획

- 2011~2015년 : 1,900백만원 (지방비)

○ 사업목표

- 2011년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344개소에서 2015년에 380개소로 증가

② 도 전역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대

○ 사업목적

- 여가활동 참여율 및 신체 활동 참여율의 제고
- 노인운동의 수요 증가와 마을별 게이트볼장 건립 요청에 부응
-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사업내용

- 16개소 (신축 및 보수)
- 연도별 4개소(행정시별 2개소)

○ 투자계획

- 2011~2015년 : 6,000백만원 (지방비)

○ 사업목표

- 전천후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③ 예방에서 재활까지 수중 운동 서비스

○ 사업목적

- 노인대상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질병예방 및 심신의 건강도모

○ 사업내용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 수중에어로빅, 수중요가, 수중 레크레이션, 수중 저항 기구를 이용한 근력운동 및 관절 운동 등 서비스 제공
- 월 160천원 상당의 전자바우처 지원

○ 투자계획

- 2011~2015년 : 414백만원 (국비 289백만원, 지방비 125백만원)

○ 사업목표

- 참여 노인이 만족하는 예방에서 재활까지 서비스 제공

④ 건강나눔 안마서비스

○ 사업목적

- 노인들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의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어르신
- 안마, 지압, 마사지 및 기타 자극 요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월 120천원 상당의 전자바우처 지원

○ 투자계획

- 2011~2015년 : 2,448백만원 (국비 1,713백만원, 지방비 735백만원)

○ 사업목표

- 수혜인원 800명에게 만족한 서비스 제공

⑤ 중·고령자 전문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 사업목적

-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경제적 여유와 건강한 중산층의 전문직 출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공동체적 도민의식 함양 및 사회참여 증대

○ 사업내용

- 전문분야에서 자원봉사원들이 자신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 전문기능 봉사단 대상 분야 확대 (아동 청소년 특기교육, 외국어 통·번역, 집수리 봉사 등)
- 전문기능 봉사단 연계시스템 체계적 운영

○ 투자계획

- 2011~2015년 : 600백만원 (국비 300백만원, 지방비 300백만원)

○ 사업목표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사회참여 확산

⑥ 노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노인대학 활성화

○ 사업목적

-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및 역할 부여로 책임감 형성, 자신감 회복

등을 통한 자기계발 실현

○ 사업내용

- 노인회 소속 노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노인대학 전담인력 인건비,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대학 사업비 등)

○ 투자계획

- 2011~2015년 : 1,095백만원 (지방비 1,095백만원)

○ 사업목표

-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⑦ 어르신 여가활동 서비스

○ 사업목적

- 어르신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기능을 유지, 향상시킴으로써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절감 및 삶의 질 향상
- 노인 여가문화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미흡으로 적절한 여가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의 극복

○ 사업내용

-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문화바우처 대상자에 지원

○ 투자계획

- 2011~2015년 : 2,016백만원 (국비 1,411백만원, 지방비 605백만원)

○ 사업목표

- 300명 수혜 대상자에게 만족한 서비스 제공

2)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는 100세 이상 노인을 보호·지원하고 노인들의 노후생

활 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지급과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음(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789호, 2011. 9. 21).

- 조례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임.
-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만 80세 이상 노인을 ‘장수노인’ 그리고 만 100세 이상인 사람을 ‘100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0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복지법」에 의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축하기념품 또는 이를 상징하는 기념물을 제공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 제시된 지원이 현실적으로 장수노인이나 100세 이상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미흡함.
- 장수노인(만 80세 이상)에게 장수수당이 매달 2만5천 원이 지원되고, 또한 100세 이상 노인에게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함.

3)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년 12월에 수립한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제주도 지역사회복지를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비전과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핵심과제별 사업계획을 제시하였음(제주특별자치도, 2014).
-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정하고, 목표를 “삶의 질이 높은 복지 공

동체 구현”에 두고 있음. 그리고 4개 영역의 실천전략과 17개의 실천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음.¹³⁾

- 노인복지와 관련된 실천과제로는 첫째, 든든한, 활기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현장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 둘째, 안전한, 편안한 노후의 삶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이 제시됨. 그러나 이러한 실천과제의 주요사업 내용에 노인여가문화 활동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음. 다만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만 제시됨.
- 제주시는 「제3기 제주도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에서 “사람중심의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노후가 즐거운 도시만들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희망을 주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다름을 존중하는 희망복지 실현으로 12개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음.
- 제주시는 “노후가 즐거운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노인복지 안전망 강화,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여가문화 기회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 제주시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여가문화 기회”를 조성하는 핵심 실천과제를 명시하고 있음.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향후 4년 동안 11,708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함.
- 다른 한편으로, 서귀포시는 「제3기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에서 “통합서비스 기반의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비전으로 삼았고, 전략목표는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보건복지서비스 접근권 강화, 통합서비스 기반으로 한 일·가정 양립지원을 조성하는 전략목표를 세웠음.
- 서귀포시는 그러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13)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에서 제시된 4개 실천전략은 ①현장행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구현, ②어르신과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현장 복지 실현, ③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 ④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로 정해짐. 그러나 이러한 실천전략 각각에 대한 실천과제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2014:55)를 참고할 것.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정보접근권 및 이동권 확보, 돌봄 서비스 강화, 일자리 창출, 건강한 가정 만들기 등을 핵심과제로 삼았음.

- 이러한 핵심과제를 추진할 43개 세부사업이 제시되었지만 노인여가문화 관련한 사업이 없음.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정책사업 현황

- 제주지역에서 노인여가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중요한 인프라 시설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중요함. 그래서 제주지역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교실 등을 운영하는 정책 사업들을 살펴보고자 함.

1) 노인여가문화 인프라 현황

- 노인들이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
- <표 IV-5>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시설수는 2005년에 377개였으나 8년이 지난 2013년에는 426개로 증가하여 13.0% 증가하였음.
 - 노인복지관은 2005년에 5개였으나 2010년에 6개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 노인복지관 수는 변화가 없음.
 - 경로당은 2005년에 326개였으나 2013년에는 404개로 증가하여 지난 8년 동안 23.9% 증가하였음.
 - 노인교실은 2005~2013년 사이에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2005년에는 28개였으나 2013년에는 16개만 운영되어 8년 동안 42.9% 감소하였음.

- 이러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를 가능케 하는 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표 IV-5〉 제주지역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

구 분	전체 시설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2005	377	5	326	28
2006	376	5	352	19
2007	363	5	363	18
2008	389	5	368	17
2009	405	5	376	24
2010	410	6	386	18
2011	412	6	390	16
2012	419	6	396	17
2013	426	6	404	1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각 년도.

2) 노인복지관 사업¹⁴⁾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2015년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26개 과목, 28개 반에 827명의 수강생이 등록해 운영되고 있음.
 - 교육프로그램에는 생활일본어, 생활영어, 생활중국어, 컴퓨터, 명리학, 논어 등이 있음.
 - 건강증진프로그램에는 스포츠댄스, 실버요가, 탱고, 왈츠, 실버체조, 에어로빅이 있음.
 - 취미여가프로그램에는 서각, 한글서예, 한자서예, 가요, 고전무용, 실

14) 노인복지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의 내부자료(2015)를 참고로 작성하였음.

버합창, 바둑 장기가 있음.

- 악기연주프로그램에는 통기타, 멜로디 기타, 오카리나, 아코디언, 섹스폰이 있음.
- 운동프로그램에는 당구, 탁구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에 등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록회원수 총 358명(2014년 12월말 현재 기준) 가운데 남자 141명, 여자는 217명으로 여성 어르신이 75.7%를 차지하고 있음.
- 연령별로는 60~65세가 61명, 66~70세가 101명, 71~75세 125명, 76~80세 52명, 81세 이상이 19명으로 다양한 연령층 노인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보면(표 IV-6. 참고), 먼저 노인여가문화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
- 노인들의 정서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건강생활 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경로당과의 연계사업으로 보치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치아대회에 참여하고 있음.
- 고용지원사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지역복지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복지현장 실습지도 등도 하고 있음.
- 특히 특화사업으로 ‘심장생문화예술단’을 운영하여 노인들이 가진 문화적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IV-6〉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의 주요 사업

사업 유형	프 로 그 램 명
정서생활 지원사업	• 일반상담 : 복지관 이용 상담, 회원등록 접수상담 • 전문상담 : 경제, 법률, 주택상담, 세무상담 등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 정보화교육: 컴퓨터 초급, 컴퓨터 활용 • 평생교육 및 예능교육 - 생활영어, 생활일본어, 생활중국어, 명리학, 논어, 한글서예, 한자서예, 서각, 가요, 통기타, 멜로디기타, 오카리나, 아코디언, 색소폰, 바둑, 장기, 실버합창, 고전무용 등
건강생활 증진사업	• 건강교육, 건강상담 • 건강교실 운영: 실버체조, 에어로빅A, 에어로빅B, 스포츠댄스, 탱고, 왈츠, 실버요가, 탁구, 당구 • 물리치료실 운영 • 경로식당운영(중식서비스)
사회참여 지원사업	• 노인 자원봉사사업: 노인 자원봉사자 모집·교육·활동
경로당 연계사업	•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보치아 프로그램) 운영, 보치아 대회 운영 등
고용 지원사업	• 노인 일자리사업: 복지형, 시장형
홍보사업	• 홈페이지 운영, 소식지 및 사업안내 자료 제작배부, 기타 홍보물 제작
후원사업	• 후원자 개발(일반후원, 결연후원), 후원금 연결 • 혼자사는 노인 결연후원사업
지역복지 연계사업	• 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문화체험 등), 실태 및 욕구조사, 사회복지현장 실습지도, 시설 대관 등
특화사업	• 십장생문화예술단 운영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2015). 「내부자료」

3) 경로당 사업

- 노인여가문화 활동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시설이 경로당임. 제주지역의 거의 모든 읍면동 마을단위에는 경로당이 있어서 여기에서 노인여가문화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설·운영

되고 있음.

- <표 IV-7>은 2014년도 제주지역의 행정시별(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별 경로당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 IV-7> 제주지역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개, %)

구 분		경로당 수	프로그램 운영	미 운영	보급률
2013	계	402	324	78	80.6
	제주시	271	222	47	82.5
	서귀포시	133	102	31	76.7
2014	계	408	361	47	88.5
	제주시	271	237	34	87.5
	서귀포시	133	124	9	93.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2015). 「내부자료」

- 제주도내 경로당 수는 2014년에 408개이며 이는 2013년에 비하여 6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제주지역의 읍면동 마을별로 생긴 경로당에서 노인여가문화 활동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설·운영되고 있음.
- 2013년도 도내 경로당에서 노인여가문화 활동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된 경로당은 전체 402개소 가운데 324개소로 프로그램 보급률이 80.6%에 이르고 있음.
 - 제주시의 프로그램 보급률이 82.5%로 서귀포시(76.7%) 보다 약간 더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음.
- 2014년도 기준 제주도내 경로당 중에서 노인여가문화 활동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로당 수는 361개소로 보급률이 88.5%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시의 프로그램 운영 보급률이 전년도에 비하여 5.0%p 증가하였

으나 서귀포시가 제주시 보다 보급률(93.2%)이 높게 나타났다.

- 서귀포시는 2013년에 비하여 노인여가문화 관련 프로그램 보급률이 16.5%p 증가하였음.
- 제주지역에서 노인여가문화 관련 사업(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취미여가프로그램, 연주·오락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등이 개설·운영되고 있음(표 IV-8. 참고)

〈표 IV-8〉 제주지역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현황 (2014년 기준)

프로그램 유형	프 로 그 램 명
교육 프로그램	• 의식교육, 범죄예방교육, 전기안전교육, 가스안전교육, 웰다잉 교육, 문화해설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 웃음체조, 구강관리 및 교육, 보건교육 및 진료, 영양교육, 치매예방, 안마, 노인체조교실, 명상, 건강체조, 기체조, 우리춤, 기공체조, 고혈압질환교육, 심혈관질환교육, 골관절질환교육, 일만보댄스, 생활체조, 국학기공, 5대암 예방교육, 뇌혈관질환 교육, 치매·우울증 검사 및 교육, 어르신미각살리기, 건강백세 (영양, 비만, 절주교육), 침술, 이미용서비스 등
취미여가 프로그램	• 서예, 바둑교실, 종이접기 강좌, 켈트(뜨개) 등
연주오락 프로그램	• 가요교실, 오카리나 연주, 노래교실, 민요교실, 레크레이션 등
운동 프로그램	• 게이트볼, 보치아,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등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2015). 「내부자료」

- 노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61개소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건강증진프로그램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프로그램, 연주 오락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그리고 취미여가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에 그 만큼 관심과 참여가 높다고 볼 수 있음.

〈표 IV-9〉 제주지역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기관 현황 (2014년 기준)

프로그램 유형	운영 기관
교육 프로그램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제주시노인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제주시서부보건소, 제주도생활체육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시노인회, 무병장수테마파크, 삼무힐링명상교육원, 제주시생활체육회, 건강보험공단, 시각장애인복지관, 국학원, 제주시동부보건소, 제주보건소, 제주시취미교실, 순복음복지관, 노형보건지소,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서귀포시노인회, 서귀포시취미교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생활체육회, 독거노인원스톱센터, 서귀포시보건소
취미여가 프로그램	제주시노인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연주오락 프로그램	자원봉사단체,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서귀포시노인회, 서귀포시취미교실,
운동 프로그램	제주시취미교실, 제주도노인복지관, 제주시서부보건소,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2015). 「내부자료」

- 〈표 IV-9〉은 제주지역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기관(혹은 단체) 현황을 보여주고 있듯이, 공공 혹은 민간단체(기관)이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교육, 취미여가, 연주오락, 운동)에는 일부 기관이나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음. 특히 경로당 광역지원센터가 거의 모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4) 노인대학 및 노인대학원 운영 사업

-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2015년도에 예산 70,000천원 가지고 3년 과정(각 학년별 100명)의 노인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프로그램은 컴퓨터교실, 가요교실, 댄스스포츠교실, 서예교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간 120시간의 교육시간임.
- 강사진은 주로 대학교수와 전문직종의 전문가, 선택수업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 지금까지 노인대학원에 졸업한 어르신은 1,261명(14기까지)에 이르고 있음.
- <표Ⅳ-10>은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운영하는 노인대학원 프로그램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먼저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는 크게 교육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취미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Ⅳ-10> 노인대학원 프로그램 현황 (2015년 기준)

프로그램 유형	프 로 그 램 명
교육 프로그램	• 의식교육, 웰다잉예절교육, 문화해설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 치매예방, 고혈압질환교육, 심혈관질환교육, 5대암 예방교육, 건강백세(영양, 비만, 절주교육),
취미여가 프로그램	• 서예, 가요, 컴퓨터, 댄스스포츠.

자료 :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2015). 「내부자료」

- 교육프로그램에는 의식교육, 웰다잉 예절교육, 문화해설이 있음.
- 건강증진프로그램에는 치매예방, 고혈압 심혈관질환교육, 5대암 예방교육, 건강백세(영양, 비만, 절주교육)을 운영 중에 있음.
- 취미여가프로그램에는 서예, 가요, 컴퓨터, 댄스스포츠가 있음.

- (사)대한노인회 제주지회는 2015년도에 예산 80,000천원 가지고 대학 2년, 대학원 3년 과정의 노인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프로그램은 교양강의, 취미과목, 방과 후 각 1시간 운영하고 있고 각 학년별로 교양 및 취미과목 강의는 각각 32~34시간, 방과 후에 컴퓨터, 가요교실, 건강교실 강의에 전 학년 40시간 강의를 배정됨.
- 강사진은 주로 대학교수와 전문직종의 전문가, 선택수업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 2014년도 노인대학 졸업자는 1,095명(13기), 노인대학원 졸업한 어르신은 712명(9기)에 이르고 있음.
- <표 IV-11>은 (사)대한노인회 제주지회가 운영하는 노인대학(원) 프로그램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먼저 대한노인회 제주지회는 크게 교육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IV-11> 제주시 노인대학(원) 운영 프로그램 현황 (2015년 기준)

프로그램 유형	프 로 그 램 명
교육 프로그램	• 의식교육, 가스안전교육, 웰다잉교육, 문화해설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 웃음체조, 보건교육 및 진료, 영양교육, 치매예방, 안마, 노인체조교실, 명상, 건강체조, 기체조, 고혈압질환교육, 생활체조, 뇌혈관 질환교육, 치매·우울증 검사 및 교육, 백세(영양, 비만, 절주교육),
취미여가 프로그램	• 가요, 건강체조(댄스)등

자료 : (사)대한노인회 제주지회(2015). 「내부자료」

- 교육프로그램에는 의식교육, 가스안전교육, 웰다잉교육, 문화해설이 있음.
- 건강증진 프로그램에는 웃음체조, 보건교육 및 진료, 영양교육, 치매 예방, 안마, 노인체조, 생활체조, 기체조, 뇌혈관질환교육 등 14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

- 취미여가프로그램에는 가요, 건강체조(댄스) 등이 있음.
-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는 2015년도에 예산 91,000천원 가지고 대학 2년, 대학원 3년 과정의 노인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프로그램은 교양강의, 전문반(가요, 민요, 실버건강체조, 컴퓨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강사진은 주로 대학교수와 전문직종의 전문가, 선택수업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 2014년도 노인대학 졸업자는 1,045명(2015년 12기까지 포함), 2015년에 노인대학원 1기 졸업 어르신은 55명에 이르고 있음.
- <표 IV-12>은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가 운영하는 노인대학(원) 프로그램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먼저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는 크게 교육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취미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IV-12> 서귀포시 노인대학(원) 운영 프로그램 현황 (2015년 기준)

프로그램 유형	프 로 그 램 명
전문반 프로그램	• 가요, 민요, 컴퓨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 웃음체조, 실버건강체조, 영양교육, 노인치매예방교육, 노인 우울증 검사 및 교육 등
일반교양 프로그램	• 경제, 국내외 정세, 향토 문화, 환경 등

자료 :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2015). 「내부자료」

- 교육프로그램에는 의식교육, 가스안전교육, 웰다잉교육, 문화해설이 있음.
- 건강증진프로그램에는 웃음체조, 보건교육 및 진료, 영양교육, 치매 예방, 안마, 노인체조, 생활체조, 기체조, 뇌혈관질환교육 등 14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
- 취미여가프로그램에는 가요, 건강체조(댄스) 등이 있음.

5) 노래교실 사업 운영

- 제주시는 2015년에 읍·면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 13개소 노인교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제주시가 13개소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을 하고, 가톨릭 성당 혹은 교회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음.
 - 각 1개소 노인교실에 대한 예산 지원은 460만원임.
 - 노인교실 사업에서 운영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노래,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원예 활동, 비누공예, 수화, 손바닥 페인팅, 종이접기 등임.
- 서귀포시(읍·면지역 포함)는 2015년에 2개소 노인교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2개소 노인교실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2개 교회가 각각 맡아서 운영하고 있음.
 - 각 1개소 노인교실에 대한 예산 지원은 480만원임.
 - 노인교실 사업에서 운영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한지공예, 원예교실, 고전무용, 건강체조, 댄스스포츠 등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문재여성문화센터」는 도청 산하기관으로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래 합창단을 운영·지원하고 있음. 합창단의 명칭은 「석류중창단」으로 2006년 창단하였음.
 - 1년에 상·하반기 각각 4개월씩 운영하는데 1시간 노래하고 1시간 댄스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2015년 5월 현재 여자 노인 45명이 수강하고 있음.

3.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문제점

- 지금까지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정책과제와 주요 정책 지원 사업들을 살펴보았음.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사회 도래에 대응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노인여가문화 관련 정책과제 추진과 정책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함.

첫째,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정책을 기획·집행·평가하는 전체 과정에 체계적·조직적·실천적 계획이 미흡함. 다시 말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종합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2011년 9월에 수립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2011~2015」에 고령사회 분야의 노인여가문화 정책과 관련된 정책 과제는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제시되어 있으며, 정책과제들은 현재 수행되는 정책사업(예, 경로당, 게이트볼장 운영, 안마서비스, 노인대학 등)과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음.
-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는 중·장기 노인여가문화 정책과제들이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복지가 ‘고령사회 중기계획(2011~2015)’과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간에 연계성이 부족함. 다시 말해서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에서는 노인여가문화 정책과제들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반면에 제주시(행정시)의 「제3기 제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에서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여가문화기회”를 조성하는 핵심 실천과제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제3기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에서는 노인여가문화에 대한 정책과제가 수립되어 있지 못함.
- 따라서 노인여가문화 정책들이 효율적·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계획 뿐 아니라 문화정책 관련 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 그래야 정책의 연계성이 제고될 수 있음.

셋째, 베이비붐 세대(55년~63년 사이 출생)들이 이미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하였고, 향후 7년 안에 대부분 은퇴하여 예비노인층으로 편입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없음.

- 제주지역에서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노인여가문화 활동 및 참여에 대한 전반적 정책 진단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넷째, 제주지역에서 노인여가문화 서비스를 향유자인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전달체계가 미흡함.

- 현재의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전달체계는 제주특별자치도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민간단체(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한노인회 운영 노인대학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면 그 단체(기관)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노인여가복지 혹은 여가활동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 등에 가지 않는 노인들은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 및 지원 서비스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소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따라서 향후 노인여가복지 혹은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정책과제임.

다섯째, 노인여가문화 활동과 참여 관련 정책 사업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 등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부족함.

-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활동 사업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여 지역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는 영역까지 확대되지 못하여 단순히 노인들 개인차원에서 여가문화 활동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향이 큼.
- 노인들이 가진 경력, 지식, 지혜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젊은 세대, 아동 그리고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지역사회의 활력과

재생 그리고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노인여가문화 정책사업이 요구됨.

여섯째,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시행되는 노인여가문화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타 기관이나 부서(제주시, 서귀포시, 문화원, 도청의 문화정책과, 평생교육과, 여성가족정책과, 자치행정과, 경제정책과 등)와 유기적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이러한 각 기관 혹은 담당 부서는 각각의 노인여가문화 (혹은 노인여가복지) 관련하여 주어진 담당 사업만 총괄·처리하고 있기 때문임.
- 사실상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는 지식경제기반사회, 정보기술사회, 평생학습사회, 글로벌사회, 핵가족사회, 장수사회 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여가문화 정책이 타 기관 혹은 부서와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요구됨.

일곱째, 제주지역에서 추진되는 노인여가문화 정책과제 혹은 정책사업들은 대부분 수탁기관(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 등)의 내부 공간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체험, 연수, 현장답사 등)이 제한적임.

- 따라서 노인여가문화 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교육기관 공간 밖에서 교육과 여가문화 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선택이 요구됨.

여덟째, 제주지역에서 개설 및 운영되는 노인여가문화 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특정한 분야(특히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음.

- 물론 노인여가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설이 필요함.

아홉째, 2014년 기준으로 제주지역에서 408개 경로당 가운데 361개만이 노인여가 활동 및 지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제주지역의 읍면동 마을별 경로당들의 프로그램 운영 실적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어떤 마을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혹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운영

되는 경우도 있고, 한편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마을도 있음. 따라서 마을마다 격차가 있어서 우선 경로당 운영 역량을 강화시켜 마을들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물론 마을별 경로당이 노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가능한 형평성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할 필요가 있음.

열 번째, 노인들이 은퇴 후 사회 재적응을 위해 평생교육이 절실히 필요한데 노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들이 평생교육과의 연계성이 미흡함.

-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인층의 다양성(성별, 연령, 학력, 경력,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노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들의 개설 및 운영이 요구됨.

V.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활동 실태조사 결과

1. 조사의 설계

-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일반적 특성, 여가와 일상생활, 여가문화활동 참여, 여가문화활동 경력, 여가문화정책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제주지역 노인들이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후의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 전략과 대응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제주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주지역 거주 60세 이상 노인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행정구역에 한정되었음.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음.¹⁵⁾
-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하였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5년 5월 1일~5월 11일 기간에 제주발전연구원 부설 사회조사센터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2. 노인여가문화 활동 실태조사 분석 및 해석

가. 조사 방법

-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가 사용되었으며, 면접조사 경험이 많은 면접조사원이

15) 본 연구에서 노인 연령층은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였음. 그래서 60세~64세는 예비노인층, 65세~74세는 중기노인층,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층은 후기노인층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자료를 수집하였음. 물론 조사대상자가 직접 설문 응답을 할 수 있으면 자기기입식 방법을 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1 면접조사를 하였음.

-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현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그러나 1:1 면접조사가 불가능한 조사대상 노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조사대상자의 표본 선정은 제주지역의 읍·면·동별 전체 노인 인구수와 조사대상 표본 수(400명)의 비율 구성을 고려하여 최종 면접대상 표본수를 정하였음. 지역별 최종 조사면접 대상자를 살펴보면, 제주시 동지역 177명, 서귀포시 동지역 64명, 제주시 읍·면지역 91명, 서귀포시 읍·면 지역 68명이 선정되었음.
- 조사면접 대상자는 제주지역 읍·면·동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음. 최종조사 대상자의 표집방법은 전반적으로 군락표집과 무작위표집 그리고 할당표집이 병행하여 사용됨. 우선 43개 읍·면·동 지역 가운데 조사대상 표집군은 읍·면·동 지역으로 여기서는 군락표집하였고,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와 각 지역별 표본수 비율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무작위 표집(random sampling) 방법에 의해서 선정되었음.
 - 제주시 동(洞)지역에서 최종면접 조사대상자는 177명이고, 제주시 읍·면지역에서 65명으로 제주시 전체 지역에서 242명의 60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음.
 - 서귀포시 동(洞)지역에서 최종면접 조사대상자는 71명이고,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 93명으로 서귀포시 전체 지역에서 164명의 60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음.
 - 최종 면접조사대상 노인 406명이 최종 통계분석 대상자임.
- 최종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에 의존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조사대상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여가와 일상생활(여가활동유형, 최고 관심 여가활동, 여가활동 인식, 주요 여가활동), 여가문화활동 참여(여가문화시설 이용경험, 향후 지속이용의사, 향후 참여프로그램, 참여비용, 프로그램 개선사항, 동호회·클럽활동 유형 등), 여가활동 경력

(향후 여가활동 참여 동반자 유형, 향후 여가활동 참여희망 프로그램, 현재 여가활동 불참이유, 지속적 여가활동 필요사항 등), 여가문화정책 (지자체 노인여가활동분야 지원 정도,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정책, 노인 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방안 등) 등의 변인들이 포함되었음.

- 이와 더불어 교차분석은 노인여가문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음.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 주요 연구목적이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속변인(지속적 여가활동 필요사항, 여가활동분야 지원,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정책,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방안)들이 선택적으로 선정되었음.

나. 빈도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전체 응답자 406명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일반적 특성은 <표 V-1>에 제시되어 있음.
-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 218명(53.7%), 남성 188명(46.3%)순으로 나타남.

<표 V-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88	46.3
	여성	218	53.7
	계	406	100.0
연령	60 ~ 64세	97	23.9
	65 ~ 74세	172	42.3
	75세 이상	137	33.7
	계	406	100.0

〈표 V-1. 계속〉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학력	무학	62	15.3
	서당	8	2.0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121	29.8
	중졸(중퇴 포함)	65	16.0
	고졸(중퇴 포함)	102	25.1
	전문대학 졸업(중퇴 포함)	17	4.2
	4년제 대학 졸업(중퇴 포함)	27	6.7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4	1.0
	계	406	100.0
현재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177	43.6
	제주시 읍면지역	65	16.0
	서귀포시 동지역	71	17.5
	서귀포시 읍면지역	93	22.9
	계	406	100.0
현재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21	5.2
	대체로 나쁘다	102	25.1
	보통이다	181	44.6
	대체로 건강하다	88	21.7
	매우 건강하다	14	3.4
	계	406	100.0
현재 동거인	본인 혼자	107	26.4
	배우자와 단둘이	181	44.6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77	19.0
	배우자 없이 자녀와 함께	38	9.4
	친구 및 친족과 함께	1	0.2
	기타	2	0.5
	계	406	100.0
과거 직업	농 축 수산업	202	49.8
	자영업	36	8.9
	전문직	9	2.2
	경영 관리직	31	7.6
	기술생산직	22	5.4
	판매서비스업	22	5.4
	일용단순직	17	4.2
	공무원	19	4.7
	전업주부	40	9.9
	기타	8	2.0
	계	406	100.0

〈표 V -1. 계속〉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월 평균 생활비	50만원 미만	74	18.9
	50~100만원 미만	166	42.4
	100~150만원 미만	81	20.7
	150~200만원 미만	40	10.3
	200~250만원 미만	19	4.9
	계	380	100.0
생활수준	매우 낮은 편이다	8	2.0
	대체로 낮은 편이다	71	17.5
	보통이다	227	55.9
	대체로 높은 편이다	92	22.7
	매우 높은 편이다	8	2.0
	계	406	100.0

- 조사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60세~64세 사이 응답 노인들이 97명(23.3%), 65세~74세 172명(42.3%), 그리고 75세 이상은 137명(33.7%)으로 나타남. 그래서 중기노년층(65~74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후기노년층(75세 이상), 예비노년층(60~64세)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121명(29.8%), 고졸(중퇴 포함) 102명(25.1%), 중졸(중퇴 포함) 65명(16.0%), 무학 62명(15.3%), 4년제 대학 졸업(중퇴 포함) 27명(6.7%), 전문대학 졸업(중퇴 포함) 17명(4.2%), 서당 8명(2.0%), 그리고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4명(1.0%)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1/3 이상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하였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11.9%(48명)이고,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도 47.1%(191명)을 차지하고 있음.
- 조사대상자의 현재 거주지역 별로는 제주도 동(洞)지역 177명(43.3%), 서귀포시 동(洞)지역 71명(17.5%), 제주도 읍·면지역 65명(16.0%), 서귀포시 읍·면지역 93명(22.9%)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보면, ‘건강이 나쁘다’는 123명(30.3%), ‘보통이다’는 181명(44.6%), 그리고 ‘건강하다’는 102명(25.1%)로 나타남.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들 가운데 거의 1/3정도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자의 현재 동거인 상황을 보면, ‘배우자와 단둘이 산다’는 응답자가 181명(44.6%)으로 가장 많고, ‘본인 혼자 산다’ 107명(26.4%),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산다’ 77명(19.0%), ‘배우자없이 자녀와 함께 산다’ 38명(9.4%), 그리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산다’ 1명(0.4%)순으로 나타남.
 - 특히 사별하여 혼자 사는 조사응답 노인들이 거의 1/3정도에 이르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들 중에서도 부부 가운데 한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독거노인 가구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조사대상자의 은퇴 전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였던 응답 노인이 202명(49.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업주부 40명(9.9%), 자영업 36명(8.9%), 경영관리직 31명(7.6%), 생산기술직 및 판매서비스업 종사자가 각각 22명(5.4%), 공무원 19명(4.7%), 전문직 9명(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농·수·축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편중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조사대상자의 현재 월평균 생활비는 50~100만원 미만인 166명(42.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150만원 미만 81명(20.7%), 50만원 미만 74명(18.9%), 150~200만원 미만 40명(10.3%), 그리고 200~250만원 미만 19명(4.9%)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의 월 평균 생활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1.3%(240명)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의 노인들의 월 평균 생활비가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¹⁶⁾

16) 여기서 월평균 생활비는 가구규모,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응답 항목임.

- 조사대상자의 현재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보면, ‘보통이다’는 응답자가 227명(55.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체로 높은 편이다’가 92명(22.7%), ‘대체로 낮은 편이다’ 71명(17.5%), 그리고 ‘매우 높은 편이다’와 ‘매우 낮은 편이다’ 각각 8명(2.0%)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나 생활수준이 보통이라는 인식을 보였음.

2) 여가와 일상생활

- 조사대상 노인들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 영역을 보면(표 V-2. 참고), 현재 ‘일을 한다’는 응답을 보인 노인은 147명(36.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에 간다’는 응답이 111명(27.3%), ‘잠자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지낸다’ 28명(6.9%), ‘손자·손녀를 돌본다’ 20명(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처럼 조사응답 노인들 가운데 1/3 이상이 낮에 밭일이나 취업현장에서 노동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V-2〉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

구분	빈도(명)	비율(%)
일한다(밭일, 취업 등)	147	36.2
손자·손녀를 돌본다	20	4.9
혼자서 TV보거나 취미·오락 활동을 한다.	70	17.2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다닌다.	111	27.3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나 사교모임에 간다.	16	3.9
잠자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있다.	28	6.9
기타	14	3.4
합계	406	100.0

- 조사응답 노인들이 현재 여가문화활동 가운데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내는 활동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표 V-3. 참고), ‘건강 관련 운동 및 스포츠’인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노인이 254명(63.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래부르기, 악기 등 음악활동’은 응답자는 40명(10.1%), ‘종교활동’ 25명(6.3%), ‘여행 및 관광나들이’ 21명(5.3%), ‘오름 등반활동’ 16명(4.0%),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등의 IT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많은 조사대상 노인들이 오래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 운동과 스포츠 분야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표 V-3〉 가장 많은 관심 분야 활동

구분	빈도(명)	비율(%)
건강 관련 운동 및 스포츠	254	63.8
컴퓨터, 인터넷 등의 IT기술	13	3.3
미술 및 예술 관람 활동	3	0.8
종교활동	25	6.3
봉사활동	7	1.8
여행 및 관광 나들이	21	5.3
목공일, 공예, 요리 등의 기술활동	5	1.3
시, 연극 등 창작 활동	2	0.5
오름 등반 활동	16	4.0
노래부르기, 악기 등 음악활동	40	10.1
기타	12	3.0
합계	398	100.0

- 조사대상 노인들이 ‘여가’ 활동에 대한 인식을 보면(표 V-4. 참고), ‘남는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는 일’이라는 응답이 157명(39.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는 시간에 노는 일’ 116명(28.8%), ‘하고 싶었던 활동(그림, 악기, 서예 등)을 배우고 참여하는 일’ 72명(17.9%), 기타 24명(10.4%), ‘화장실 출입하는 일’ 16명(6.9%), 그리고 ‘친구나 가족 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39명(9.7%)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많은 응답 노인들이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는 일로 규정하고 있음.

<표 V-4> 여가 활동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비율(%)
남는 시간에 노는 일	116	28.8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을 구경하는 일	17	4.2
하고 싶었던 활동(그림, 악기, 서예 등)을 배우고 참여하는 일	72	17.9
남는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는 일	157	39.0
친구나 가족 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39	9.7
기타	2	0.5
합계	403	100.0

- 조사응답 노인들이 참여하는 구체적 여가문화 활동 유형에 대한 복수응답 분포를 보면(표 V-5. 참고), ‘TV 보기’라고 응답한 노인이 322명(26.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운동하기’ 228명(18.7%), ‘친구 만나기’ 182명(14.9%), ‘노래부르기’ 109명(8.9%), ‘종교활동’ 105명(8.6%), 그리고 ‘화투 치기’ 99명(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대다수 조사응답 노인들은 TV 시청, 운동 그리고 친구 만나는 일을 구체적 여가활동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5> 구체적 여가 활동 유형(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TV 보기	322	26.5
친구 만나기	182	14.9
노래 부르기	109	8.9
운동하기	228	18.7
바둑, 장기 등	51	4.2
서예 등 활동	17	1.4
화투치기	99	8.2
종교활동	105	8.6
봉사하기	45	3.8
시, 연극활동	4	0.3
오름 걷기	55	4.5
합계	1,217	100.0

- 특히 ‘TV 시청’을 구체적 여가활동으로 인식하여 직접 참여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노인들의 ‘TV 시청’은 재미와 흥미는 있어도 보람있는 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임.
- 조사대상 노인들이 여가문화 활동을 경험한 시설 유형 분포를 보면 (표 V-6. 참고), ‘경로당’을 이용한 경험한 노인이 260명(22.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복지회관’ 206명(17.5%), ‘국민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205명(17.4%), ‘주민자치센터’ 133명(11.3%), ‘노인대학’ 128명(10.8%),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 80명(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V-6〉 여가문화 활동 참여 경험의 시설 분포

구분	빈도(명)	비율(%)
노인복지관	206	17.5
경로당	260	22.0
노인대학(혹은 노인대학원)	128	10.8
주민자치센터	133	11.3
박물관, 미술관	80	6.8
도 문화센터	37	3.1
문화원, 문화의 집	28	2.4
국민체육시설, 체육공원	205	17.4
대학의 평생교육원	48	4.1
민간시설(기원, 당구장 등)	55	4.6
합계	1,180	100.0

- 따라서 응답 노인들은 주로 주간에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복지회관, 노인대학, 체육공원 등)에서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가문화 활동을 참여하였던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 시설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표 V-7. 참고), 먼저 ‘경로당’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238명(22.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복지관’과 ‘국민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각각 190명(18.2%), ‘주민자치센터’ 120명(11.4%), ‘노인대학’ 100명(9.6%), ‘박물관 및 미술관’ 73명(6.9%), ‘민간시설(기원), 당구장’ 40명(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일단 노인들이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용한 시

설들을 대체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을 보이고 있음.

〈표 V-7〉 여가문화 활동 참여 지속적 이용 의향 시설 분포 (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노인복지관	190	18.2
경로당	238	22.8
노인대학	100	9.6
주민자치센터	120	11.4
박물관, 미술관	73	6.9
도 문화센터	34	3.3
문화원, 문화의 집	24	2.3
국민체육시설, 체육공원	190	18.2
대학의 평생교육원	37	3.5
민간시설(기원, 당구장 등)	40	3.8
합계	1,046	100.0

- 조사대상 노인들이 여가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에서 이용한 가장 인상 깊었던 좋은 프로그램 유형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음(표 V-8. 참고). 먼저 ‘건강관리(체조, 요가 등)’와 ‘운동하기(게이트볼, 골프 등)’

〈표 V-8〉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건강관리(체조, 요가 등)	61	20.8
교양강좌(평생교육원 등)	9	3.1
노래교실	53	18.1
교육(노인대학, 경로당, 복지관 등)	30	10.2
댄스스포츠	11	3.8
서예	6	2.0
언어 관련 강좌(영어, 중국어 등)	6	2.0
운동하기(게이트볼, 골프 등)	61	20.8
웃음치료	6	2.0
음악(노래, 악기, 풍물 등)	9	3.1
체육공원 등 시설 이용	9	3.1
취미 및 오락프로그램 (사진, 화투, 바둑 등)	12	4.1
컴퓨터 기초	8	2.7
기타	12	4.0
합계	293	100.0

라고 응답한 노인이 각각 61명(20.8%)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노래교실’ 53명(18.1%), ‘노인대학’ 30명(10.2%), 그리고 ‘댄스스포츠 취미 및 오락 프로그램(사진, 화투, 바둑 등)’ 12명(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노인들이 앞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유형 분포를 보면(표 V-9. 참고),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들 가운데 ‘건강 관련 프로그램(체조, 요가 등)’이 60명(22.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래교실’ 41명(15.4%), ‘운동하기’ 30명(11.2%), ‘댄스스포츠’ 28명 (10.5%), ‘취미 및 오락프로그램(사진, 화투, 바둑 등)’ 23명(8.6%), 그리고 ‘여행 및 관광’ 15명(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V-9〉 향후 참여의향 새로운 프로그램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건강 관련 프로그램(체조, 요가 등)	60	22.5
고전 무용	4	1.5
교양프로그램(평생교육원 등)	5	1.9
글쓰기(한시, 창작문예 등)	4	1.5
노래교실	41	15.4
댄스스포츠	28	10.5
봉사	8	3.0
상담프로그램(심리치료, 웃음 치료 등)	10	3.7
서예	8	3.0
악기연주	4	1.5
언어 관련 학습	4	1.5
여행 및 관광	15	5.6
오름 등 등산	4	1.5
운동하기(게이트볼, 골프 등)	30	11.2
취미 및 오락프로그램(사진, 화투, 바둑 등)	23	8.6
컴퓨터배우기	8	3.0
기타	11	3.2
합계	267	100.0

- 따라서 응답 노인들은 향후 참여 의향이 있는 새로운 여가문화 프로그램은 대개 건강과 운동 그리고 노래하기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음.

- 여가문화시설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참여에 비용을 지불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 노인이 69명(17.3%)으로 나타나 대다수 노인(330명, 82.7%)들은 프로그램 참여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없다는 것임(표 V-10. 참고).
- 이처럼 대다수 노인들은 여가문화 시설의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이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V-10〉 프로그램 참여의 비용 지불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예	69	17.3
아니요	330	82.7
합계	399	100.0

- 여가문화시설에서 매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비용 지불 규모 정도에 대한 분포가 〈표 V-11〉에 나타나 있음. 노인들이 참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 규모가 ‘1만원~5만원 미만’이 33명(46.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만원~10만원 미만’과 ‘10만원~15만원 미만’과 ‘20만원 이상’ 각각 15명(20.3%), 그리고 ‘15만원~20만원 미만’ 2명(2.9%)으로 나타남.

〈표 V-11〉 매달 프로그램 참여 비용 지불 규모

구분	빈도(명)	비율(%)
1만원 ~ 5만원 미만	33	46.8
5만원 ~ 10만원 미만	14	20.3
10만원 ~ 15만원 미만	10	14.5
15만원 ~ 20만원 미만	2	2.9
20만원 이상	10	14.5
합계	69	100.0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들의 거의 절반이 매달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댓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비용 규모가 5만원 미만을 꼽고 있음.

-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은 <표 V-12>에 나타나 있듯이, 먼저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였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노인들이 182명(49.9%)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난이도(초급~고급)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노인은 46명(12.6%), ‘동호회 클럽 활동에 대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43명(11.8%), 그리고 ‘프로그램 수보다 강좌수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36명(9.9%)으로 나타남. 더구나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에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도 51명(14.0%)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거의 절반이나 되는 조사응답 노인들은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음.

<표 V-12>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선 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였으면 좋겠다	182	49.9
프로그램의 난이도(초급~고급)가 있었으면 좋겠다	46	12.6
프로그램 수보다 강좌수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36	9.9
동호회·클럽 활동에 대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43	11.8
개선할 사항이 없다	51	14.0
기타	7	1.9
합계	365	100.0

- 조사응답 노인들 가운데 현재 동호회 (친목회 등)/클럽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표 V-13. 참고), 먼저 ‘참여하고 있다’는 노인들이 116명(29.1%)이고, 반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노인은 282명(70.9%)로 나타남. 따라서 대다수 조사 대상 노인들은 현재 동호회 (친목회 등)·클럽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표 V -13〉 현재 동호회(친목회 등) 클럽활동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16	29.1
아니오	282	70.9
합계	398	100.0

- 조사응답 노인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클럽 활동 참여유형은 〈표 V -14〉에 나타나 있음. 조사응답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동호회·클럽 활동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친목회’ 참여가 43명 (37.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악회’ 23명(19.8%), ‘스포츠(게이트볼, 골프, 배드민턴, 탁구 등)’ 19명(1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아직까지 동호회·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많지 않고 그나마 참여하는 경우에도 주로 친목회, 스포츠 활동 그리고 산악회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음.

〈표 V -14〉 동호회·클럽 활동의 참여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노인회	4	3.4
늘푸른대학	1	0.9
댄스스포츠	1	0.9
문학	1	0.9
미술	2	1.7
바둑	1	0.9
봉사(복지관 목용 등)	2	1.7
사진찍기	1	0.9
산악회(오름 포함)	23	19.8
서예	3	2.6
스포츠(게이트볼, 골프, 배드민턴, 탁구 등)	19	16.4
언어 관련 학습 동아리	1	0.9
올래길 걷기	6	5.2
음악(악기)	3	2.6
종교활동	1	0.9
친목회	43	37.1
풍물민속 보존회	1	0.9
합창 등 노래	3	2.6
합계	116	100.0

- 조사대상 노인들이 동호회·클럽 활동에 매달 참여하는 횟수를 보면 (표 V-15. 참고), 먼저 ‘5회 미만’이 88명(75.8%), 다음으로 ‘5회~10회 미만’과 ‘5회~10회 미만’이 각각 10명(8.7%), 그리고 ‘15회 이상’이 8명(6.8%)을 차지하고 있음.

〈표 V-15〉 매달 동호회·클럽 활동 참여 횟수

구분	빈도(명)	비율(%)
5회 미만	88	75.8
5회 ~ 10회미만	10	8.7
10회 ~ 15회미만	10	8.7
15회이상	8	6.8
합계	116	100.0

- 조사응답 노인들이 동호회·클럽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 보면(표 V-16. 참고), 먼저 ‘몸이 불편하여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91명(19.3%)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홍보가 잘 안 된다’ 73명(15.5%), ‘비용이 부족하다’ 64명(13.6%), ‘장소와 시설이 부족하다’와 ‘함께할 동반자나 친구가 없다’ 56명(11.9%), ‘교통편이 부족하다’ 54명(11.5%), ‘함께할 먼저 회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44명(9.3%), 그리고 ‘동호회 클럽활동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없다’ 21명(4.5%)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응답 노인들이 동호회·클럽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로 건강상의 불편, 홍보 및 비용 부족, 그리고 장소 및 시설 부족 등으로 나타남.

〈표 V -16〉 동호회·클럽 활동의 불참여유 (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장소와 시설이 부족하다	56	11.9
비용이 부족하다	64	13.6
홍보가 잘 안 된다	73	15.5
교통편이 불편하다	54	11.5
몸이 불편해서 활동하기가 어렵다	91	19.3
같이 함께할 동반자나 친구가 없다	56	11.9
동호회·클럽활동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없어서 어렵다	21	4.5
회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44	9.3
기타	12	2.5
합계	471	100.0

- 조사응답 노인들이 앞으로 참여 희망 동호회·클럽 활동 유형 분포가 〈표 V -17〉에 나타나 있듯이, 먼저 ‘스포츠(게이트볼, 골프, 배드민턴, 탁구 등)’를 하고 싶다는 응답 노인이 25명(2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오름 동호회’ 20명(17.2%), ‘음악(노래 및 악기 연주)’ 14명(12.1%), ‘건강 관련 (요가 등)’ 10명(8.6%), ‘친목도모’ 12명(10.3%), ‘여행 및 관광’ 9명(7.9%) 그리고 ‘댄스스포츠’ 6명(5.2%)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노인들의 향후 희망 동호회 클럽 활동들은 주로 운동, 건강, 음악 등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요구됨.

〈표 V -17〉 향후 참여 희망 동호회·클럽 활동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건강 관련(요가 등)	10	8.6
댄스스포츠	6	5.2
봉사	3	2.6
사진동아리	2	1.7
서예동아리	3	2.6
스포츠(게이트볼, 골프, 배드민턴, 탁구 등)	25	21.6
시 쓰기 등 문예 창작	2	1.7
여행 및 관광	9	7.9
오름동호회	20	17.2
음악(노래 및 악기)	14	12.1
종교봉사	2	1.7
취미 및 오락	2	1.7
친목도모	12	10.3
컴퓨터 활용	2	1.7
기타	4	3.4
합계	116	100.0

3) 여가경력

○ 〈표 V -18〉은 조사응답 노인들이 과거에 하고 싶었으나 여러 사정 상 하지 못했던 여가문화 활동 유형들을 보여 주고 있음. 먼저 노인들이 과거에 못했던 여가문화 활동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스포츠’ 활동이었고(78명, 14.9%), 다음으로 ‘여행 및 관광’이 71명(13.4%), ‘컴퓨터 배우기’ 50명(9.5%), ‘노래교실’ 42명(8.0%), 그리고 ‘댄스스포츠’ 28명(5.3%) 등 순으로 나타남.

- 이처럼 노인들이 과거에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여가문화생활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스포츠, 여행 및 관광, 컴퓨터 배우기, 노래교실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 V -18〉 과거에 못했던 여가문화 활동 유형 (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건강 증진(요가 등)	17	3.2
공부(지식, 교양, 학교공부)	21	4.0
공부(지식, 교양)	10	1.9
공예	5	0.9
구연동화	1	0.2
노인대학	1	0.2
그림그리기	11	2.1
낚시	8	1.5
난타	1	0.2
노래교실	42	8.0
댄스스포츠	28	5.3
독서 및 글쓰기	15	2.9
등산	24	4.6
무용	22	4.2
미술	4	0.8
박물관	1	0.2
바느질	2	0.4
봉사	8	1.5
사물놀이	5	1.0
사진찍기	4	0.8
서예	23	4.4
악기배우기	30	5.7
스포츠(게이트볼, 골프, 배드민턴, 탁구 등)	78	14.9
언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6	1.1
여행 및 관광	71	13.4
역사문화탐방	4	0.8
연극	3	0.5
염색	3	0.5

〈표 V-18. 계속〉 과거에 못했던 여가문화 활동 유형 (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오락	4	0.8
요리	4	0.8
조경배우기	1	0.2
장기, 바둑	9	1.7
치매교육	1	0.2
종교활동	4	0.8
컴퓨터배우기	50	9.5
화초가꾸기	4	0.8
합계	525	100.0

○ 조사응답 노인들이 향후에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 희망 동반자 분포를 보면(표 V-19. 참고), ‘친구, 친척 등’이 154명(38.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네사람’ 71명(17.8%), ‘배우자’ 69명(17.3%), ‘누구든 상관없다’가 62명(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처럼 응답 노인들이 앞으로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할 때 함께 가고 싶은 동반자 유형들은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친구, 친척, 배우자, 동네사람 등)이 대부분임.

〈표 V-19〉 향후 여가활동 참여 희망 동반자

구분	빈도(명)	비율(%)
배우자	69	17.3
친구, 친척 등	154	38.7
손자, 손녀	9	2.3
혼자서	14	3.5
동네사람	71	17.8
동호회 회원	16	4.0
누구든 상관없다	62	15.6
기타	3	0.8
합계	398	100.0

- 조사대상 노인들이 앞으로 꼭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을 보면(표 V-20. 참고), ‘운동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264명(35.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래나 오락 프로그램’ 162명(22.0%), ‘여행, 관광, 등산, 낚시 프로그램’ 108명(14.6%),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 프로그램’ 77명(10.4%),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56명(7.6%), 그리고 ‘사교(댄스 등) 프로그램’ 40명(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V-20〉 향후 꼭 참여 희망 프로그램 유형 (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프로그램	77	10.4
운동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264	35.8
노래나 오락 프로그램	162	22.0
여행, 관광, 등산, 낚시 프로그램	108	14.6
사교(댄스 등) 프로그램	40	5.4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56	7.6
전통문화 프로그램(차, 탈춤 등)	20	2.7
취업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6	0.8
기타	5	0.7
합계	738	100.0

- 따라서 전체 응답 노인들 가운데 1/3 정도가 향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운동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한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리고 레저생활을 즐기는 여행·관광·등산·낚시에 관심 가져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조사대상 노인들이 현재 참여 희망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불참 이유를 보면(표 V-21. 참고), ‘정보가 없어서’가 146명(19.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 133명(17.7%), ‘건강이 좋지 않아서’ 126명 (16.8%), ‘원하는 강좌가 없어서’ 82명(10.9%), ‘노인을 위한 강좌가 없어서’ 60명(8.0%), ‘돈이 비싸서’ 58명(7.7%), 그리고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49명(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사대상 노인들이 현재 참여하고 싶지만 실제로 여가문화 활동에 불참하는 주요 이유가 정보와 시간의 부재, 좋지 않은 건강, 그리고 희망 강좌의 부재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음.

〈표 V -21〉 현재 참여 희망 여가문화 활동의 불참 이유 (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시간이 없어서	133	17.7
원하는 강좌가 없어서	82	10.9
돈이 비싸서	58	7.7
같이할 사람이 없어서	49	6.5
집 볼 사람이 없어서	7	0.9
거리가 멀어서	80	10.7
노인을 위한 강좌가 없어서	60	8.0
정보가 없어서	146	19.5
건강이 좋지 않아서	126	16.8
기타	9	1.2
합계	750	100.0

- 조사대상 노인들이 향후 참여 희망 사회봉사 활동유형에 대한 인식 분포를 보면(표 V -22. 참고), 먼저 ‘봉사활동 자체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을 보인 노인이 117명(29.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연 환경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93명(23.7%), ‘종교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67명(10.9%), 그리고 ‘기존에 배운 여가활동을 가르치고 싶다’ 59명(15.1%)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따라서 거의 1/3 정도의 응답 노인들은 봉사활동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고, 그리고 절반 이상의 노인들이 자연환경, 종교 등과 관련된 분야의 봉사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 -22〉 향후 참여 희망 사회봉사 활동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기존에 배운 여가활동을 가르치고 싶다	59	15.1
종교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67	17.1
자연환경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93	23.7
어린이(유아 포함)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15	3.8
보호·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	22	5.6
보호·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청소 등의 잡일을 돕고 싶다	12	3.1
봉사활동 자체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	117	29.8
기타	7	1.8
합계	392	100.0

- 향후 노인 여가문화 활동을 지속화시켜 나가는데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 노인들의 인식이 〈표 V -23〉에 나타나 있듯이, 먼저 ‘이용 접근성이 좋은 여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인 노인이 141명(36.8%) 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 108명(28.2%), ‘저렴한 여가활동 참가비’ 97명(25.3%), 그리고 ‘기존에 배운 여가활동을 가르치고 싶다’ 59명(15.1%)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따라서 노인들에게 여가문화 활동을 지속화하려면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좋은 여가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및 운영하여 흥미 유발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표 V -23〉 향후 여가문화 활동의 지속화 위한 필요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저렴한 여가활동 참가비	97	25.3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	108	28.2
이용 접근성이 좋은 여가시설 설치	141	36.8
여가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강사확보	32	8.4
기타	5	1.3
합계	383	100.0

4) 여가문화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가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인식 분포를 보면(표 V -24.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이 ‘충분하다’는 응답 노인은 130명(32.1%)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인 노인은 78명(19.3%)으로 나타남. 그리고 ‘그저 그렇다’는 인식을 보인 노인은 196명(48.5%)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정도가 보통 이상이 80.6%(326명)을 차지하여 지자체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V -2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아주 충분하지 않다	15	3.7
대체로 충분하지 않다	63	15.6
그저 그렇다	196	48.5
대체로 충분하다	123	30.4
매우 충분하다	7	1.7
합계	404	100.0

-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노인여가문화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대상 노인들의 인식 정도가 <표 V-25>에 잘 나타나 있음. 먼저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활성화 방안 가운데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고 인식한 노인이 121명(31.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에 예산 증액’이 86명(22.1%),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67명(17.2%),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에 대한 적극적 홍보’ 46명(11.8%), ‘노인여가문화 활동을 위한 전문시설 확충’ 43명(11.0%), 그리고 ‘현재의 노인여가문화 시설에 대한 개보수’ 23명(5.9%)로 나타남.
- 따라서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조사대상 노인들 다수가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산증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표 V-25>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활성화 방안

구분	빈도(명)	비율(%)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에 예산 증액	86	22.1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67	17.2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21	31.0
노인여가문화 활동을 위한 전문시설 확충	43	11.0
현재의 노인여가문화 시설에 대한 개보수	23	5.9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적극 홍보 강화	46	11.8
기타	4	1.0
합계	390	100.0

- 조사대상 노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표 V-26>에 나타나 있음. 먼저 ‘노인여가문화 정책사업의 다양화’라고 인식한 노인이 156명(40.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여가문화 정책 사업비의 증액’이 105명(27.4%), ‘노

인여가문화 정책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72명(18.8%), '노인여가문화 정책 관련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38명(9.9%), 그리고 '노인여가문화정책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8명(2.1%)로 나타남.

- 조사대상 대다수 노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정책이 실효성을 달성하려면 우선 노인여가문화 정책사업의 다양화, 예산지원의 확충, 그리고 노인여가문화 정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표 V -26〉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

구분	빈도(명)	비율(%)
노인여가문화 정책사업의 다양화	156	40.7
노인여가문화 정책 사업비의 대폭 증액	105	27.4
노인여가문화 정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72	18.8
노인여가문화 정책 관련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38	9.9
노인여가문화 정책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8	2.1
기타	4	1.0
합계	383	100.0

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지속적 여가문화활동 필요사항, 지자체 노인여가활동의 지원 정도,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활성화, 노인여가문화정책의 실효성 증대와의 관련성(association)과 유의성(significance)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차분석(Crosstab analysis)을 실시하였음. 여기서 종속변인들은 향후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대응과제에 영향을 줄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여 교차분석에 포함시켰음.

-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은 노인여가문화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로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건강상태, 평균 생활비, 생활수준, 노인층 유형(예비, 중기, 후기)이 포함되었음. 따라서 이런 변인들과 노인여가문화 정책과의 교차분석 결과가 <표 V-27>, <표 V-28>, <표 V-29>, <표 V-30>에 나타나 있음.

1) 인구학적 요인과 지속적 여가문화 활동에 필요사항

- <표 V-27>에 따르면, 인구학적 변인들 가운데 학력과 거주지역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성별, 연령, 건강상태, 평균 생활비, 생활수준)들은 노인들이 지속적 여가문화 활동의 필요사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함.
- 지속적 여가문화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남성과 여성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성이 없음.
- 연령층에 따라 지속적 여가문화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시 말해서 예비노인층, 중기노인층, 그리고 후기노인층 간에 여가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지속적 여가문화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함.
- 노인들의 평균 생활비 규모는 지속적 여가문화활동 필요사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다시 말해서, 노인들의 생활비가 여가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별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그런 맥락에서 조사대상 노인들의 생활수준 정도가 지속적 여가문화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즉, 노인들의 생활수준이 지속적 여가문화활동의 필요사항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함.

〈표 V -27〉 인구학적 변인과 향후 지속적 여가문화활동 필요사항

(단위: 명, %)

변 인		지속적 여가문화 활동에 필요사항						통계치
		여가활동 이용비용 의 저렴함	다양한 프로그램 의 개설	이용 접근성이 좋은 여가시설 위치	여가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강사 확보	기 타	합계	
성 별	남성	55 (14.4)	43 (11.2)	69 (18.0)	12 (3.1)	2 (0.5)	181 (47.3)	$\chi^2=7.358$ df=4
	여성	42 (11.0)	65 (17.0)	72 (18.8)	20 (5.2)	3 (0.8)	202 (52.7)	
연 령	60세 ~ 64세	22 (5.7)	26 (6.8)	36 (9.4)	13 (3.4)	0 (0)	97 (25.3)	$\chi^2=15.441$ df=8
	65세 ~ 74세	42 (11.0)	52 (13.6)	62 (16.2)	6 (1.6)	1 (0.3)	163 (42.6)	
	75세 이상	33 (8.6)	30 (7.8)	43 (11.2)	13 (3.4)	4 (1.0)	123 (32.1)	
학 력	초졸 이하	8 (2.1)	14 (3.7)	30 (7.8)	7 (1.8)	3 (0.8)	62 (16.2)	$\chi^2=23.900^*$ df=12
	중졸	36 (9.4)	29 (7.6)	40 (10.4)	6 (1.6)	0 (0)	111 (29.0)	
	고졸	44 (11.5)	53 (13.8)	51 (13.3)	13 (3.4)	2 (0.5)	163 (42.6)	
	대졸 이상	9 (2.3)	12 (3.1)	20 (5.2)	6 (1.6)	0 (0)	47 (12.3)	
거 주 지 역	제주시 동지역	42 (11.0)	61 (15.9)	50 (13.1)	17 (4.4)	3 (0.8)	173 (45.2)	$\chi^2=26.856^{**}$ df=12
	서귀포시 동지역	15 (3.9)	23 (6.0)	24 (6.3)	2 (0.5)	0 (0)	64 (16.7)	
	제주시 읍면지역	19 (5.0)	7 (1.8)	28 (7.3)	3 (0.8)	0 (0)	57 (14.9)	
	서귀포시 읍면지역	21 (5.5)	17 (4.4)	39 (10.2)	10 (2.6)	2 (0.5)	89 (23.2)	

〈표 V-27〉 인구학적 변인과 향후 지속적 여가문화활동 필요사항(계속)

(단위: 명, %)

변 인		지속적 여가문화활동에 필요사항						통계치
		여가활동 이용비용 의 저렴함	다양한 프로그램 의 개설	이용 접근성이 좋은 여가시설위치	여가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강사 확보	기타	합계	
건강 상태	좋지 않다	28 (7.3)	26 (6.8)	46 (12.0)	9 (2.3)	4 (1.0)	113 (29.5)	$\chi^2=11.357$ df=8
	보통	48 (12.5)	52 (13.6)	57 (14.9)	12 (3.1)	1 (0.3)	170 (44.4)	
	좋다	21 (5.5)	30 (7.8)	38 (9.9)	11 (2.9)	0 (0)	100 (26.1)	
평균 생활 비	100만원 미만	53 (14.2)	52 (14.0)	75 (20.2)	19 (5.1)	3 (0.8)	202 (54.3)	$\chi^2=5.970$ df=8
	100~ 200만원 미만	27 (7.3)	33 (8.9)	35 (9.4)	4 (1.1)	1 (0.3)	100 (26.9)	
	200만원 이상	13 (3.5)	21 (5.6)	28 (7.5)	7 (1.9)	1 (0.3)	70 (18.8)	
생활 수 준	하	20 (5.2)	16 (4.2)	31 (8.1)	8 (2.1)	0 (0)	75 (19.6)	$\chi^2=5.073$ df=8
	중	55 (14.4)	62 (16.2)	75 (19.6)	15 (3.9)	4 (1.0)	211 (55.1)	
	상	22 (5.7)	30 (7.8)	35 (9.1)	9 (2.3)	1 (0.3)	97 (25.3)	

유의수준 : *p<.05 **p<.01

- 제주시 동지역·읍면지역 그리고 서귀포시 동지역·읍면지역과 노인 응답자들 간에는 지속적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필요사항(저렴한 이용비용,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 이용접근성 좋은 여가시설 위치, 훌륭한 강사 확보)과의 차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다시 말해서, 제주시 동지역·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서귀포시 동지역·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노인여가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2) 인구학적 요인과 지자체의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 <표 V-28>에 따르면, 인구학적 변인들 가운데 노인들의 거주지역과 건강상태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성별, 연령, 학력, 평균 생활비, 생활수준 준)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함.

<표 V-28> 인구학적 변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지원 정도

(단위: 명, %)

변 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정도				통계치
		충분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충분하다	전체	
성 별	남성	42 (10.4)	95 (23.5)	51 (12.6)	188 (46.5)	$\chi^2=4.758$ df=2
	여성	36 (8.9)	101 (25.0)	79 (19.6)	216 (53.5)	
연 령	60세 ~64세	19 (4.7)	45 (11.1)	33 (8.2)	97 (24.0)	$\chi^2=0.864$ df=4
	65세 ~74세	33 (8.2)	87 (21.5)	51 (12.6)	171 (42.3)	
	75세 이상	26 (6.4)	64 (15.8)	46 (11.4)	136 (33.7)	
학 력	초졸 이하	13 (3.2)	28 (6.9)	28 (6.9)	69 (17.1)	$\chi^2=5.156$ df=6
	중졸	22 (5.4)	56 (13.9)	42 (10.4)	120 (29.7)	
	고졸	33 (8.2)	89 (22.0)	45 (11.1)	167 (41.3)	
	대졸 이상	10 (2.5)	23 (5.7)	15 (3.7)	48 (11.9)	
거 주 지 역	제주시 동지역	23 (5.7)	84 (20.8)	70 (17.3)	177 (43.8)	$\chi^2=19.600$ ** df=4
	서귀포시 동지역	13 (3.2)	35 (8.7)	17 (4.2)	65 (16.1)	
	제주시 읍면지역	15 (3.7)	29 (7.2)	26 (6.4)	70 (17.3)	
	서귀포시 읍면지역	27 (6.7)	48 (11.9)	17 (4.2)	92 (22.8)	

〈표 V-28〉 인구학적 변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활동의 지원 정도 (계속)

(단위: 명, %)

변 인		지원정도				통계치
		충분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충분하다	전체	
건강상태	좋지 않다	29 (7.2)	51 (12.6)	42 (10.4)	122 (30.2)	$\chi^2=10.546^*$ df=4
	보통	31 (7.7)	102 (25.2)	47 (11.6)	180 (44.6)	
	좋다	18 (4.5)	43 (10.6)	41 (10.1)	102 (25.2)	
평균생활비	100만원 미만	48 (12.3)	102 (26.2)	65 (16.7)	215 (55.1)	$\chi^2=3.478$ df=4
	100~200만원 미만	17 (4.4)	48 (12.3)	39 (10.0)	104 (26.7)	
	200만원 이상	12 (3.1)	38 (9.7)	71 (5.4)	71 (18.2)	
생활수준	하	18 (4.5)	39 (9.7)	22 (5.4)	79 (19.6)	$\chi^2=4.295$ df=4
	중	39 (9.7)	116 (28.7)	70 (17.3)	225 (55.7)	
	상	21 (5.2)	41 (10.1)	38 (9.4)	100 (24.8)	

유의수준 : *p<.05 **p<.01

○ 노인들의 거주지역(p=.01)과 건강상태(p=.05)가 지자체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지원 정도와 각각 .01과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노인 거주지역인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정도(불충분, 보통, 충분)와 차이성을 보여주고 있음. 다시 말해서 서귀포시 지역(동, 읍면)이 제주시 지역(동, 읍면)보다 지자체로부터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에 대하여 덜 충분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함.
-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정도(불충분, 보통, 충분)와 통계적 차이성을 보여주고 있음. 다시 말해서,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 보다 지자체의 노인

여가문화 활동 지원정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건강한 노인들이 그렇지 못한 노인들 보다 평소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가 높아서 행정적 지원 정도에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함.

3) 인구학적 요인과 지자체의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

- <표 V-29>에 따르면, 인구학적 변인들 가운데 노인들의 거주지역, 건강 상태 그리고 생활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성별, 연령, 학력, 평균 생활비)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함.
-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 대한 주관적 인식이 남성과 여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성이 없음. 즉 성별에 따라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들이 달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임.
- 연령층에 따라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시 말해서 예비노인층, 중기노인층, 그리고 후기노인층 간에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 간에는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노인들의 학력수준과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함. 다시 말해서, 노인들의 학력수준과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들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됨.
- 노인들의 평균 생활비 규모는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다시 말해서, 노인들의 생활비가 여가문화 활성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표 V-29〉 인구학적 변인과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활동의 활성화 방안

(단위: 명, %)

변 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통계치
		노인여가문화활동 분야에 예산증액	노인여가문화활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노인여가문화활동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인여가문화활동을 위한 전문시설 확충	현재의 노인여가문화시설에 대한 개보수	노인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적극 홍보 강화	기 타	합 계	
성 별	남성	47 (12.1)	37 (9.5)	54 (13.8)	14 (3.6)	9 (2.3)	20 (5.1)	3 (0.8)	184 (47.2)	$\chi^2=9.764$ df=6
	여성	39 (10.0)	30 (7.7)	67 (17.2)	29 (7.4)	14 (3.6)	26 (6.7)	1 (0.3)	206 (52.8)	
연 령	60세 ~64세	15 (3.8)	18 (4.6)	40 (10.3)	11 (2.8)	3 (0.8)	9 (2.3)	1 (0.3)	97 (24.9)	$\chi^2=15.721$ df=12
	65세 ~74세	39 (10.0)	32 (8.2)	48 (12.3)	16 (4.1)	11 (2.8)	21 (5.4)	0 (0)	167 (42.8)	
	75세 이상	32 (8.2)	17 (4.4)	33 (8.5)	16 (4.1)	9 (2.3)	16 (4.1)	3 (0.8)	126 (32.3)	
학 력	초졸 이하	16 (4.1)	6 (1.5)	13 (3.3)	10 (2.6)	4 (1.0)	14 (3.6)	2 (0.5)	65 (16.7)	$\chi^2=21.440$ df=18
	중졸	25 (6.4)	21 (5.4)	37 (9.5)	10 (2.6)	8 (2.1)	12 (3.1)	0 (0)	113 (29.0)	
	고졸	37 (9.5)	32 (8.2)	55 (14.1)	17 (4.4)	8 (2.1)	13 (3.3)	2 (0.5)	164 (42.1)	
	대졸 이상	8 (2.1)	8 (2.1)	16 (4.1)	6 (1.5)	3 (0.8)	7 (1.8)	0 (0)	48 (12.3)	
거 주 지 역	제주시 동지역	27 (6.9)	37 (9.5)	51 (13.1)	27 (6.9)	11 (2.8)	20 (5.1)	3 (0.8)	176 (45.1)	$\chi^2=44.460$ *** df=18
	서귀포시 동지역	16 (4.1)	6 (1.5)	24 (6.2)	5 (1.3)	4 (1.0)	10 (2.6)	0 (0)	65 (16.7)	
	제주시 읍면 지역	26 (6.7)	8 (2.1)	12 (3.1)	0 (0)	1 (0.3)	9 (2.3)	1 (0.3)	57 (14.6)	
	서귀포시 읍면 지역	17 (4.4)	16 (4.1)	34 (8.7)	11 (2.8)	7 (1.8)	7 (1.8)	0 (0)	92 (23.6)	

〈표 V-29〉 인구학적 변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활동의 활성화 방안(계속)

(단위: 명, %)

변 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통계치
		노인여가문화활동 분야에 예산 증액	노인여가문화활동 분야 의 전문 인력 양성	노인여가문화활동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인여가문화활동을 위한 전문시설 확충	현재의 노인여가문화 시설에 대한 개보수	노인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적극 홍보 강화	기타	합계	
건강상태	좋지 않다	23 (5.9)	15 (3.8)	33 (8.5)	11 (2.8)	7 (1.8)	26 (6.7)	1 (0.3)	116 (29.7)	$\chi^2=36.252$ *** df=12
	보통	51 (13.1)	30 (7.7)	48 (12.3)	17 (4.4)	10 (2.6)	16 (4.1)	3 (0.8)	175 (44.9)	
	좋다	12 (3.1)	22 (5.6)	40 (10.3)	15 (3.8)	6 (1.5)	4 (1.0)	0 (0)	99 (25.4)	
평균생활비	100만원 미만	48 (12.7)	36 (9.5)	59 (15.6)	19 (5.0)	19 (5.0)	25 (6.6)	3 (0.8)	209 (55.1)	$\chi^2=23.736$ df=12
	100 ~ 200만원 미만	24 (6.3)	21 (5.5)	26 (6.9)	15 (4.0)	1 (0.3)	13 (3.4)	1 (0.3)	101 (26.6)	
	200만원 이상	10 (2.6)	9 (2.4)	34 (9.0)	7 (1.8)	3 (0.8)	6 (1.6)	0 (0)	69 (18.2)	
생활수준	하	18 (4.6)	13 (3.3)	18 (4.6)	10 (2.6)	5 (1.3)	14 (3.6)	0 (0)	78 (20.0)	$\chi^2=13.039^*$ df=12
	중	54 (13.8)	32 (8.2)	69 (17.7)	24 (6.2)	13 (3.3)	23 (5.9)	3 (0.8)	218 (55.9)	
	상	14 (3.6)	22 (5.6)	34 (8.7)	9 (2.3)	5 (1.3)	9 (2.3)	1 (0.3)	94 (24.1)	

유의수준 : *p<.05 ***p<.001

○ 노인들의 거주지역(p=.001), 건강상태(p=.001), 그리고 생활수준(p=.05)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과 각각 .001 그리고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노인 거주지역인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활동 활성화 방안

(예산증액,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시설 확충, 기존 시설 개보수, 적극 홍보 강화)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성을 보여주고 있음. 다시 말해서 제주시 지역(동,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서귀포시 (동,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함.

-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예산 증액,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시설 확충, 기존 시설 개보수, 적극 홍보 강화)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성을 보여주고 있음. 다시 말해서,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 보다 지자체의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함. 이는 건강한 노인들이 그렇지 못한 노인들 보다 평소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도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함.
 - 노인들의 생활수준(상, 중, 하)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예산증액,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시설 확충, 기존 시설 개보수, 적극 홍보 강화)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성을 보여주고 있음.
 - 다시 말해서, 생활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노인들은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에 예산증액, 노인여가문화 활동을 위한 전문시설 확충,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적극 홍보 강화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반면에,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하는 노인들은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운영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더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함.
- 제주지역에서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거주 노인,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노인)들 보다 상대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노

인여가활동의 활성화에 대하여 더 적극적 인식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 그렇지만 노인들의 생활수준 정도에 따라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 활동 활성화 방안의 내용별로 차이성을 보이고 있음.
- 생활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인력 양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운영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것 같음.
- 다른 한편으로, 생활수준이 낮은 노인들은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증액, 전문시설 확충, 적극적 홍보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4) 인구학적 요인과 지자체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효과 증대

- <표 V-30>에 따르면, 인구학적 변인들 가운데 노인들의 거주지역과 건강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성별, 연령, 학력, 평균 생활비, 생활수준)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함.
-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효과 증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남성과 여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성이 없음. 즉 성별에 따라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효과 증대 방안이 달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임.
- 연령층에 따라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시 말해서 예비노인층, 중기노인층, 그리고 후기노인층 간에 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효과 증대 방안 간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됨.
- 노인들의 학력수준과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함. 다시 말해서, 노인들의 학력수준과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들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됨.
- 노인들의 평균 생활비 규모는 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다시 말해서, 노인들의 생활비가 여가문화 정책 증대 방안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조사대상 노인들의 학력수준과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과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다시 말해서, 노인들의 학력수준이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표 V-30> 인구학적 변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

(단위: 명, %)

변 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							통 계 치
		노인여가문화 정책 사업의 다양화	노인여가문화 정책 사업비 의 대폭 증액	노인여가 문화 정책 담당공무 원의 전문성 강화	노인여가 문화 정책 관련 민간기관 과의 네트워크 강화	노인여가 문화 정책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기타	합계	
성 별	남성	67 (17.5)	50 (13.1)	38 (9.9)	24 (6.3)	2 (0.5)	3 (0.8)	184 (48.0)	$\chi^2=8.620$ df=5
	여성	89 (23.2)	55 (14.4)	34 (8.9)	14 (3.7)	6 (1.6)	1 (0.3)	199 (52.0)	
연 령	60세~ 64세	37 (9.7)	27 (7.0)	18 (4.7)	11 (2.9)	3 (0.8)	0 (0)	96 (25.1)	$\chi^2=15.804$ df=10
	65세~ 74세	74 (19.3)	37 (9.7)	32 (8.4)	19 (5.0)	3 (0.8)	0 (0)	165 (43.1)	
	75세 이상	45 (11.7)	41 (10.7)	22 (5.7)	8 (2.1)	2 (0.5)	4 (1.0)	122 (31.9)	
학 력	초졸 이하	34 (8.9)	20 (5.2)	8 (2.1)	0 (0)	1 (0.3)	1 (0.3)	64 (16.7)	$\chi^2=23.535$ df=15
	중졸	49 (12.8)	31 (8.1)	20 (5.2)	8 (2.1)	1 (0.3)	0 (0)	109 (28.5)	
	고졸	57 (14.9)	40 (10.4)	35 (9.1)	22 (5.7)	5 (1.3)	3 (0.8)	162 (42.3)	
	대졸 이상	16 (4.2)	14 (3.7)	9 (2.3)	8 (2.1)	1 (0.3)	0 (0)	48 (12.5)	
거 주 지 역	제주시 동지역	91 (23.8)	32 (8.4)	28 (7.3)	18 (4.7)	4 (1.0)	2 (0.5)	175 (45.7)	$\chi^2=41.223$ *** df=15
	서귀포시 동지역	18 (4.7)	18 (4.7)	16 (4.2)	10 (2.6)	1 (0.3)	0 (0)	63 (16.4)	
	제주시 읍면지역	24 (6.3)	20 (5.2)	5 (1.3)	2 (0.5)	1 (0.3)	2 (0.5)	54 (14.1)	
	서귀포시 읍면지역	23 (6.0)	35 (9.1)	23 (6.0)	8 (2.1)	2 (0.5)	0 (0)	91 (23.8)	

〈표 V-30. 계속〉 인구학적 변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

(단위: 명, %)

변 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							통계치
		노인여가문화 정책사업의 다양화	노인여가문화 정책사업비의 대폭 증액	노인여가문화 정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노인여가문화 정책 관련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노인여가문화 정책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기타	합계	
건강상태	좋지 않다	58 (15.1)	31 (8.1)	17 (4.4)	6 (1.6)	1 (0.3)	1 (0.3)	114 (29.8)	$\chi^2=18.716^*$ df=10
	보통	67 (17.5)	49 (12.8)	27 (7.0)	21 (5.5)	4 (1.0)	3 (0.8)	171 (44.6)	
	좋다	31 (8.1)	25 (6.5)	28 (7.3)	11 (2.9)	3 (0.8)	0 (0)	98 (25.6)	
평균생활비	100만원 미만	90 (24.2)	56 (15.1)	38 (10.2)	14 (3.8)	4 (1.1)	2 (0.5)	204 (54.8)	$\chi^2=9.414$ df=10
	100 ~ 200만원 미만	40 (10.8)	27 (7.3)	19 (5.1)	11 (3.0)	1 (0.3)	1 (0.3)	99 (26.6)	
	200만원 이상	21 (5.6)	20 (5.4)	13 (3.5)	11 (3.0)	3 (0.8)	1 (0.3)	69 (18.5)	
생활수준	하	34 (8.9)	21 (5.5)	16 (4.2)	5 (1.3)	1 (0.3)	0 (0)	77 (20.1)	$\chi^2=8.897$ df=10
	중	81 (21.1)	60 (15.7)	36 (9.4)	28 (7.3)	4 (1.0)	3 (0.8)	212 (55.4)	
	상	41 (10.7)	24 (6.3)	20 (5.2)	5 (1.3)	3 (0.8)	1 (0.3)	94 (24.5)	

유의수준 : *p<.05 ***p<.001

○ 노인들의 거주지역(p=.001)과 건강상태(p=.05)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 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과 각각 .001 그리고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노인 거주지역인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정책사업의 다양화, 사업비의 대폭 증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T/F팀 구성 및 운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성을 보여주고 있음.

- 다시 말해서 제주시 지역(동,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서귀포시 (동,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 가운데 정책사업의 다양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민간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 T/F팀 구성 및 운영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함.

- 반면에 서귀포시 지역(동,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제주시(동,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 가운데 노인여가문화정책 사업비의 대폭 증액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함.
-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정책사업의 다양화, 사업비의 대폭 증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민간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 T/F팀 구성 및 운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성을 보여주고 있음.
- 다시 말해서,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민간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 T/F팀 구성 및 운영)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함.
- 다른 한편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 가운데 노인여가문화 정책사업의 다양화와 사업비의 대폭 증액에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3. 빈도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주요 시사점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전체 조사대상 노인(406명) 가운데 예비노인(60~64세)은 23.9%(97명), 중기 노인(65세~74세)은 42.3%(172명), 그리고 후기노인(75세 이상)은 33.7%(137명)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 노인층을 구성하는 노인층 범주별로 노인여가문화 정책 발굴과 대응과제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1/3 이상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하였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11.9%(48명)이고,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도 47.1%(191명)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제주지역이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에서는 고학력 수준의 노인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고학력 노인층의 특성에 따른 노인여가문화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제주지역이 앞으로 도시화가 더욱 확산되어 제주시 혹은 서귀포시 동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인구(60.8%, 248명)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과 읍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성이 요구됨.
- 조사응답 노인들 가운데 거의 1/3 정도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정책적 배려를 둘 필요가 있음.
- 조사응답 노인들이 거의 1/3 정도가 홀로 살고, 아울러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들 가운데 부부 가운데 한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독거노인 가구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판단함.
- 그러므로 독거노인들이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노인여가문화 활동 유형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됨.
- 조사응답 노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농·수·축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 1차 산업에 종사하였던 노인들에 대한 가치, 행동 및 생활양식 등을 잘 이해하여 여가문화 활동 참여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조사대상 노인의 월 평균 생활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1.3% (240명)

을 차지하여 절반 이상의 노인들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노인의 생활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노인들이 19.5% (79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적극 고려해 나가야 할 것임.
-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층들에게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나. 여가와 일상생활

-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1/3 이상이 낮에 발일이나 취업현장에서 노동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혹은 저녁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 조사응답 노인들이 ‘여가’ 활동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남는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는 일’ 혹은 ‘남는 시간에 노는 일’로 구분되고 있음. 따라서 그러한 ‘여가’ 활동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노인의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과 실천 방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더구나 여가 개념에 대한 조사 응답 노인들의 인식이 ‘활동적’ 인식 보다는 ‘잔여시간’의 의미로 인식되는 경향이 큼.
 - 여전히 여가활동에 대해 ‘남는 시간’ 동안 놀거나 보람있게 보내는 일로 인식하고 있음(67.8%)
 -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의 관람이나 참여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약 22%에 지나지 않음.
- 여가에 대해 구체적인 활동과 연계하거나 다양한 경험과 결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됨.
 - 다양한 활동에 대한 체험과 지속적인 활동참여를 통해 여가에 대한

구체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응답자들은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선 사항’ 등의 응답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50% 가량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고 분석됨.
- ‘TV 시청’을 구체적 여가활동으로 인식하여 직접 참여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사실 ‘TV 시청’은 노인들에게 남는 시간을 보내는 일임에 틀림없으나 ‘보람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보다 보람있으면서 흥미있게 놀 수 있는 여가활동 유형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노인들이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시설들은 경로당(22.0%), 노인복지관(17.5%), 체육공원 (혹은 주위 시민공원 17.4%), 주민자치센터(11.3%), 노인대학(10.8%) 등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이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데 적절한 공간적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평가 결과에 따라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보수 혹은 리모델링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대학을 통한 여가활동 참여가 확대될 필요 있음.
 - 현재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의 경우 27.3%가 이와 같은 노인여가시설을 통해 참여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대학 등 노인여가시설에서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 참여와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 활동을 지속시키도록 하기 위해 동호회나 클럽 운영을 지원하거나 멘토 등과 연계시켜 나가는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 국민체육시설이나 체육공원 이용 노인들을 위한 특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 국민체육시설이나 체육공원의 이용 경험이 높은 편이나, 이러한 시설에서는 노인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 대부분임.

- 희망하는 여가프로그램에서 운동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체육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함.
- 조사대상 노인들이 여가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에서 이용한 가장 인상 깊었던 좋은 프로그램 유형이 주로 건강관리와 운동하기(41.6%, 122명), 그리고 노래교실, 노인대학 참여, 댄스스포츠 등으로 나타남.
- 여가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의 공간 활용도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및 선택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수요자 맞춤형 노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되어져야 할 것임.
- 또한 기존에 공간에서 운영되는 노인여가문화 활동 관련 프로그램 (특히 건강, 운동, 노래교실, 교육 등)들은 질적 개선이 요구됨.
-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대다수 노인들은 현재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82.7%, 330명)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용자 부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힘들 것임.
- 노인들의 경제사정과 상관없이 여가활동과 관련된 경제적인 지출은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
- 실제 프로그램 참여 비용 지불 의사에 대해서 약 83%의 응답자들이 지불의사가 없음을 밝힘.
- 따라서 향후 특화된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이용자 부담도 고려해 나가야 할 것임.
-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매달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비로 지불하는 경우(17.3%, 69명)에 절반 정도는 1만원~5만원 미만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심지어는 20만원 이상 비용을 지불하는 노인도 14.5%(10명) 차지함.
- 특히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노인층과 노후준비를 어느 정도 한 베이비붐 예비노인층에게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수 있음. 아직까지 현 단계에서 노인들에게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임.

- 조사응답 노인들 가운데 거의 절반(49.9%, 182명) 가까운 노인들은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노인여가문화 활동을 운영하는 주체(기관, 단체 등)들은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수요자의 욕구에 맞추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현재 동호회(친목회, 산악회 등) 혹은 클럽활동(스포츠 활동 조직 등)에 참여하는 노인은 전체 조사대상 노인 가운데 29.1%(116명)를 차지하고 있음.
- 노인들의 동호회나 클럽 활동 참여가 저조한 편임.
 - 참여하는 노인들의 대부분도 친목회나 종교활동 참여가 많고, 실제 여가활동을 위한 동호회나 클럽 활동은 적은 편임.
 - 참여 동호회도 산악회나 스포츠 활동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나 클럽 활동 등을 적극 개발하여 노인들의 지속적인 여가활동 참여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노인여가시설을 기점으로 동호회 활동이나 클럽 활동 활성화의 필요성 있음
 -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대학 등 노인여가시설에서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 참여와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 활동을 지속시키도록 동호회나 클럽 운영을 지원하거나 멘토 등과 연계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다. 여가경력

- 조사대상 노인들이 과거에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여가문화생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스포츠, 여행 및 관광, 컴퓨터

배우기, 노래교실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들이 개설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물론 행정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들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
- 전체 응답 노인들 가운데 1/3 정도가 향후 꼭 참여하고 싶은 여가문화 프로그램들에 대해 대개 운동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한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리고 레저생활을 즐기는 여행·관광·등산·낚시 등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현실적으로 희망하는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보면 정보와 시간의 부재, 좋지 않은 건강상태, 그리고 희망 강좌의 부재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음.
- 따라서 개인적 차원보다 정책적 차원에서 여가문화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예,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이 노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과 희망 프로그램 개설에 더욱 관심과 실천을 보여야 할 것임.
- 조사응답 노인들 가운데 거의 1/3 정도(29.8%, 117명)의 노인들은 봉사활동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고, 그리고 절반 이상의 노인들이 자연환경, 종교 등과 관련된 분야의 봉사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노인여가문화 활동 영역들 가운데 노인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는 중요하기 때문에 (가칭)제주특별자치도노인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확산과 지원체제를 갖추는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에서 앞으로 노인여가문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 이용의 접근성과 좋은 여가활동 시설 설치(36.8%, 141명),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28.2%, 108명), 저렴한 여가활동 참

가비(25.3%, 97명) 등이 필요함.

- 노인의 건강과 이동성의 제한 등을 고려해 여가시설의 위치와 접근성의 문제도 제고되어야 함.
 - 향후 여가문화 활동의 지속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이용 접근성이 좋은 여가시설 위치’를 가장 많이 응답함(36.8%).
 - 노인의 지속적인 여가활동을 위해 생활권 내 여가문화시설이 이용자의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할 것임.

라. 여가문화 정책

- 조사대상 노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질적 변화를 위한 영역에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있어 조사대상 노인들은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1%, 121), 예산증액(22.1%, 86명), 전문인력 양성(17.2%, 67명), 홍보강화(11.8%, 46명), 전문시설 확충(11.0%, 43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여가인식에서부터 여가활동 참여실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가 많은 노인들을 이끌어주고 지원해 줄 노인여가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매우 필요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노인여가문화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산증액, 전문인력 양성, 홍보, 여가문화 활동 전문시설 확충 등 분야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단·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조사대상 대다수 노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정책이 실

효성을 달성하려면 우선 노인여가문화 정책사업의 다양화(40.7%, 156명), 예산지원의 확충(27.4%, 105명), 그리고 노인여가문화 정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18.8%, 72명),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9.9%, 38명) 등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4. 교차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주요 시사점

가. 인구학적 요인과 지속적 여가문화 활동에 필요사항

- 학력수준($p=.05$)과 거주지역($p=.01$)이 노인들의 지속적 여가문화 활동의 필요사항과 각각 0.05와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음.
- 학력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지속적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필요한 사항(저렴한 이용비용,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 이용접근성 좋은 여가시설 위치, 훌륭한 강사 확보)들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제주시 동지역·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서귀포시 동지역·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노인여가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저렴한 이용비용,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 이용접근성 좋은 여가시설 위치, 훌륭한 강사 확보)들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나. 인구학적 요인과 지자체의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 조사대상 노인들의 거주지역($p=.01$)과 건강상태($p=.05$)가 지자체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지원 정도와 각각 .01과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서귀포시 지역(동, 읍면)이 제주시 지역(동, 읍면)보다 제주특별자치도로 부터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에 대하여 덜 충분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서귀포시 지역(동, 읍면)은 대체로 농업·농촌지역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노인여가문화에 대하여 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이 먼저 농촌노동력의 급속한 고령화와 농촌문화를 고려하여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에 정책적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정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건강한 노인들이 그렇지 못한 노인들 보다 평소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가 높아서 행정적 지원 정도에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해 나가는데 우선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서귀포시 지역(동, 읍면)은 제주시(특히 동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화격차를 가지고 있다(문순덕·강세현, 2015)는 측면을 감안할 때 노인여가문화 활동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상대적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제주지역의 지역 간 (특히 산북·산남) 문화격차 관점에서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문제도 접근하고 해결 방안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다. 인구학적 요인과 지자체의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

- 조사대상 노인들의 거주지역($p=.001$), 건강상태($p=.001$), 그리고 생활수준($p=.05$)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과 각각 .001 그리고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노인 거주지역인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활동 활성화 방안 (예산증액, 전문인력양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시설 확충,

기존 시설 개보수, 적극 홍보 강화)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성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제주시 지역(동,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서귀포시 (동,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활동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귀포시 지역(동, 읍면)에 대한 노인여가문화 활동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 보다 지자체의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질적 운영을 통해서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생활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노인들은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에 예산증액, 노인여가문화 활동을 위한 전문시설 확충,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적극 홍보 강화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반면에,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하는 노인들은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운영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더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함.

라. 인구학적 요인과 지자체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효과 증대

- 조사대상 노인들의 거주지역($p=.001$)과 건강상태($p=.05$)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과 각각 .001 그리고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노인 거주지역인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정책사업의 다양화, 사업비의 대폭 증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T/F팀 구성 및 운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성을 보여주고 있음.

- 제주시 지역(동,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서귀포시 (동,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 가운데 정책사업의 다양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T/F팀 구성 및 운영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함.
 - 반면에 서귀포시 지역(동,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제주시 (동,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 가운데 노인여가문화정책 사업비의 대폭 증액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함.
-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정책사업의 다양화, 사업비의 대폭 증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T/F팀 구성 및 운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성을 보여주고 있음.
-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 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T/F팀 구성 및 운영)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함.
 - 다른 한편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 가운데 노인여가문화 정책사업의 다양화와 사업비의 대폭 증액에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거주지역, 건강상태에 따른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선택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할 것임.

Ⅵ. 제주지역 노인여가문화의 정책 방향과 대응과제

- 우리나라는 2016년에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을 수립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평균수명이 더 연장되어 100세 시대를 맞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은퇴 후 노인들이 활력있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여가문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그런 맥락에서 최근 정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공포(2015. 5. 18)하여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고령사회 대응정책과 연계하여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2016-2020」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주지역은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621,550명)의 13.3%(82,597명)를 차지하여 2015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제주지역은 타 시·도 보다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사회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과제들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장에서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미션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노인복지 정책의 제고를 위해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향후 정책적 대응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1. 정책방향

○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획기적 변화와 질적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노인여가문화 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 연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주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정책 사업 발굴과 정책추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
- 특히 노인들의 여가문화 활동 지원, 그리고 관련된 정책사업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의존하여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 노인여가문화 정책은 노인복지 정책 가운데서 후순위로 수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향후 다른 노인복지정책 영역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여가활성화 정책의 내실화

- 국가 차원에서 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우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여가활성화 정책이 실제로 노인여가문화 생활의 질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내실화 필요

○ 노인의 소득보장 및 노인고용정책의 활성화

- 노인여가문화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려면 개인적 비용 부담 완화, 시간적 여유, 그리고 경제적 생활의 안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함.
-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는 노후생활의 안정화와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보장에 대한 근본적 정책 변화를 고려함.
-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 및 고용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함.

○ 노인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 강화

-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려면 참여 의향이 있는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노인보건의료 정책과 연계하여 노인 여가문화 정책의 내실화를 기함.

- 지역사회 기반에 의한 노인여가문화 환경 조성
 -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 노인여가복지시설 혹은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기관(혹은 단체)의 적극 홍보가 필요함.
-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지역사회에서 노인여가문화 활동과 지원이 활발히 전개되려면 지역 사회의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
 - 지역사회로부터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강화하는데 레크레이션 단체, 음악·연극·영화 등 관련 단체, 노인여가복지시설(복지관, 경로당, 노인회 등), 대학, 평생교육원, 행정 등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
- 복지사각 지대의 노인층에 대한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체계 구축
 - 법적·제도적 규정 때문에 사회적 부양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 노인층의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에 사회적 관심이 요구됨.
- 노인여가문화의 선진화 환경 조성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여가문화 활동지원 프로그램들을 보다 질적으로 개선함.
 -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단순한 참여자’ 역할에서 지역 사회 변화의 촉매자(community change agency) 역할로 전환이 필요함.
 - 노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지역 재생 및 활력)에 기여함.

2. 추진전략

- 노인여가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로드맵 수립
 - 제주지역 거주 노인들이 퇴직 후 여가문화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지

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본 로드맵 수립 필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전략

- 노인세대의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거주지역, 경제생활 수준, 경력, 계속고용 유무 등)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 필요

○ 노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화 전략 모색

-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에서 살아가는 상황에서 노인층을 보다 세분화하여 그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고승한 · 이소정, 2014).
-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려면 노후생활 소득보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내실화 필요
- 60세~64세 예비노인층은 자립생활 할 수 있는 여건조성하고, 65세~74세 중기노인층은 자립과 지원 중심, 그리고 75세 이상 후기노인층은 지원 중심으로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 구축 필요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전략과 연계

- 퇴직한 노인들을 일자리와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취업기회 제공
-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유지를 위한 노인고용 촉진
-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노인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경제생활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에 적극적 참여 유도 필요
- 노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내실화

○ 다른 노인복지정책 사업이나 프로그램과의 통합적 접근 및 연계 전략 구축

-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내실화를 기하려면 노인소득보장, 노인고용, 노인주거, 노인보건의료, 노인교육 등 연계 필요

○ 지역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략

- 제주노인들의 여가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민과 지역사회의 배려와 협력 필요
 - 지역사회의 민간단체 혹은 기관(각종 자생단체, 문화예술단체,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등)들이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재능기부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노인에 대한 배려·존중의 사회적 의식 고취
-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 체제 구축
- 법적·제도적 규정 때문에 기초생활 유지가 힘든 차상위계층 혹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 대한 긴급지원체제 구축 마련 필요
-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전략
- 최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공포(2015. 5. 18)되었기 때문에 정부 관계 부처가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정책사업들을 추진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상위 법률에 의한 후속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 2016-2020」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담당부서는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의 여가문화 담당 부서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고령친화도시 조성과의 연계 전략
-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외부건물, 교통, 고용, 교육, 사회통합, 의사소통, 여가 등)에서 새로운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고승한·임병우, 2011).

-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살기 편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 변화와 정책적 실천이 동반됨.
- 그러한 정책적 노력을 실천하는 계기가 바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할 필요가 있음.

3. 향후 정책 대응과제

- 제주지역이 고령사회 도래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분야 가운데 노인여가복지 정책도 중요하게 성찰해 나가야 할 것임. 제주지역에서 노인여가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나름대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고령사회에서 제주 노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노인여가문화 관련 국내외 사례, 설문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연구진 아이디어 등을 종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검토하여 실천해 나갈 노인여가문화정책의 대응과제를 제시할 것임.

가. 중앙정부 수준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대응과제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적극적 활용

-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 대비하여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기획·집행 및 평가제도 마련
-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까지 노인여가문화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함.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노인층 대상 문화향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노인복지관 대상 장르별(음악, 연극 등 5개 분야)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어르신 문화예술축제 개최, 노인 선호 종목(게이트볼 등) 강습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2) ‘문화복지’ 체계 속에서 노인여가문화 정책 구현

- 노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가 있는 노인의 삶’을 영위하는데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하여 노인문화복지 정책 사업들을 공동 발굴 및 추진이 절실히 필요함.
-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운영, 노인대학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하여 노인여가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외계층 대상으로 문화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 목표를 세워 문화복지를 개선하는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64%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카드를 발급·지원하고 있음.
- 중앙 정부의 관계 부처(특히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하여 노인여가문화 정책을 노인여가복지와 문화복지의 융합적 모델로 접근하여 정책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후생활 안정화¹⁷⁾

-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은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정책 사안임. 우수한 노인여가문화 정책사업들을 발굴하더라

17) 노후생활 안정화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제언 부분은 고승한·이소정(2014:172-177)의 연구내용을 재정리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혀둠.

도 수혜계층인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이 불안정하면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기가 힘들어질 것임. 노인에게 있어 경제적 생활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함.

○ 노후생활 안정화에 자영업의 지속성 및 창업지원 강화

-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 및 경영과 관련한 인큐베이터 운영’을 통해 자영업 안정성 유지와 성공적인 창업 지원 및 지속적 컨설팅 시행이 필요함.
- 창업하는 예비노인(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경영 위기관리를 지원하며, 기존의 자영업자가 직업전환을 할 경우 취업지원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예비노인층(전기 노년층)들이 퇴직 후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 등을 설립하거나 혹은 여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석, 창업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함.

○ 「노후준비지원법」의 실천

- 현재 빈곤한 노인의 탈빈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노인세대가 노년기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그런 맥락에서 노년기의 공적 혹은 사적 소득보장도 중요하지만 퇴직(은퇴) 전에 노후준비 설계와 교육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지난 3년간 준비 끝에 2015년 5월 28일 국회에서 「노후준비지원법」이 통과되었음.

○ 정년연장 유예기간에서 점진적인 퇴직제도 확대

- 우리나라의 정년은 ‘정년연장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해 2016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 대상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임.
-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

체로 적용하게 됨. 다만, 공공 부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90% 이상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대다수는 정년연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함. 따라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진적인 퇴직 제도의 보완이 요구됨.

4)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내실화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통합

- 노인일자리 창출에 의한 노후생활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향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후소득보장과 연계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일하고 싶은 중산층 노인들에게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야 함.
- 노인친화형 직종을 개발하고, 또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배치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노인들의 생계비(생활비)와 용돈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용노인의 임금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체(기업)의 노인고용 직종에 노인고용 의무 할당제 시행이 필요함. 우선 공공기관에 노인고용 의무할당제를 도입하여 시범 실시 후 일반 사업체(기업)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5) 복지사각 지대의 노인층에 대한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혹은 기초연금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빈곤생활을 하는 노인들에 대한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자가 소유의 주택 혹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 자가 소유의 주택에 살지만 부양가족이 실제로 없어(행방불명, 별거 등) 빈곤생활의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지사각 지대의 노인들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발급을 하여 실제로 빈곤노인들에게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대응과제

1)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마련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제7조에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가문화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는데, 계획 내용 중에 노인을 위한 특화된 시행계획을 포함해야 할 것임.
- 노인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연구와 시책 마련이 필요함.
-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는 법률 조항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음.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실제로 노인들의 여가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노인여가문화 활동 활성화 관련 연구·조사의 정례화

○ ‘제주노인의 여가문화실태와 선호도 조사’의 정례화

- 제주지역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문화 욕구와 선호도, 그리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 제주노인의 여가문화정책 활성화 로드맵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3) 노인여가문화 활동 통한 새로운 노인상 정립과 인식 고취

○ 여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새로운 캠페인 확산

- 여가문화활동의 부정적 인식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려는 사회적 캠페인을 전개함.
- 여가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개인적인 삶이 행복해진다는 메시지 전달과 지속적 홍보를 추진함.
- 언론·방송이나 기관(단체)의 홍보, 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함.

○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른 뉴시니어(New Senior)로서 제주노인의 모델 발굴

- 기존의 시설 제공 노인 여가프로그램은 노인들을 수동적혜택자로서 보는 경향이 강함.
-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환류효과 및 적극적 사회적 참여가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함.
- 노인이 사회적 소외계층이 아닌 적극적 참여계층이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함.

○ 제주노인 ‘재능나눔봉사단’ 발족과 적극적 활동 지원

- 제주노인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한

‘재능나눔봉사단’을 발족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함.

- (가칭)제주특별자치도노인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재능나눔봉사단’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노인여가시설을 중심으로 ‘재능나눔봉사단’을 구성하거나 활동을 하여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함.

○ 기관(단체) 내 어르신 보조교사 참여제 실시

- 여가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중 선발하여 일정기간 재교육을 통해 기관(단체)의 여가문화프로그램에 재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노인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함.

4)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지속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개선

○ 제주도내 활동 중인 동호회나 클럽의 (가칭)제주노인동호회한마음대회 개최

- 노인들의 여가문화활동을 새로이 진입하도록 도와주고, 현재 활동 중인 여가문화활동을 지속하도록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대회를 개최함.

○ 제주도내 어르신 여가문화달인 발굴

- 노인들의 예술, 문화, 스포츠 등 여가문화 활동과 관련된 재능 우수자를 발굴함.
- 지역 내 학교의 창의교육이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 과정에 이들 노인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새로운 여가문화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

- 제주도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진행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중 우수하거나 창의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이를 다른 기관에도 보급·확산해 나감.

○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설계 및 실시

-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매개인력이나 숲해설사 등 새로운 여가문화 경력 개발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함.
-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 지역문화 전문인력, 매개인력, 창조인력 등 새로운 지역일꾼 개발 프로그램에 노인들의 인력 참여에 대한 내용을 고려함.

○ 도내 대학에서 노인여가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대학이 함께 새로운 여가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공동 노력이 필요함.
- 양성된 인력에 대해 지역 내 노인여가문화시설에 인턴쉽 과정으로 참여함.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혹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의 지원을 받아 위탁 운영되는 노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들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들의 학력, 거주지역, 건강상태, 경제적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임.
- 제주지역의 각 읍면동별 마을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격차가 있는데, 각 마을이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읍면동 마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운영은 앞으로 (가칭)제주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¹⁸⁾
- 제주지역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제주에서 운영되는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들은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상당히 치우쳐 있음. 따라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설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올레걷기, 자연환경, 문화유산, 관광, 농업 등 분야의 해설사를

18) 제주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2009)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발의 하에 현재 도민의견 수렴 중에 있음.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전문인력 충원

-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는 기관들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 노인교실, 각종 민간단체 등임. 특히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주로 맡아서 하고 있음.
- 현재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단체) 노인복지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노인회, 민간단체 등의 담당인력으로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양질의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힘써 나가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예산지원도 동시에 확충되어야 할 것임.

5)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제주노인의 탈빈곤 문제의 종합적 대책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빈곤노인에 대한 정기적 종합실태 조사를 실시함.
- 제주지역의 빈곤노인 실태 DB를 구축함.
-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제주노인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내 노인빈곤대책 수립을 위한 T/F 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종합대책 보고서 작성이 필요함.

○ 노후생활지원 관련 조례 제정 추진

- 정부 차원에서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되어 2015년 5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
 -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과 관련해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서 실제로 10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생활지원에 미흡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주지역 노인복지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 증진 제고가 필요함.
-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민간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 행정기관,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도내 대학, 민간직업훈련기관, 평생 교육 및 사회교육기관 등과 네트워크 협력 강화가 필요함.
 -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과 연계성 강화
 - 노후생활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 정책만으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없음.
 - 노후생활의 안정화는 다른 노인복지정책(주거복지, 보건의료복지, 여가 복지, 교육복지, 가족복지 등)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및 고용정책과 상호 연계성 확보에 의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보다 통합적 접근에서 노인복지정책과 일자리 및 고용정책과의 통합화·종합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익재단법인 형태의 (가칭) 제주노인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함. 현재의 시니어 클럽 지원·운영을 공익재단법인 형태로 개편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6) 복지사각 지대의 빈곤노인에 대한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기회 제공

○ 빈곤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 기초생활보장수급 혹은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된 빈곤노인에 대한 노인여가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함.
- 복지사각 지대의 빈곤 노인층 DB에 근거하여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이 필요함.
- 빈곤노인 대상의 노인여가 활동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노인여가 프로그램’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

○ 제주노인을 위한 ‘어르신 하나로 카드’ 발급

- 노인들이 문화, 여가, 여행은 물론 의료나 교육 및 은행서비스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카드를 발급함.
- 호주의 컨세션카드, 영국의 예술택시 등의 서비스 제공이 사례임.
- 문화공연 관람, 체육시설 이용시 할인, 모든 시설을 하나의 ID 카드 발급으로 이용가능,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하기 어렵거나 거리가 멀어 접근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 교통서비스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 노인여가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혹은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함.
- 도내 문화예술단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 민간 자원봉사단체, 마을회, 주민자치센터, 청소년단체, 평생교육원 등이 협력하여 노인여가활동에 관심을 가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 노인여가문화 활동이 지역사회 활력과 재생에 기여

- 노인여가문화 활동이 참여 노인에게 개인적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 사회의 변화와 연계 강화가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 추진되는 노인여가문화 활동이 지역주민과의 소통, 지역 사회의 활기 찾기, 젊은 세대와의 통합 증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 및 집행이 필요함.
- 읍면동 지역별로 노인들 스스로 (가칭)노인문화마당놀이패를 자발적으로 만들어 노인 혹은 지역주민(특히 청소년 등)에게 즐거움을 주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사회 변화에도 기여함.
- 노인여가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 제주지역 내 언론 방송매체들이 고령사회 대응뿐만 아니라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필요함.

8) 노인 개인의 여가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강화

- 노인 스스로 은퇴 전·후에도 노후준비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함. 특히 노인여가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이 필요함.
- 노후설계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에 적극 참여 필요
 - 노후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적극 관심 및 방문
 -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노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선택이 바람직함.
- 노인들 자신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복지 및 여가문화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 노인층 유형(예비, 중기, 후기)에 따른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및 정책 관련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차이성을 보여주지 못하였음. 따라서 아직까지 연령에 의한 노인층 유형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스스로 제주특별자치도 혹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제공하는 각종 노인여가복지 및 여가문화정책 사업(예,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 등)에 대한 문의 및 이해가 필요함.

- 노인 스스로 자신의 입장에서 지원받거나 참여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 입수 및 교류가 필요함.
- 특히 노인여가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조직)에 대한 정보 획득 및 방문 노력이 필요함.
-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주변에 노인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민간기관(단체) 방문하기. 예, 읍면동 마을별 경로당, 주민자치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사회종합 복지관, 노인회(노인대학, 노인대학원), 경로당광역지원센터, 평생학습 센터, 평생교육진흥원, 도내 대학의 평생교육 등이 있음.

다. 주체별·시기별 추진방안

- 본 연구에서는 제주가 고령사회 도래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대응 과제를 제시함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예산범위, 제도의 구조적 특성, 인식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추진주체를 선정하고, 적정 추진시기를 단계별로 설정하였음(표 VI-1. 참고).¹⁹⁾
- 추진주체의 설정은 중앙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노인 개인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음.
- 추진시기는 단기, 중·장기 등 2단계로 구분하여 향후 5년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추진시기 구분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화(특히 대통령과 도지사의 변화 등)를 고려하여, 단기는 2016~2017년, 중·장기는 2016~2020년까지 혹은 2021년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함.

19) <표 VI-1>은 본 연구의 정책과제별 주요사업 유형과 추진주체, 그리고 추진시기를 고려하여 연구자의 직관적 성찰에 의해서 정리·작성되었음을 밝혀둠.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에 따른 단기사업은 주로 단기간에 조속히 추진해야 할 유형이고, 중·장기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 사회적 합의, 그리고 재정지원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분류됨.
- 향후 단기와 중·장기 정책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추진 주체와 추진 시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배제하지 못함.

〈표 VI-1〉 노인여가문화 정책 활성화의 대응과제 실천 주체별·시기별 추진일정(안)

구 분	주요 사업	추진주체	추진시기	
			단기	중·장기
중앙정부 수준의 노인여가문 화 정책 지원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적극적 활용	중앙정부		
	- 노인여가문화 정책의 기획·집행 및 평가제도 도입	〃		
	• ‘문화복지’체계 속에서 노인여가문화 정책 구현	중앙정부		
	- 노인여가복지 및 노인여가문화 관련 중앙부처의 정책사업 공동 협의 및 발굴	〃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하여 복지와 문화의 융합적 모델 개발	〃		
	• 노후생활 안정화	〃		
	- 노인 운영 자영업의 지속성 및 창업지원 강화	〃		
	- ‘노후준비지원법’의 실천	〃		
	- 정년연장 유예기간에서 점진적인 퇴직제도 확대	〃		
	•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내실화	중앙정부		
	- 노인일자리사업과 소득보장 사업의 통합관리	〃		
	• 복지사각 지대의 노인층에 대한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강화	〃		
	- 복지사각 지대의 노인층 정기조사	〃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발급	〃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노인여가문 화 정책 지원	•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 계획 수립	〃		
	- 노인여가문화 활동 참여 지원과 관련된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여가문화 활동 활성화 연구·조사의 정례화	〃		
	• 새로운 노인상 정립 및 인식 고취	〃		
	- 인식변화 위한 사회적 캠페인 확산	〃		
	- 제주노인의 새로운 모델 발굴	〃		
	- 제주노인 ‘재능나눔봉사단’ 발족과 적극적 지원	〃		
	- 어르신 보조교사 참여제	〃		

〈표 VI-1〉 노인여가문화 정책 활성화의 대응과제 실천 주체별·시기별 추진일정(안)

구 분	주요 사업	추진주체	추진시기	
			단기	중·장기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지원	● 노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 동호회나 클럽의 경연대회 개최	"		
	- 제주도내 어르신 여가문화달인 발굴	"		
	- 새로운 여가문화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	"		
	-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설계 및 실시	"		
	- 도내 대학에서 노인여가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노인여가문화 관련 전문인력 충원	"		
	●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빈곤노인의 탈빈곤 종합대책 수립	"		
	- 노후준비지원법에 의한 노후생활지원 관련 조례 제정	"		
	- 도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			
	- 민간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 (가칭)제주노인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복지사각지대의 빈곤노인 대상 노인여가 활동 참여기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 노인 DB 구축	"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노인여가문화 활동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강화	"		
	- 지역사회 활력과 재생에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기여	"		
	- 노인여가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강화			
노인의 여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노인의 여가문화에 대한 이해력 제고	제주특별자치도		
	- 노후설계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 노인여가복지 및 여가문화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		

□ 참고문헌

- 강연실 · 양영오(2013). 「2010 인구총조사를 중심으로 본 제주지역 베이비부머 및 에코부머세대 특성 분석 및 시사점」. 제주발전연구원.
- 고승한 · 김기홍(2013).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고용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고승한 · 이소정(2014).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 제주발전연구원.
- 고승한 · 임병우(2011).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고승한 · 전영록(2012).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사회의 대응전략」. 제주발전연구원.
- 고승한 · 정지형 · 홍수성(2012).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 인구유입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김태현 · 이세정 · 양봉민 · 한경혜 외. (2007). 「고령사회의 밝은 미래 :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복지정책 고찰」.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편. 서울: 아카넷.
-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2015). 「내부자료」
-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2015). 「내부자료」
-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2015). 「내부자료」
- 문순덕·강세현(2015). 「제주지역 내 지역간 문화격차 인식과 해소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문외솔(2011). “고령화시대의 한국 노동시장 전망.”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 여가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09). 「노인의 문화자원봉사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09). 「은퇴노인의 사회성 여가활동 사례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박동석 외. 「고령화 쇼크」. 2003. 서울 : 굿인포메이션.

박상철(2007). “지역사회 고령화 대책.” 「고령사회의 밝은 미래」. pp. 264-273.
서울: 아카넷.

박삼옥(2007). 「한국의 장수인과 장수지역」. 서울대학교출판부.

박조원(2010). 「노년층 대상 콘텐츠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건복지부(2015). 「2015 노인복지시설 현황」.

성명기(2009).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양혜원(2013).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2012). 「100세시대 대비 지역 여가향유 확대를 위한 전달체계 모델
구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2011).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윤소영(2009).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2008).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노인여가시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윤주(2008).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이건직 (2012).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대응전략.”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의 산업·경제분야 변화」. 제12회 제주미
래포럼 발표 자료. 제주발전연구원.

이서연·고승한 외. (2013). 「제주형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이찬영·태원유 외. (2011).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파장」. 삼성경제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2014. 12).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각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과(2015). 「내부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각 년도.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2015). 「내부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2015). 「내부자료」.
- 정경희 외. (2015).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정숙(2009). 「고령시대를 대비한 문화정책 개발연구-고령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지은정 외.(2014).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지원체계 구축 방안 II」.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11).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은행 제주본부(2005). 「제주지역 인구고령화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 Gibson, Heather J. & Singleton, Jerome F.(2012). *Leisure and Aging-Theory
and Practice*. Human Kinetics.
- Labour Force Statistic (2008). OECD Facebook 2008, *Society at a Glance 2006,
The World Values Survey, Wave 1999~2004*.
- OECD(2008), Social Statistics 2008.
- 노원구청 홈페이지, <http://www.nowon.kr>
- 노원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nowon.or.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activebb.kr>
- 중계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junggye.or.kr>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홈페이지, <http://www.bitown.kr>

□ 부 록 1 □

설 문 조 사 표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진단과 대응과제 연구

면 접 조 사 표

--	--	--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진단과 대응과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제주지역 노인들의 여가문화 생활 실태와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 처리되며, 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비록 바쁘시더라도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 4.

연구책임 : 고 승 한 박사

(☎ 726-6145. FAX. 751-2168. soc628@jdi.re.kr)

제 주 발 전 연 구 원

응답요령

♣ 해당되는 사항에 V표 또는 O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가와 일상생활

1. 어르신(본인)께서는 하루동안 가장 많은 시간동안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다음의 활동 중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것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① 일한다(발일, 취업 등)
- ② 손자·손녀 돌본다
- ③ 혼자서 TV보거나 취미나 오락활동한다(장기, 바둑, 화투 등)
- ④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다닌다
- ⑤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나 사교모임에 간다
- ⑥ 잠자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있다
- ⑦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2. 어르신(본인)께서는 여가활동 가운데 최근 가장 많은 관심분야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건강 관련 운동 및 스포츠 | ⑦ 목공일, 공예, 요리 등의 기술활동 |
| ② 컴퓨터, 인터넷 등의 IT 기술 | ⑧ 시, 연극 등 창작 활동 |
| ③ 미술 및 예술 관람 활동 | ⑨ 오름 등반 활동 |
| ④ 종교활동 | ⑩ 노래부르기, 악기 등 음악활동 |
| ⑤ 봉사활동 | ⑪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
| ⑥ 여행 및 관광 나들이 | |

3. 어르신(본인)께서 ‘여가’활동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남는 시간에 노는 일
- ②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을 구경하는 일
- ③ 하고 싶었던 활동(그림그리기, 악기배우기, 서예 등)을 배우고 참여하는 일
- ④ 남는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는 일
- ⑤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 ⑥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4. 어르신(본인)께서 여가활동 시간에 **본인이 주로 많이 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① TV보기	()	⑦ 화투치기	()
② 친구 만나기	()	⑧ 종교활동	()
③ 노래부르기	()	⑨ 봉사하기	()
④ 운동하기	()	⑩ 시, 연극활동	()
⑤ 바둑, 장기 등	()	⑪ 오름걷기	()
⑥ 서예 등 활동	()	⑫ 기타	()

여가문화활동 참여

5. 어르신(본인)께서는 다음의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구 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이용한 경험이 없다	앞으로 (계속) 이용하고 싶다	앞으로 (계속) 이용하고 싶지 않다
노인복지회관	①	②	③	④
경로당	①	②	③	④
노인대학	①	②	③	④
주민자치센터	①	②	③	④
박물관, 미술관	①	②	③	④
도 문화센터	①	②	③	④
문화원, 문화의 집	①	②	③	④
국민체육시설, 체육공원	①	②	③	④
대학의 평생교육원	①	②	③	④
민간시설(기원, 당구장 등)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6. 위의 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시설에서 이용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상깊었고 좋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7.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8. 어르신(본인)께서 여가시설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예 (☞ 8-1번으로) ② 아니오

8-1. 그렇다면 어르신(본인)께서 한 달에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만원

9. 어르신(본인)께서 이와 같은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어떤 사항을 개선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였으면 좋겠다
② 프로그램에 난이도(초급 ~ 고급)가 있었으면 좋겠다
③ 프로그램 수 보다 강좌 수를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④ 동호회/클럽 활동에 대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⑤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⑥ 개선할 사항이 없다

10. 어르신(본인)께서 현재 동호회 (친목회 등)/클럽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10-1번, 10-2번으로) ② 아니오 (☞ 11번으로)

10-1.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동호회/클럽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_____ 동호회/클럽 활동

10-2. 한 달에 몇 회 참여 하십니까? _____ 회

15. 어르신(본인)께서 향후 꼭 참여 하시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2가지 만 골라주십시오)

- | | |
|-----------------------|-----------------------|
| ①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프로그램 | ⑥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
| ② 운동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 ⑦ 전통문화 프로그램 (차, 탈춤 등) |
| ③ 노래나 오락 프로그램 | ⑧ 취업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
| ④ 여행, 관광, 등산, 낙시 프로그램 | ⑨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
| ⑤ 사교 (댄스 등) 프로그램 | ⑩ _____ |

16. 어르신(본인)께서 하고 싶으신 여가활동을 현재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2가지 만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① 시간이 없어서 | ⑥ 거리가 멀어서 |
| ② 원하는 강좌가 없어서 | ⑦ 노인을 위한 강좌가 없어서 |
| ③ 돈이 비싸서 | ⑧ 정보가 없어서 |
| ④ 같이할 사람이 없어서 | ⑨ 건강이 좋지 않아서 |
| ⑤ 집 볼 사람이 없어서 | ⑩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

17. 어르신(본인)께서 앞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생활의 활력을 얻는 사회봉사를 하고 싶다면, 어떤 활동에 참가하고 싶습니까?

- ① 기존에 배운 여가활동을 가르치고 싶다
- ② 종교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 ③ 자연환경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 ④ 어린이(유아 포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 ⑤ 보호/복지시설(요양원,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
- ⑥ 보호/복지시설(요양원,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청소 등의 잡일을 돕고 싶다
- ⑦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 ⑧ 봉사활동 자체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

18. 어르신(본인)께서 앞으로 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여가활동 이용 비용의 저렴함
- ②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
- ③ 이용 접근성이 좋은 여가시설 위치
- ④ 여가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강사 확보
- ⑤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여가문화 정책

19. 어르신(본인)께서 생각하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여가 활동분야에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충분하지 않다
- ② 대체로 충분하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충분하다
- ⑤ 매우 충분하다

20. 어르신(본인)께서 생각하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여가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①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에 예산 증액
- ②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③ 노인여가문화 활동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④ 노인여가문화 활동을 위한 전문시설 확충
- ⑤ 현재의 노인여가문화 시설에 대한 개보수
- ⑥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적극 홍보 강화
- ⑦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21. 어르신(본인)께서 생각하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① 노인여가문화 정책사업의 다양화
- ② 노인여가문화 정책 사업비의 대폭 증액
- ③ 노인여가문화 정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④ 노인여가문화 정책 관련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 ⑤ 노인여가문화 정책 활성화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 ⑥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인구학적 특성

1. 어르신(본인)의 현재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제주시 동(洞)지역
- ② 서귀포시 동(洞)지역
- ③ 제주시 읍·면지역
-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2. 어르신(본인)의 요즈음 건강은 어떠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 ② 대체로 나쁘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건강하다
- ⑤ 매우 건강하다

3. 어르신(본인)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였습니다습니까?

- ① 농·축·수산업
- ② 자영업(숙박, 음식 등)
- ③ 전문직(회계, 의료, 등)
- ④ 경영·관리직
- ⑤ 기술생산직
- ⑥ 판매서비스업
- ⑦ 일용단순직
- ⑧ 공무원
- ⑨ 전업주부
- ⑩ 기타 _____

4. 어르신(본인)의 현재 가정생활 형편은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어렵다
- ② 대체로 어렵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좋은 편이다
- ⑤ 매우 좋은 편이다

5. 어르신(본인)께서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 ① 혼자
- ② 배우자와 단둘이
- ③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 ④ 배우자 없이 자녀와 함께
- ⑤ 친척과 함께
- ⑥ 친구와 함께
- ⑦ 기타 _____ (말씀해주십시오)

6. 어르신(본인)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무학 ② 서당 ③ 초등학교 (중퇴 포함)
- ④ 중학교 (중퇴 포함) ⑤ 고졸 (중퇴 포함) ⑥ 전문대학 졸업 (중퇴 포함)
- ⑦ 4년제 대학 졸업(중퇴 포함) ⑧ 대학원 졸업 (석사 이상)

7. 어르신(본인)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만원

8.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9.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 록 2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01호, 2015.5.18.,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다. 「관광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관광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체육, 생활체육

2. “여가시설”이란 실내와 야외 그리고 사이버공간 등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자기계발, 사교, 놀이, 휴양,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여가활동,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사업 경영, 여가치유 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4. “여가산업”이란 여가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제작, 전시, 제공

및 판매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여가전문인력“이란 여가교육, 여가 조사 및 연구,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 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가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여가환경 조사·분석
4.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여가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여가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여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조사 및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여가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
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
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
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3301호, 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ABSTRACT

The Assessment and Alternative Tasks of Leisure Culture Policies for the Elderly in Jeju

Koh, Seung-Hahn & Yoon, So Young

Keywords : aged society, super-aged society, elderly life, leisure culture of the elderly, leisure activity, leisure career, leisure culture revitalization, leisure culture policy, aging friendly city

Both Korea and Jeju will be facing either an aged-society or super-aged society as a whole. The socio-economic and cultural outcomes coming from such a society cast a highly profiled policy issue in social welfare as well as the wellbeing for the senior people. It is likely that Jeju would reach the aged society soon.

Under this circumstance, we are highly concerned with the leisure activity or leisure culture for the old people in Jeju province. During the post-retired period from the working status, how to spend the free time is exclusively critical to the elderly life of Jeju. The much more important thing is to revitalize the existing leisure culture, and to induce new alternative options into the leisure culture policy. To do this, we have to assess the present policy situations and raise their policy problems. Furthermore, some policy alternative options would be suggested for the leisure culture activities among Jeju senior citizens.

This study is to figure out some pivotal natures of the aging society as a whole, in both Korea and Jeju society. Besides this issue, both policy assessment and its reactive tasks will be examined and highlighted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life level of Jeju old people.

This research basically lays out how over the 60-aged in Jeju spends their everyday life. This is likely to come out of the empirical survey outcomes, along with literature review and professional meeting. As a result, the research goal is to seek out some policy implications toward restructuring the leisure culture activity and engagement for Jeju's elderly people.

To meet this goal,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survey data of the 406 among senior citizens over 60-aged dwelling in Jeju province. Th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May 1~11 in 2015 by using 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 The statistical analytic method was dependent on frequency and cross-tab analysis.

Some primary implications for social survey compromise the following things : 1) the leisure activity programs for the elderly throughout Jeju province are needed to renew, and operate even at night, regarding their interest and self-satisfaction. This programs must stem from the needs of the old people, 2) the senior citizens' leisure culture activities to make desire are largely led to sports, tourism and computer learning, and so on. To promote their leisure activities, diverse information must be accessible with easy, 3) For the quality shift in leisure culture activity of Jeju's old seniors, there are some significant factors such as various program development and operation, budget increase, professional manpower foster, professional facility extension, etc., 4) in terms of either educational level or residence location, we can se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sustainable leisure culture activity, 5) related to the leisure culture activity assistance for the elderly, their dwelling region and health condition are an important factor. That is, the senior citizens living in Seogwipo city recognize that the policy aids for their leisure culture activities are enough. And for the healthy old, such policy assistance seems sufficient, 6) it is likely that leisure culture revitalization options for the old seniors would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residence area, health status, economic level among the old persons, 7) both residence location

and health factors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ce to efficacy enlargement of leisure culture policy for the elderly.

The future policy alternative options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cases, data analysis and diverse discussion would be coupled with several significant things. They, of course, are eligible to basic direction and strategy for invigorating leisure culture policy for the old seniors in Jeju local government.

In central government level, the National Leisure Revitalization Basic Law of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internalized into the leisure culture policy for the old people.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consider critically economic life security for them. This policy efforts make it possible to enjoy and engage leisure culture activities for the elderly. In particular, a lot of old people below the poverty line out of legal protection should be supported for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in Jeju region, first of all, we have to activize National Leisure Revitalization Basic Law in order to utilize its legal effectiveness in Jeju society as a whole. Jeju local government will pay attention to renew a variety of existing program operation toward a much better quality, in regard to the leisure culture activities. For encouraging the engagement with leisure activity, economic life for the elderly should be secured, thus leading to enjoy the post-retired life. This problem, particularly, reconsidered much more to the poor old people out of legal welfare protection. Besides this, the local community (ex., village, county level) will make a great role on leisure culture policy restructuring for the aged in a form of network system. Here, several institutes like senior welfare hall, village senior center, senior college will collaborate all together, including local residents. In individual level, the elderly will be also exposed to positive attitude for learning and understanding leisure culture and its policy.

More importantly, with the advent of aged society in Jeju soon, major social actors(local government, welfare institutes, community, NGO, etc.,)

to do many works related to leisure culture activities and policy projects are need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On road to new change for Jeju's leisure culture policy, we don't forget that Jeju old seniors must be put first.

연구진

책임연구원 : 고 승 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윤 소 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기본연구 2015-03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진단과 대응과제

발행인 || 강 기 춘

발행일 || 2015년 6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 2동 44-1)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

인쇄처 || 한미기획출판 전화: (064) 753-7891

ISBN : 978-89-6010-403-7 93330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